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60 / August / 2007

0708

**한국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건축사회관 우편번호 : 137-87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gods@kira.or.kr  
<http://www.kira.or.kr>



# 한국 건축 사 회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칼럼**  
建築의本質과設計業

**시론**  
농사를 지으며 인생을 배운다

**회원작품**  
한국수력원자력(주) 신고리 지역협력시설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인천상산월드체육관  
서울위성병원 추모관  
학동주택

**현상설계**  
경정훈련원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연재**  
건축주 브리핑 - 관점의 중첩(2)  
**건축사자격시험 공고**

## 칼럼 | Column

정태복 / 정회원,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주)부산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by Jung, Tae-bok, KIRA

## 建築의 本質과 設計業

### Essence of Architecture & Architect as Vocation

“건축설계의 본질은 창작이고, 건축설계 행위를 업으로 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생명은 작품이다.” 라고 배워왔고 지금까지 건축을 하는 좌우명으로 삼아왔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인·허가 업무의 절차가 설계의 프로세스가 되어버린 듯한 우리의 빼아픈 상황을 되돌아보면 건축설계의 본질을 논하고 건축사사무소의 존재목적인 작품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일견 사치일 수도 있다.

건축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놓고 분분한 의견을 펼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다가올 미래에는 건축의 실행이 건축사들에 의해서만 구제화 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이는 점점 더 치열하고 변화무쌍한 경쟁의 양태로 바뀌어가는 글로벌마케팅 시대를 규정짓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조종되는 밭주자(건축주)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라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이런 부류의 건축주(클라이언트)들은 건축사들에게 소위 ‘통제권’을 양도하는데 조차도 전혀 무관심하다. 이미 이러한 현상은 주지하다시피 국경을 초월한지 오래다.

선배 건축사들이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마스터로서 누렸던 황금시대는 이미 물건너 간지 오래다. 더군다나 영악한 건축주들은 건축사의 창작의 질과 설계 가격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주도적으로 가지려고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설계가격은 상대적으로 한정시켜 놓고, 설계결과에 대한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더욱 요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에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우리전체의 사활이 걸려있는 ‘대형건설사 설계겸업요구’의 논쟁도 저들의 눈에는 하나의 실험일 뿐이며 우리끼리 밥그릇 싸움질이나 하는 것처럼 저급하게 보일지 모른다. 이런 실험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의 경력과 능력이 있는 엘리트 건축사들이 자칫 도태될 것이란 점이다. 지금은 자금력과 제공권의 우위에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우리의 고유 영역인 설계시장을 잠식하기만 하면 천하통일이 되어 저들 나름대로 승승장구 할 것 같은 착각이지만 결국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지금도 국내 저명한 분의 저서 ‘건축시공학’ 한켠에는 분명히 씌여져 있는 글귀가 있다. 건축행위를 음악에 비유하여 건축설계자는 ‘작곡가’이고, 시공자는 ‘연주자’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변하여서 인지는 몰라도 연주자가 작곡도 하고 결국엔 총지휘자, 즉 마스터를 하겠다는 것이다. 저들이 꽤 심하다고만 할 수 없다. 환경이 변했고 세상이 바뀐 것이다.

설계업을 통한 통제권과 생존권을 잃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으리라 본다. 오히려 그러한 변화에 살아남는 지혜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들로서는 한지도 물러설 수 없는, 시공사의 ‘업역침범’이라고까지 하며 절대사수, 결사항쟁의 날을 세우고 있는 ‘설계

그렇다면 향후 한국건축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주체는 과연 누구이겠는가?  
그 주체는 한마디로 없다고 본다. 있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특정 집단이 되어서도 안된다.

대형은 대형대로, 아틀리에는 아틀리에대로,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동일한 처방을 내릴 수는 없다.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얼마나 능동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흥망이 달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언제나 대 국민, 대 국가의 이익을  
우리의 그것보다 우선시되고 존중될 때만이 지속 가능할 것이다.

겸업문제” 도 궁극적으로는 그 선택은 쌍방(건축사·건설사)의 어느쪽이 국민의 사회적 신뢰를 얻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이는 우리들의 이해관계만을 주장하고 싸우기 이전에 건축사를 포함한 건축인들의 존재 목적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건축사, 건설사) 얼마나 국민의 생명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우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라도 달라져야 한다. 건축환경의 변화와 쏟아지는 갖가지 관련 제도에 긴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인간이 만든 제도 중,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제도도 제정이후 오늘날까지 수천년 동안 역사이래 얼마나 많은 변화를 해 왔는가를 알아야 한다. 나를 포함한 우리들만이 주창하는 외침이 반드시 옳고 그 반대자는 틀리다는 주장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틱낫한 스님의 말씀처럼 “내가 옳고 네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네가 단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겠다. 이 세상에 진리는 있어도 절대적인 것은 존재치 않는다는 것이다. 근래 논쟁이 되고 있는 ‘시공사의 설계겸업 요구’도 개인적 기억에는 지금부터 십수년전 그때에도 ‘종합건설업 면허제도’ 도입여부로 적지 않은 소란이 있었다.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미봉책으로 대충 덮어놓고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오늘날까지 그냥 흘려 웠었던 것이다. 이제 건설관련 국내시장과 국제시장도 엄청 변하였지만 국민의식도 불과 십년 사이 너무 변하였다. 그 변화의 대물결 속에 IMF라는 큰 혼란도 있었지만 우리들은 그 변화에 대한 대응을 아쉽게도 제대로 못하였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믿기 싫어도 이제 눈앞의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거기에서 해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땅에 넘어진 아이가 그 땅을 원망할 수만 없지 않는가, 왜냐하면 결국 그 땅을 짚고 일어설 수밖에 없듯이 상황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그 이상의 자구책들을 찾는대서 시작될 것이다. 이제는 사회 수준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건축문화의 올바른 정착과 향상을 위해 건축주, 건축사, 시공자 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공동체적인 건축의 사회적 기능을 정상화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향후 한국건축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주체는 과연 누구이겠는가?

그 주체는 한마디로 없다고 본다. 있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특정 집단이 되어서도 안된다.

대형은 대형대로, 아틀리에는 아틀리에대로,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동일한 처방을 내릴 수는 없다.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얼마나 능동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흥망이 달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언제나 대 국민, 대 국가의 이익을 우리의 그것보다 우선시되고 존중될 때만이 지속 가능할 것이다. ■

## 시론 | Focus

조원용 / 정희원, (주)다이아몬드 건축사사무소,  
안산1대학 겸임교수  
by Cho, Won-yong, KIRA

# 농사를 지으며 인생을 배운다

## Learning Life from Farming

평생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적이 없지만, 매일 출퇴근길에 한번 씩 필자의 눈과 마음을 붙잡았던 주말농장. 금년엔 꼭 해보리라 다짐했던 계획을 드디어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 원래 10평 단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가족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과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먹으려면 좀 넓어야 되겠다 싶어서 20평으로 계약했다. 게다가 아직 개간되지 않은 잡초가 무성한 울타리 한 쪽은 직접 개간을 해도 된다기에 10평 정도를 추가했더니 총 30평이 되었다.

‘로터리’라 불리는 농기계의 힘을 빌려 적당한 간격으로 골을 나누어 겨우내 눌려 있던 땅을 갈아 뒤집어 흙속에 신선한 공기를 소통시켜주는 것이 처음 해야 할 일이었는데, 그나마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짜로 얻은 10평은 순전히 삽으로 만 땅을 뒤집고 잡초와 돌을 골라내야 했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다. 너무 욕심내서 무리하지 말라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몇 시간동안 팜벌벽이 되어 붉은 흙을 드러내 놓고 상추를 비롯한 이름도 모를 쌈 채소들과 들깨, 가지, 옥수수, 호박, 토마토, 오이, 고추 등 여러 종류의 씨앗과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놓고 나니 그제야 밭 같아 보여 농사에 대한 감이 없는 필자로서는 그저 흐뭇하기만 했다.

모종으로 심은 잎채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입맛을 다실 정도로 잘 자라주었지만, 씨를 뿌린 들깨는 2주가 지났는데도 도무지 쑥이 올라오지 않아서 애를 태웠는데, 알고 보니 너무 깊이 심어서 늦게 쑥이 트는 것이었다. 아무튼 3주째가 되니 붉은 흙속에서 파릇파릇한 초록색의 새싹들이 가득히 올라왔다.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마치 어린아이의 손을 만지듯 조심스레 쑥의 촉감을 느끼며 행복한 미소가 가득해졌지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라고 했던가? 쑥의 모양을 구별할 수 있는 일주일쯤 후에 다시 보니 필자가 심었던 들깨는 통 보이질 않고 올라온 쑥의 90%가 잡초였던 것이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심었던 씨는 땅강아지나 새들이 다 먹어버렸고, 심지도 않았던 잡초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쪼그려 앓아 그 많던 잡초를 하루 종일 뽑으면서 잡초의 생명력을 생각해 보았다.

‘잡초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켜내려는 생명력이 강하다. 왜 보호받지 못할까? 그것은 ‘자신의 방식대로’ 꽃과 씨를 맺지만 사람에게 유익한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열매 맺는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빼앗아 가기까지 한다. 열매는 없어도 봄철에 꽃을 예쁘게 피우는 풀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풀들을 야생화라 부르고 사랑하지만, 이 역시 꽃이 지고나면 한낮 잡초에 불과한 것이다.’

잡초를 뽑으면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심지도 않았는데, 흙속에서 ‘콩나물’처럼 생긴 쑥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이야~이거 횡재다.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콩도 얻을 수 있겠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서 다시 보니 그 역시 콩처럼 보이는 잡초였고, “직접 심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잡초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그렇게 진리처럼 느껴질 수가 없었다. 심지어 뿌린 씨앗조차도 밭고랑에 떨어지게 되면 그 또한 잡초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 고랑은 밭로 밟고 다니며 밭의 작물을 돌봐야 하는 것인데, 고랑에 떨어져 자란 채소를 밟지 않고 조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전체 밭을 위해서는 부질없는 짓이었기 때문이다.

인생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라고 한다.

농사를 처음 지으면서 필자는 그동안 어떠했나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가을에는 주렁주렁 매달려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로 양념을 만들어 물김치를 해먹을 생각이다.

마흔이 넘도록 농사일을 해보지 않았던 풋내기 농부는 오늘도 밭에서 토마토와 오이를 따며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인생’을 그렇게 흙에서 배우고 있다.

그렇게 봄의 태양은 여름을 향해 달려가며 하탄했던 밭에 놀라운 생명을 부여하고 있었고, 농약을 하지 않아 구멍 난 잎채소들은 식탁의 즐거움으로 땀의 대가를 지불해 주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벌레도 먹고 나도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잎채소들을 우연한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니 벌레 알들이 그대로 박혀 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어떤 놈들은 이미 번데기가 되어서 잎을 뚫고 나오기 직전인 것도 있었다. 흔히 케일과 같이 두꺼운 잎채소에 달팽이가 기어간 자리처럼 보이는 구불구불한 자국은, 두꺼운 잎사귀 앞표면과 뒤표면의 사이에 알을 낳아둔 것이 깨어나 그 속을 지나가며 갉아먹은 자국이었고, 마지막 면춘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작은 번데기가 들어있는 것이다. 여기에 구멍이 나 있으면 벌레가 이미 빠져나온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직 번데기로 남아 있는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알고 봤더니 채소가 자란 후에는 농약을 하지 않지만, 씨를 뿌리기 전에 미리 땅에 농약을 해서 땅속에 있던 벌레들을 다 없앤 후에 모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거의 10평 가까이 심겨진 잎채소들이 모두 이런 상태였다. 몰랐을 때는 먹었지만, 알고 나니 못 먹겠다.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를 해보지만 어쩌겠는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 모든 채소를 다 뽑아 버리고 고구마로 다시 심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데 그게 꼭 필자를 두고 생겨난 말 같다.

처음 농사를 짓다보니 다른 밭을 보는 것도 큰 공부다. 어쩌면 그렇게 깨끗이 밭을 관리하는지 꼭 대리석 현관처럼 반짝반짝한 느낌이 나는 밭도 있다. 모든 게 다 ‘정성’이다. 주인이 쏟은 정성만큼 자라고 열매도 맷게 된다. 그런데 ‘시기’는 있는 것 같다. 고추는 종류별로 다 심었다. 아주 매운 청양고추, 떨 매운 고추, 꽈리 고추, 오이같이 크고 아삭한 오이고추, 그리고 피망까지. 다른 고추는 심은 지 한 달쯤 되니 벌써 많이 자랐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에 비해 유독 청양고추는 한 달이 다 되도록 처음 심은 크기 그대로였다. 거울도 주었는데 전혀 자라지 않아서 아예 뽑아버리고 다시 심을까도 생각했지만, 옆 밭의 아저씨가 자라는 때가 다 다르니 좀 기다리면 될 것이라고 그냥 놔두라 하셨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청양고추는 잘 자라주었고 여름 내내 맛있는 풋고추를 팔 수 있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지? 좀 일찍 성공하는 이도 있지만, 그 때가 더디 오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확신도 얻게 되었다.

농사를 짓기 전에는 비오는 것을 싫어했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밭에 나가 한 시간 이상 물을 주어야하는 수고를 하고 난 후에는 비오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농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철이 드는 건가? 비가 온 후에는 잡초 뽑기도 훨씬 수월해진다. 이번 여름에는 비가 간간히 자주 와서 봄보다 물주는 수고는 훨씬 줄었다.

인생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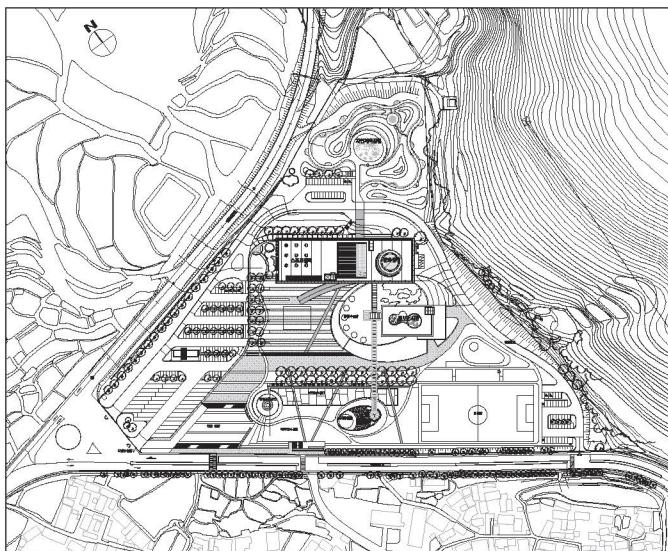
농사를 처음 지으면서 필자는 그동안 어떠했나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가을에는 주렁주렁 매달려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로 양념을 만들어 물김치를 해먹을 생각이다. 마흔이 넘도록 농사일을 해보지 않았던 풋내기 농부는 오늘도 밭에서 토마토와 오이를 따며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인생’을 그렇게 흙에서 배우고 있다. ■

## 회원작품 | Works

신동재 / 정회원, (주)디올 건축사사무소  
by Sheen, Dong-jae, KIRA

## 한국수력원자력(주) 신고리 지역협력시설 KHNP Kori Energy Farm - Sports & Culture Center, Nuclear Pavilion

## ● 배치도



0 10 20 50m

## ● 건축개요

|       |  |
|-------|--|
| 대지 위치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산 105-10일대   |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전원개발예정지구   |
| 대지면적  | 68,016.49m <sup>2</sup>  |
| 건축면적  | 6,261.98m <sup>2</sup>   |
| 연면적   | 8,957.68m <sup>2</sup>   |
| 조경면적  | 50,715.07m <sup>2</sup>  |
| 건폐율   | 8.78%  |
| 용적률   | 9.81%  |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 내부마감  | 화강석, 고압적층패널, S.G.P 패널, 아크릴페인트  |
| 외부마감  | 시멘트패널, 고내구성 목재루버, 투명복층유리,<br>알루미늄 골패널, 고압적층패널, 세라믹패널                     |
| 설계담당  | 김종일, 지은권, 박준표, 이상경, 백창윤, 전종현   |
| 구조설계  | (주)신길구조이앤지   |
| 설비설계  | 미도설비기술사사무소   |
| 전기설계  | (주)한신콘설탄트  |
| 시공사   | 건축 : (주)현대건설<br>전시 : (주)오투련 + (주)I.D.C<br>전기 : (주)진흥전력공사<br>통신 : (주)국일통신 |
| 설계기간  | 2003. 11 ~ 2004. 04  |
| 공사기간  | 2005. 02 ~ 2006. 12  |



|                     |  |
|---------------------|--|
| Location            | 105-10, Hyoan-ri, Jangan-eup, Gijang-gun, Busan, Korea |
| Site area           | 68,016.49m <sup>2</sup>                                |
| Bldg area           | 6,261.98m <sup>2</sup>                                 |
| Gross floor area    | 8,957.68m <sup>2</sup>                                 |
| Bldg coverage ratio | 8.78%  |
| Gross floor ratio   | 9.81%  |
| Structure           | R,C + S.R,C  |
| Bldg. Scale         | B1, F3   |

1 서측전경 2 서남측전경



고리 원전과 골이어 건설될 신고리 원전으로 이어지는 갈림길에 위치한 약 2만여 평의 삼각형 부지에 원자력의 홍보전시관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 및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산 정상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프로젝트로서, 2003년 현상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2007년) 완공하게 된 것이다.

최초로 설정된 이 시설의 목표는 미래의 필연적인 Clean-Green 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을 지역과 외부의 방문객에 체험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지역에 개방된 유익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친근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른 설계의 기본적 개념으로 세 가지 주안점 즉 '자연과의 조화', '지역과의 조화', 그리고 '과학기술과의 조화'를 건축, 조경, 전시의 통합된 목표로 하여, 단지전체가 하나의 자연 친화적 에너지의 체험장으로 조성되게 하였다.

먼저 건축적 조직은 프로그램에 따라 스포츠 센터와 문화센터, 홍보전시관의 3부분으로 분리한 후, 그 중 스포츠센터와 문화센터는 하나의 Mass로 다시 결합하여 동선과 서비스지원시설을 공유시키며, 홍보전시관과는 복제 데크로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통합되도록 하였다.

외부공간의 정의는 자연에서 도시로 전개되는 전체 부지의 위계에

따라 북측에서부터 '자연의 공간-생태학습공원', '조화의 공간-건축물과 중앙광장', '시민의 공간-시민체육 및 휴게공원'으로 구분하고 두개의 서로 다른 크기의 장방형 Mass를 타원형의 중앙수공간과 평행 배치하여 삼각형의 대지가 지니는 부정형성에 질서를 부여하였다.

녹지와 수공간 그리고 보행자의 복제 데크와 판석의 돌길은 각각 그 조직을 해체하여 서로 긴밀하게 엮이며 자연과 인공의 접목을 부드럽게 완성한다.

하나의 시나리오로 구성된 관람객의 움직임을 형상화하는 디자인적 시도로서, 높아지는 대지의 레벨을 이용하여 복제의 보행자램프를 주된 접근경로로 설정하고, 중앙의 수목으로 가득한 아트리움 공간으로 접근하도록 하였으며, 이 동선은 이 중앙공간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뻗어나가게 된다. 이 2층에서 바다로의 조망의 과정은 가장 극적인 부분으로 2층 높이의 타원형의 반사연못은 먼 바다와 연결되어 물위에 떠있는 전시장과 꺼지지 않는 불을 상징하는 야외공연장의 유리탑을 지나 바다로 연장된다.

계속되는 램프는 중앙의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하여 공중에 뜬 나선형 동선으로 다양한 레벨의 기능들을 연결하면서, 3층 국제회의실 앞의 데크로 전개되는데, 이는 이용 동선이 곧바로 건축형태를 형성

하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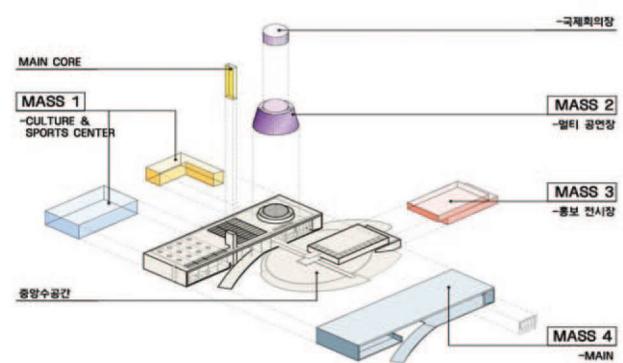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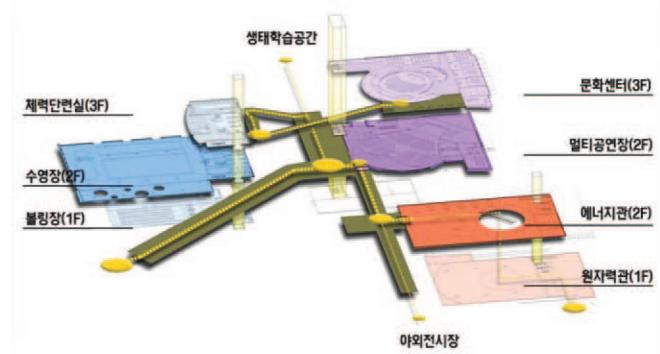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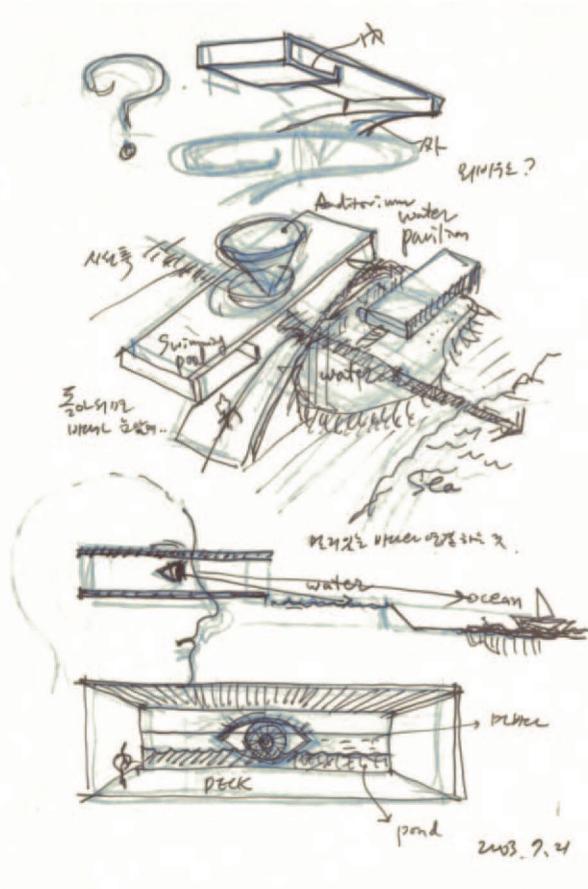
장차 신고리 원전 전역을 조망하는 위치의 전망대는 대지변형을 최소화하는 브릿지형으로 그 형태는 진입 – 조망 – 귀환이라는 관람자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것으로 시선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처음 보행자로를 따라 ‘진입’하면서 1층의 옥외전망대에서 동해 바다로의 극적인 시야를 유도하고, ‘조망’은 1층에서 2층으로의 동선과 함께 전개되어 실내 전망대에서 이루어지며, ‘귀환’ 시 2층의 브릿지에서 신고리 전역을 조망하면서 귀환하는 동선의 과정을 그대로 형태화 하여 보여준다.

지역에 기여하는 공공적 문화 복지시설이라는 용도, 일련의 Sequence를 지니는 건축 프로그램, 자연친화적이며 생태적 건축의 구현 등, 현대 건축의 화두가 되는 매력적인 주제를 고민하였던 프로젝트로서, 이제 완공되어 이 시설이 지역과 주변의 시민들에게 활기차고 친숙하게 이용되기를 기원해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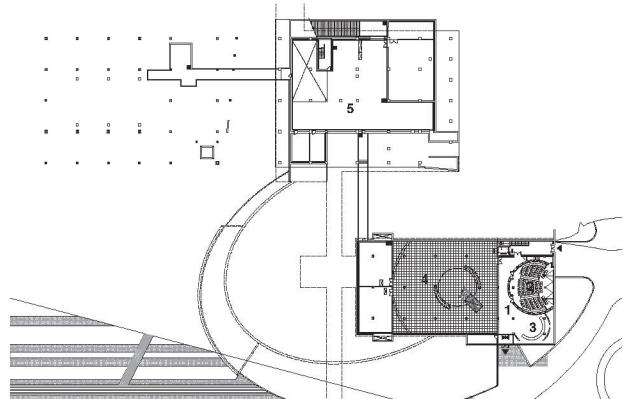
|   |   |   |   |   |   |   |
|---|---|---|---|---|---|---|
| 1 | 2 | 4 | 5 | 6 | 7 | 3 |
|---|---|---|---|---|---|---|

- 1\_ 물위에 떠 있는 홍보관  
2\_ 스포츠, 문화센터로 전입되는  
보행자 램프 주 진입로  
3\_ 야경  
4\_ 스케치  
5\_ 동선개념  
6\_ 애스개념  
7\_ 바다로의 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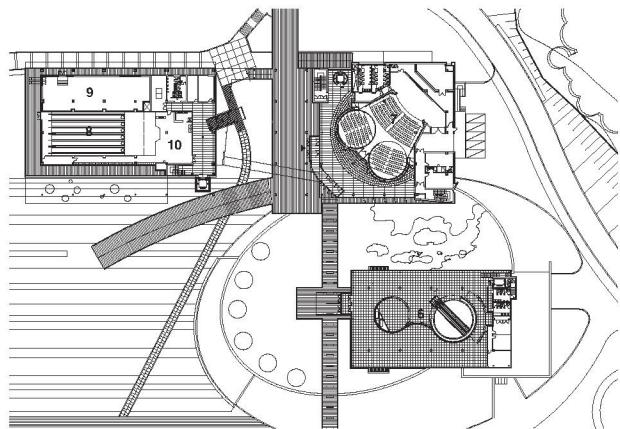




01\_홀  
 02\_시청각실  
 03\_통신룸매장  
 04\_원자력탄  
 05\_기계실  
 06\_에너지관  
 07\_멀티공연장  
 08\_풀광장  
 09\_수영장기계실  
 10\_장비대여실  
 11\_총보정시관  
 12\_락커룸  
 13\_수영장  
 14\_연습용풀  
 15\_회의/세미나실  
 16\_전망대  
 17\_VIP룸  
 18\_체력단련실  
 19\_수영장 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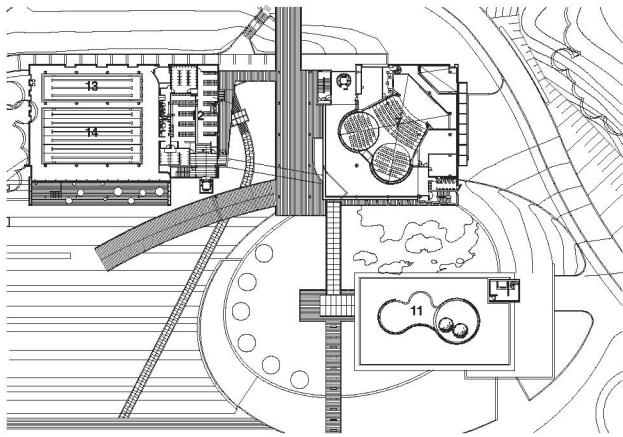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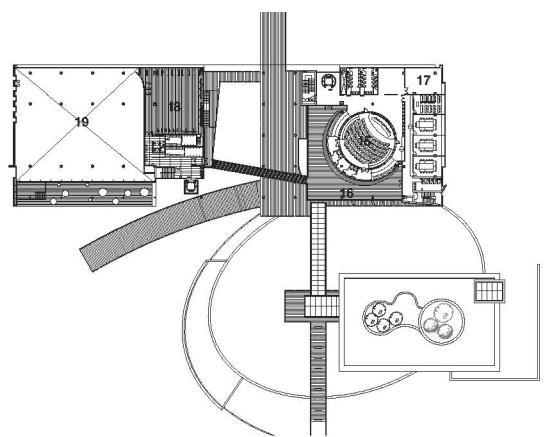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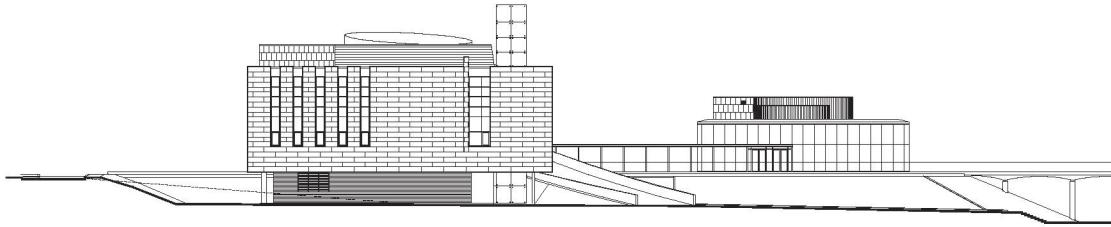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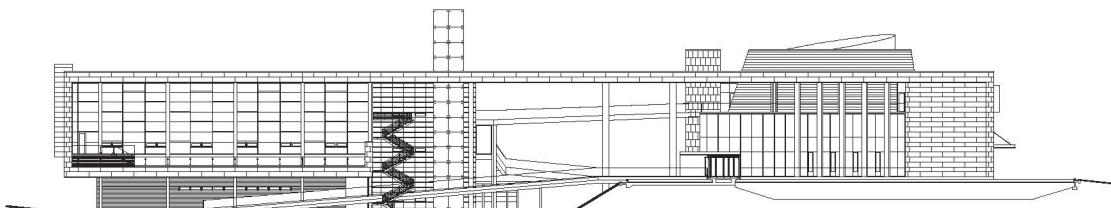
|   |   |   |   |
|---|---|---|---|
| 1 | 2 | 3 | 4 |
|---|---|---|---|

1\_ 신고리 원전 전역을 조망하는 위치의 전망대  
2\_ 수질정화 역할을 하는 생태연못  
3\_ 스포츠, 문화센터 중앙 아트리움 정면  
4\_ 3층 국제회의장 데크에서 바라 본 주 진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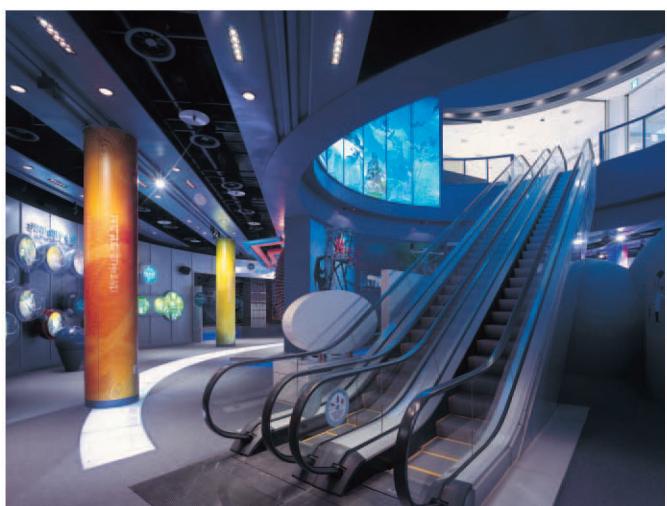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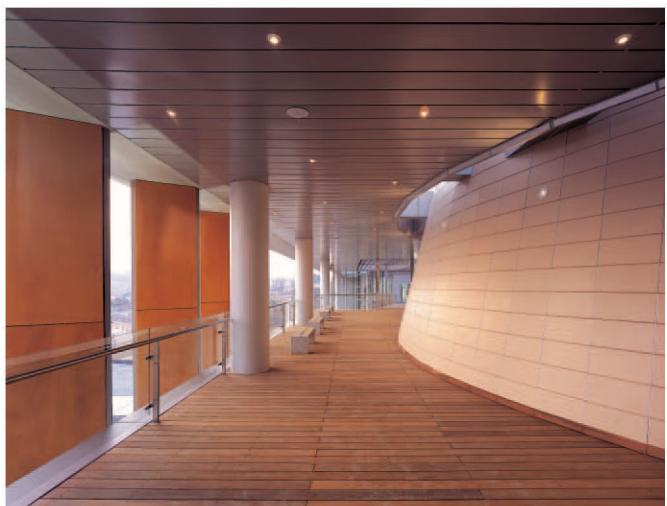
작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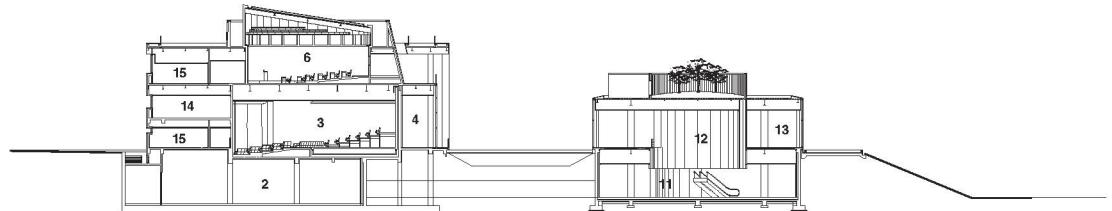
정면도

|   |   |   |   |
|---|---|---|---|
| 1 | 2 | 5 | 6 |
| 3 | 4 | 7 |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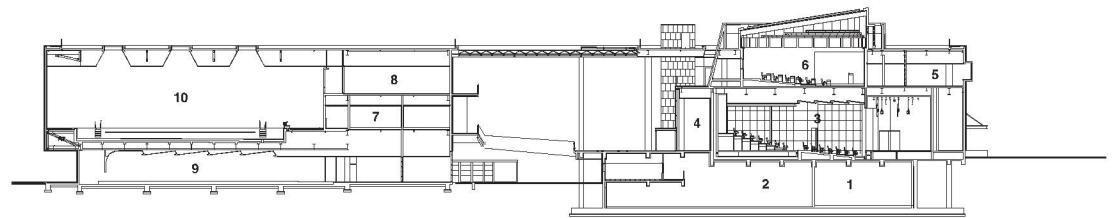
1. 중앙 아트리움 3층 레벨에서 바라본 스포츠센터  
 2. 국제회의장 데크  
 3. 공연장 로비  
 4. 원자력 홍보관 내부  
 5. 원자력 홍보관 내부  
 6. 에너지관 내부  
 7. 멀티 공연장 내부  
 8. 스포츠센터의 수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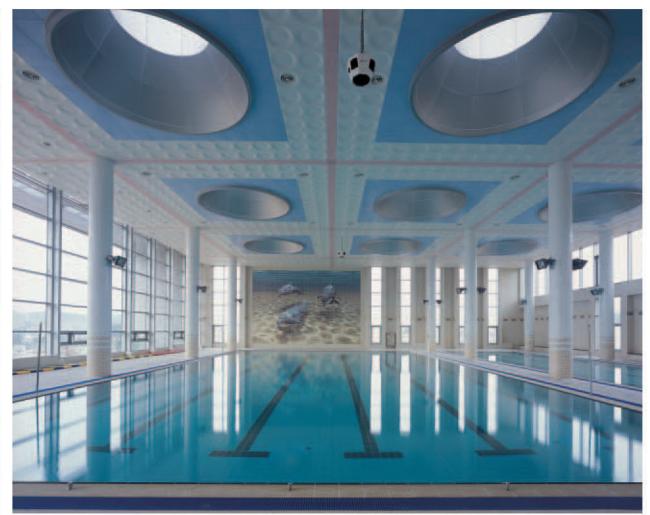
- 01\_전기실
- 02\_기계실
- 03\_멀티공연장
- 04\_로비
- 05\_문화취미실
- 06\_회의 및 세미나실
- 07\_락커룸
- 08\_체력단련실
- 09\_풀럼장
- 10\_수영장
- 11\_원자력관
- 12\_충보전시관
- 13\_에너지관
- 14\_관리실
- 15\_화장실



종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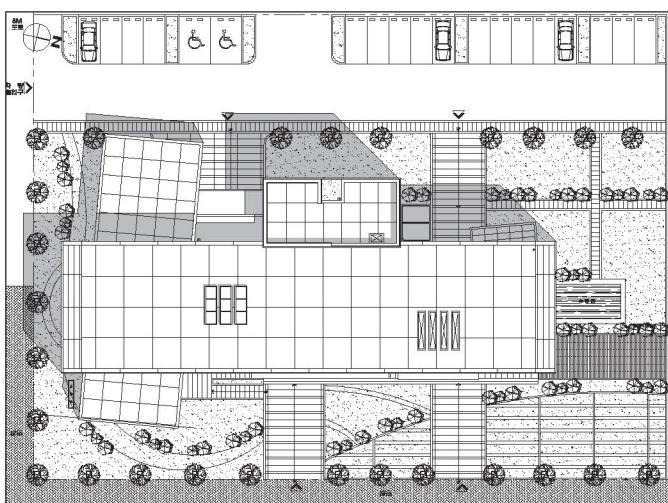


## 회원작품 | Works

박동준 / 정희원, (주)그룹 포에이 건축사사무소  
by Park, Dong-jun, KIRA

##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Namdo traditional food museum & Archive of honam's culture exhibition center



## ● 배치도

## ● 건축개요

|       |   |
|-------|---|
| 대지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79-2번지  |
| 지역지구  | 문화시설용지  |
| 주요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 대지면적  | 3,300.00m <sup>2</sup>  |
| 건축면적  | 1,006.68m <sup>2</sup>  |
| 연면적   | 2,358.11m <sup>2</sup>  |
| 건폐율   | 30.50%  |
| 용적률   | 64.59%  |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 내부마감  | 화강석물갈기, 비닐페인트, 석재타일   |
| 외부마감  | T50압출성형시멘트판, T3알루미늄쉬트, T30화강석, T30라임스톤, T30마천석, 지정색외단열시스템, 친환경합성목재, T12 고강도합성목재, 유리블럭 |
| 설계담당  | 김광천, 최기성, 김용준   |
| 구조설계  | 토탈구조  |
| 설비    | 좋은엔지니어링   |
| 전기    | 좋은엔지니어링   |
| 시공사   | 성심종합개발(주)   |
| 설계기간  | 2005. 07 ~ 2005. 11   |
| 공사기간  | 2005. 12 ~ 2006. 12   |



Location 779-2, Samgak-dong, Buk-gu, Gwangju, Korea

Site area 3,300.00m<sup>2</sup>

Bldg area 1,006.68m<sup>2</sup>

Gross floor area 2,358.11m<sup>2</sup>

Bldg coverage ratio 30.50%

Gross floor ratio 64.59%

Structure R.C

Bldg. Scale B1, F3



1\_ 전면전경  
2\_ 세로전경  
3\_ 메인 외부 전경

이번 ‘남도 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프로젝트는 예로부터 전라남도에서 발달된 우수한 향토음식의 명맥을 이어가는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아울러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고대로부터 음향오행 사상에 근거한 오방색이라는 색체문화를 지녀왔음을, 그리고 오방색은 오행의 개념으로 색과 맛으로 구분하면 노란색은 단맛, 푸른색은 신맛, 붉은색은 쓴맛, 흰색은 매운맛, 검은색은 짠맛을 상징함을, 또한 생활속에서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계획개념으로 한다.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요소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의 맛을 표현수단으로도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개획개념으로 한다.

또한 남도의 상징인 입석대를 디자인 개념으로 하여 자연 모습 그대로 분절성을 상징화하고, 입면의 분절성을 살려내며 함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다식을 찍어내는 다식판의 튀어나온 부분의 수(壽), 복(福), 강(康), 넝(寧) 같은 길상문자를 새겨 넣기도 하고 완자 무늬나 꽃무늬 또는 물고기 따위를 아로새겼음을 모티브로 다식판의

Pattern을 단순화 하여 Design Pattern으로 상징화한다.

배치에 있어 건물은 신축예정인 제2청사 건물의 정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하였고, 건물의 정면부의 접근성을 위해 진입광장을 확보하고, 좌측의 접근성을 위해 진입 수공간을 계획하여 진입의 쾌적성을 부여하였다. 또 전통건축(소쇄원), 음식문화(다식판), 남도의 상징(입석대)을 구민광장, 진입마당부분에 형상화하여 박물관 및 전시관 주출입구에 수공간을 형성, 쾌적한 진입과 배면부에서의 시각을 쾌적하게 계획하였다. ■





3\_ 베면 외부데크  
4\_ 남즈 계단탑  
5\_ 메인계단탑  
6\_ 기획전시실 외부 마감

1\_ 남즈 외부데크  
2\_ 북즈 외부데크 및 계단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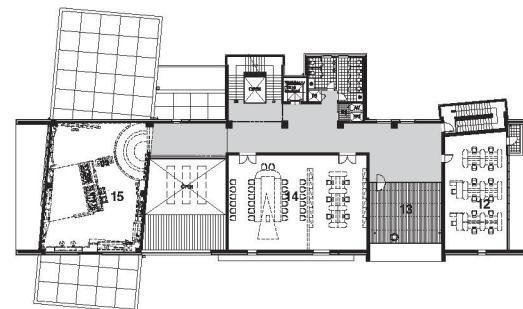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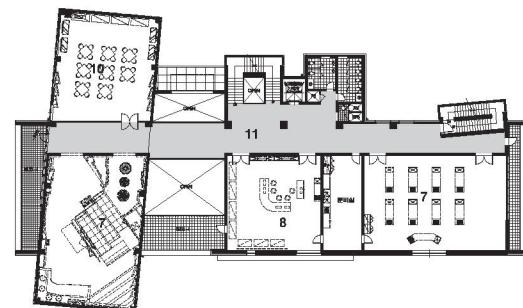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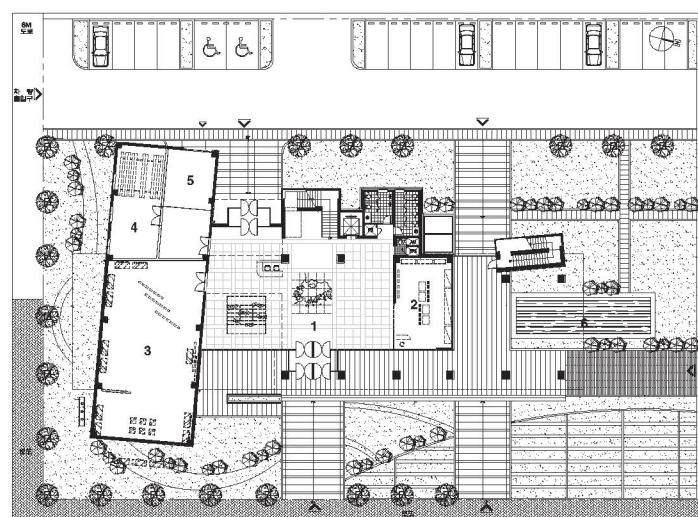
- |           |              |             |
|-----------|--------------|-------------|
| 01_ 흘     | 06_ 수공간      | 11_ 복도      |
| 02_ 뮤지엄 솔 | 07_ 향토음식체험실  | 12_ 사무실     |
| 03_ 기획전시관 | 08_ 어린이체험실   | 13_ 옥외휴게공간  |
| 04_ 수장고   | 09_ 음식박물관    | 14_ 세미나/연구실 |
| 05_ 하역장   | 10_ 뮤지엄 스튜디오 | 15_ 호남문화전시관 |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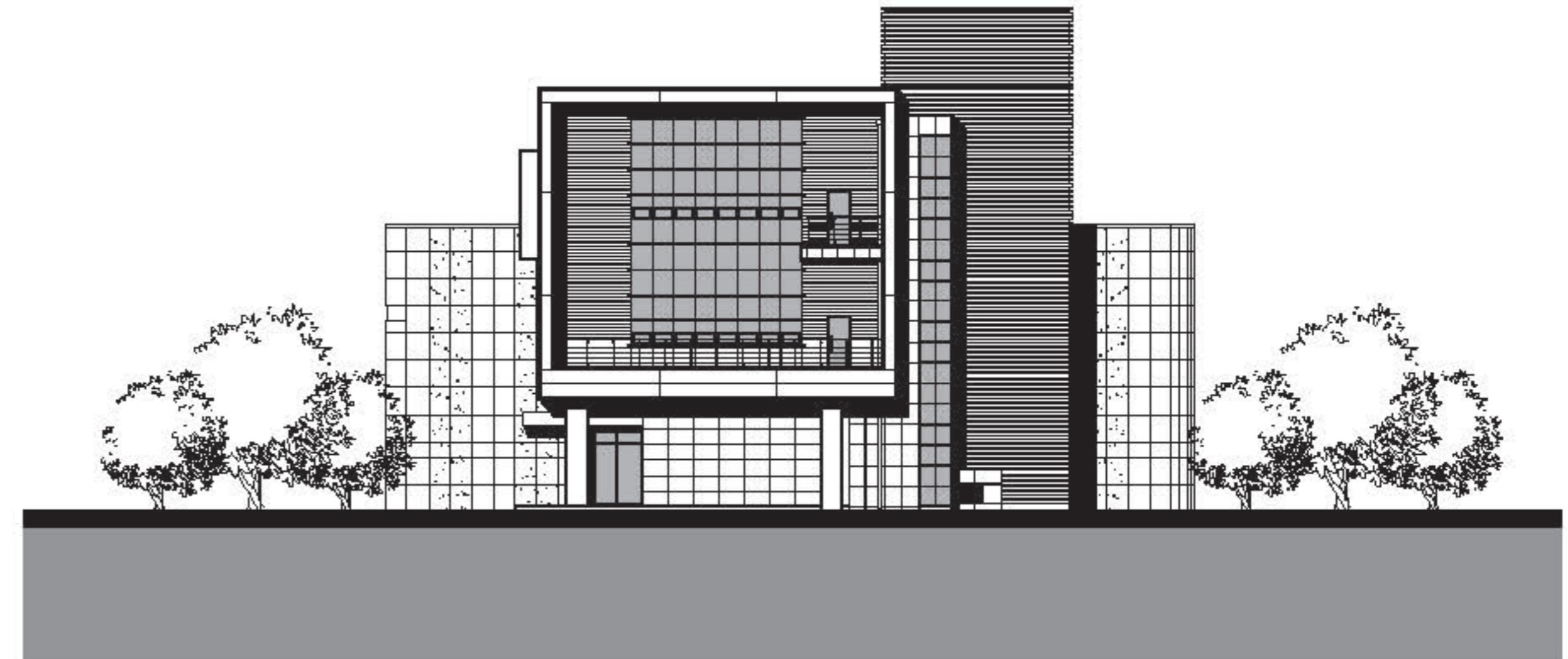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 |   |   |
|---|---|
| 1 | 3 |
| 2 | 4 |
- 1\_ 주출입구  
2\_ 외부 수공간  
3\_ 외부 발코니  
4\_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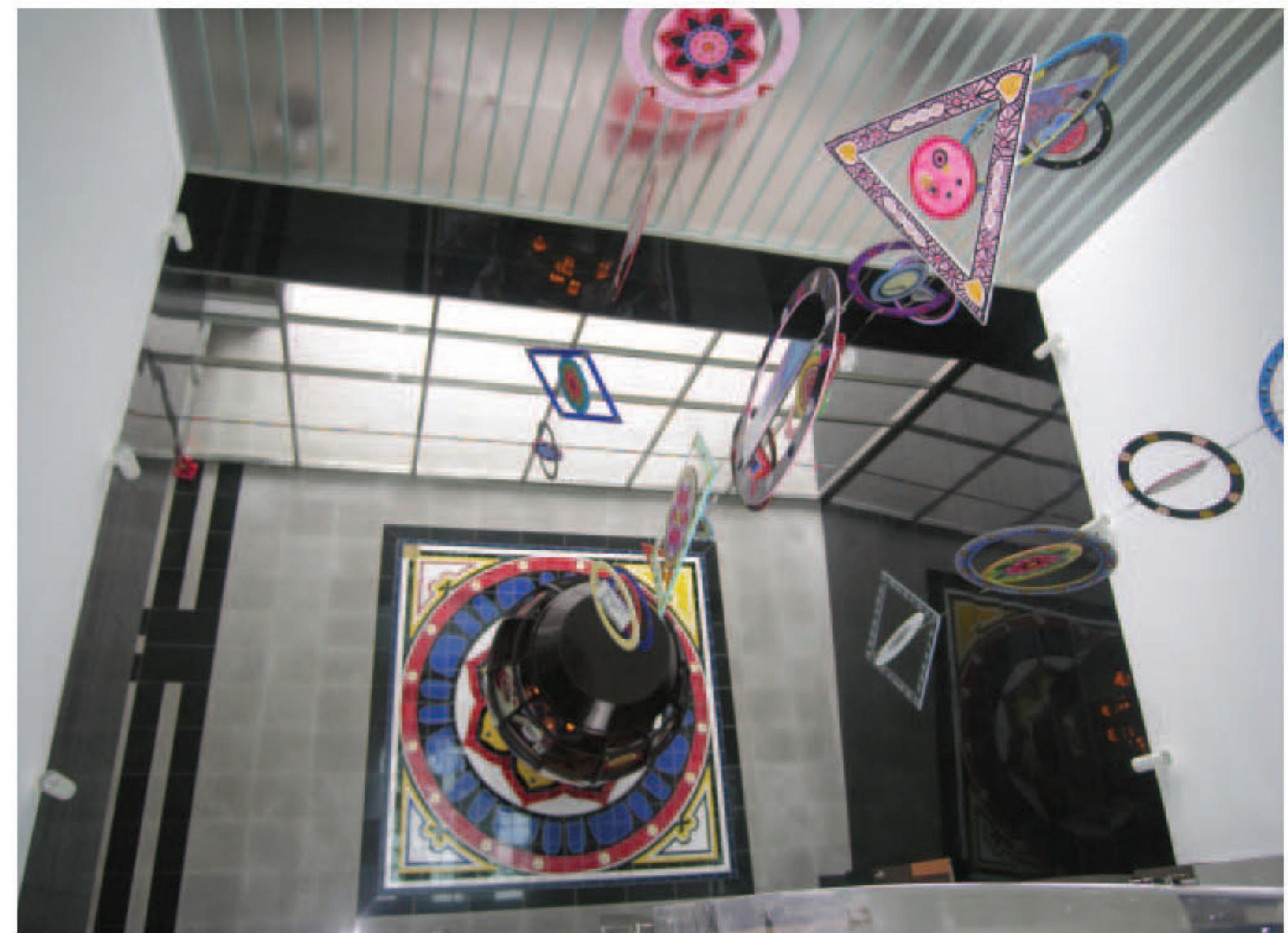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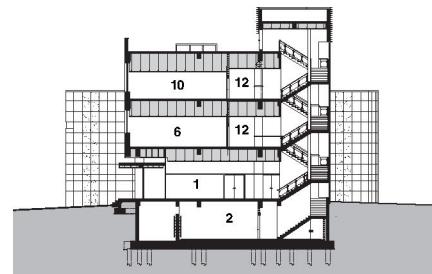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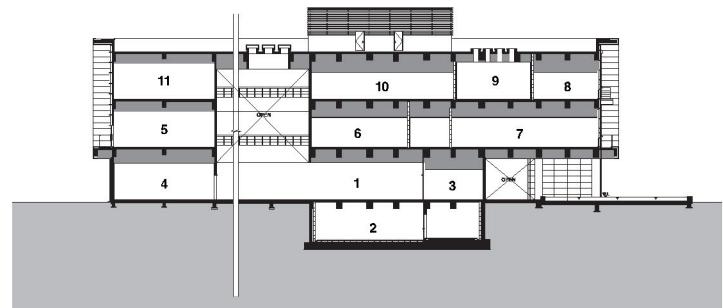
|       |       |                                   |
|-------|-------|-----------------------------------|
| 1   2 | 4     | 1_ 메인홀                            |
| 3     | 5   6 | 2_ 내부 보이드                         |
| 3     |       | 3_ 박물관 내부                         |
|       |       | 4_ 메인홀 상부<br>5_ 메인 계단실<br>6_ 외부데크 |



- 01\_ 층  
 02\_ 기계실  
 03\_ 뮤지엄 층  
 04\_ 기획전시관  
 05\_ 음식박물관  
 06\_ 어린이체험실  
 07\_ 향토음식체험실  
 08\_ 사무실  
 09\_ 유희휴게공간  
 10\_ 세미나실/연구실  
 11\_ 호남문화자료전시관  
 12\_ 복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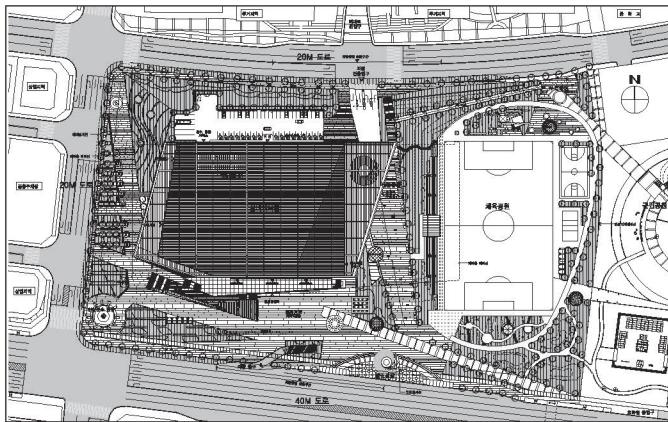


## 회원작품 | Works

안길원 / 정희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무영건축 +  
 송수구 / 정희원, (주)티씨엠씨 건축사사무소  
 by An, Gil-won, KIRA & Song, Su-ku, KIRA

## 인천삼산월드체육관(T · K) Incheon Samsan World Gymnasium

## ● 배치도



## ● 건축개요

|       |  |
|-------|--|
| 대지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8-1  |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 주요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실내체육관),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
| 대지면적  | 50,020m <sup>2</sup>   |
| 건축면적  | 9,819.35m <sup>2</sup>   |
| 연면적   | 43,029.12m <sup>2</sup>  |
| 건폐율   | 19.63%   |
| 용적률   | 36.65%   |
| 규모    | 지하 2층, 지상 3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칠골트러스조   |
| 외부마감  | 칼라복층유리, 알루미늄 복합패널,<br>압출성형시멘트 패널, 메탈패널   |
| 설계총괄  | 조민건  |
| 설계담당  | 무영건축 : 노광현, 윤동환, 변지상, 심상철, 최종환, 윤여훈,<br>태운재, 황정범, 정길현, 함영선, 김세진, 허봉선<br>TCMC : 임기환, 김성일, 김태인, 이창환, 지상수<br>창민우구조+ES구조 |
| 구조설계  | 삼신설계(주)  |
| 설비설계  | (주)나라기술단   |
| 전기설계  | (주)기원조경  |
| 조경설계  | (주)에이스올  |
| 토목    | 넥스페이스(주)   |
| 인테리어  | 감리 건원엔지니어링   |
| 감리    | 시공사 현대건설(주), 경화건설, 삼웅건설, 풍창건설  |



Location 458-1, Samsan-dong, Bupyeong-gu,  
Incheon, Korea

Site area 50,020m<sup>2</sup>  
 Bldg area 9,819.35m<sup>2</sup>  
 Gross floor area 43,029.12m<sup>2</sup>  
 Bldg coverage ratio 19.63%  
 Gross floor ratio 36.65%  
 Structure R.C + S.C truss  
 Bldg. Scale B2, F3



1\_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원경 2\_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전경

인천시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적 허브시티로 발돋움 하기 위한 펜타포트(Penta port)의 요소를 갖추어 가고 있다. 이에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은 삶의 질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생성되는 체육과 문화의 축인 S-Port를 추가하는 동시에 이는 인천시민에게 경기장의 힐력을 통하여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분전환의 장소가 되고 있다.

실내체육관은 단지 운동만을 하는 곳이 아니다. 스포츠 문화를 즐기는 문화시설이다. 우리는 문화시설로서의 체육관을 설계하였다.

계획부지는 주변 경인고속국도와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여 진입광장을 남동쪽에 배치하였다. 대지의 동측에는 근린공원이 조성되었으며 지하철 7호선 역사신설에 따른 주출입 동선을 고려하였으며, 차량동선은 이면도로를 통해 대지북쪽으로 진입하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삼산지구의 주 가로축에 위치하는 곳에 스포츠센터(생활체육시설)와 연계된 선큰광장 계획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스포츠센터(생활체육시설)와 소극장, 컨벤션, 경기장시설로 기능을 분리하면서 각 기능별로 진입구도 별도로 두어 진입동선을 분리하였다.

삼산월드체육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관으로 지하에는 스포츠센터(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다목적체육관), 1층에는 광장과 인접한 소극장, 컨벤션을 두어 다양한 공연과 세미나 및 예식 등 문화활동 중심공

간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1층에는 경기장 주변으로 선수대 기실과 경기운영시설 등이 배치되고, 2층에는 콘코스와 각종 부대시설이 분산 배치되며 콘코스를 전면 커튼월로 계획하여 열린공간으로 계획하였다.

특히 진입광장 경사로를 통해 진입되는 콘코스를 2층에 계획하여 이용자들이 위아래로 나뉘어서 관람석으로 이동할 수 있어 혼잡과 비상 시의 피난에 대비하였으며, 3층에는 VIP를 위한 스카이박스와 레스토랑을 특화된 공간으로 계획하여 경기가 없을 때에도 주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 세 기능은 명확한 동선의 분리로 유기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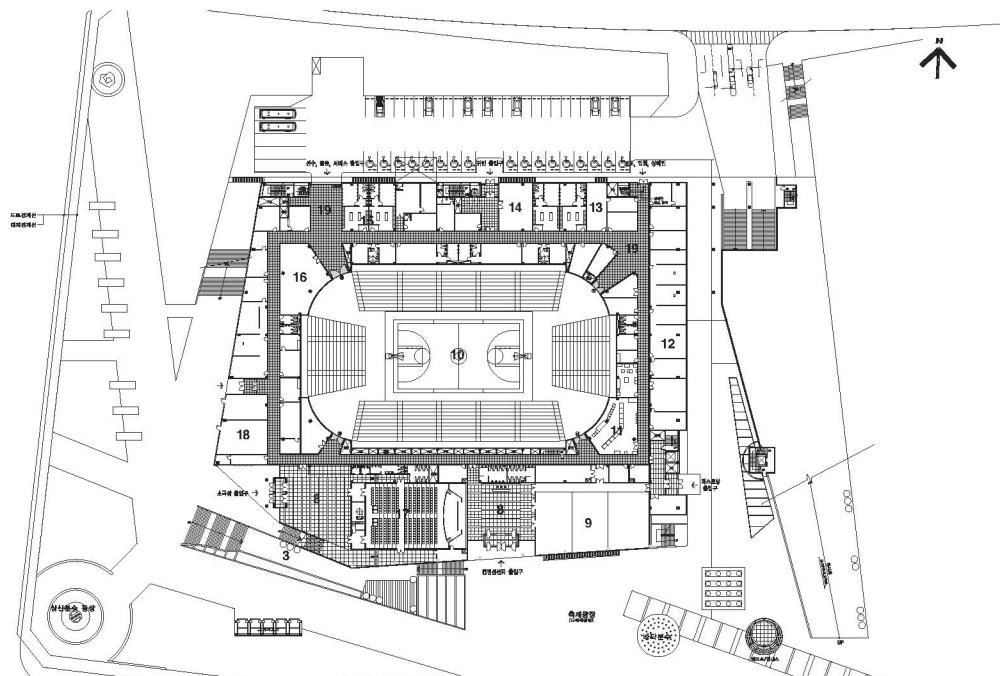
삼산월드체육관의 이미지는 미래지향적이고 도시 속 근린공원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 인천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비상하는 이미지로 표현, 랜드마크적인 조형연출을 계획하였고, 외부마감은 하이테크한 소재를 사용하여 미래지향적 이미지로 표현하며 투명한 커튼월을 사용하여 내·외부공간의 개방감을 유도, 계획하였다.

건물형태는 동측으로 들여 올려진 경사지붕으로 계획하여 인천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 열려진 공간으로 읽혀지기를 바라며, 인천 관문에 위치한 대지의 특성에 맞게 강한 상징성을 형태에 부여하여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체육관이 되도록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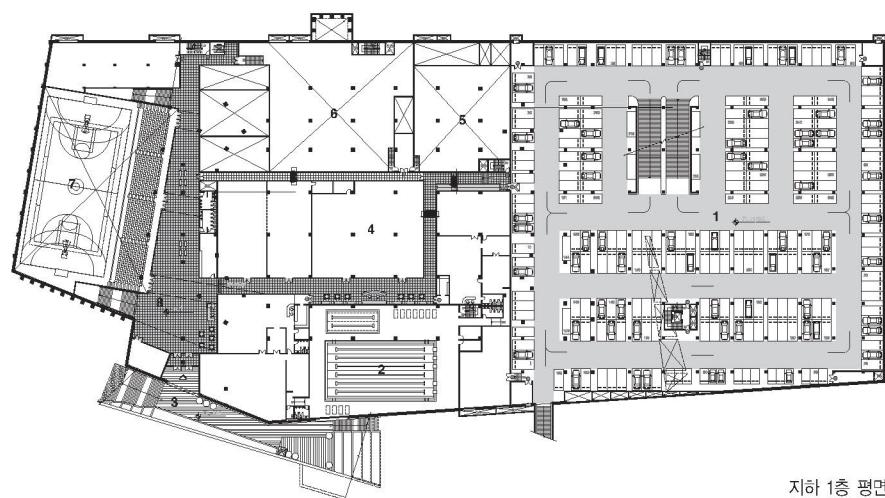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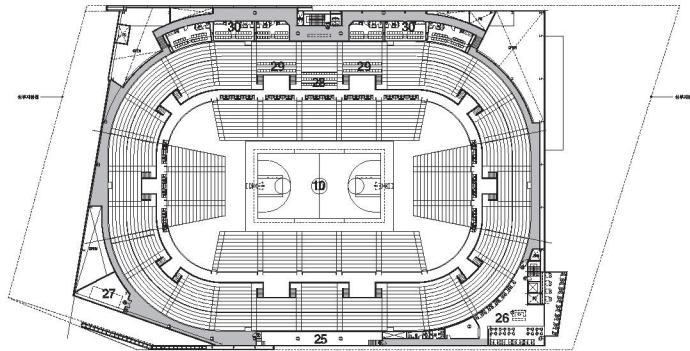
- 01\_ 주차장
- 02\_ 수영장
- 03\_ 선릉가든
- 04\_ 헬스장
- 05\_ 전기실
- 06\_ 기계실
- 07\_ 보조경기장
- 08\_ 로비
- 09\_ 컨벤션센터
- 10\_ 주경기장
- 11\_ 텐제센터
- 12\_ 경기운영실
- 13\_ 기자실
- 14\_ 귀빈실
- 15\_ 선수실
- 16\_ 용기구창고
- 17\_ 소극장
- 18\_ 근린생활시설
- 19\_ 출입구
- 20\_ 폰코스
- 21\_ 매점
- 22\_ 안내
- 23\_ 진입광장
- 24\_ 휴게공간
- 25\_ 조정실
- 26\_ 레스토랑
- 27\_ 공조실
- 28\_ 본부석
- 29\_ 기자석
- 30\_ 스카이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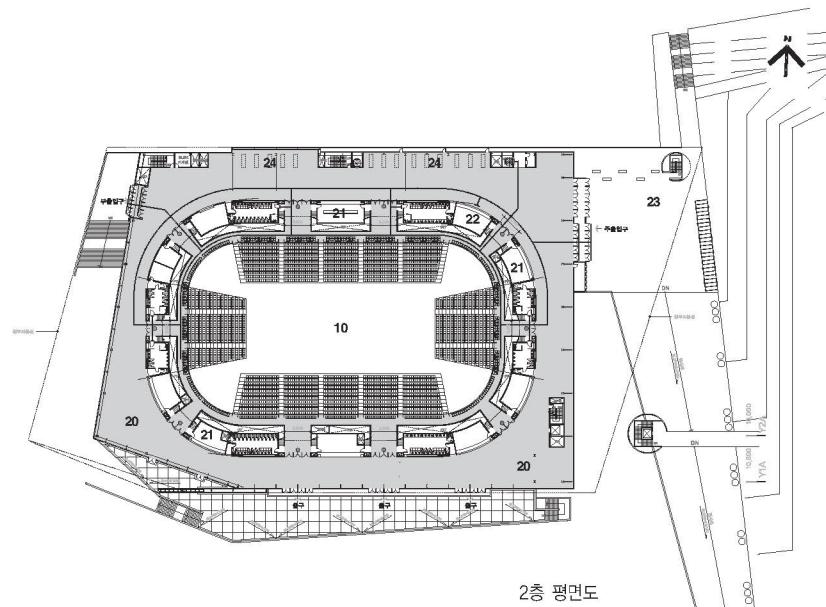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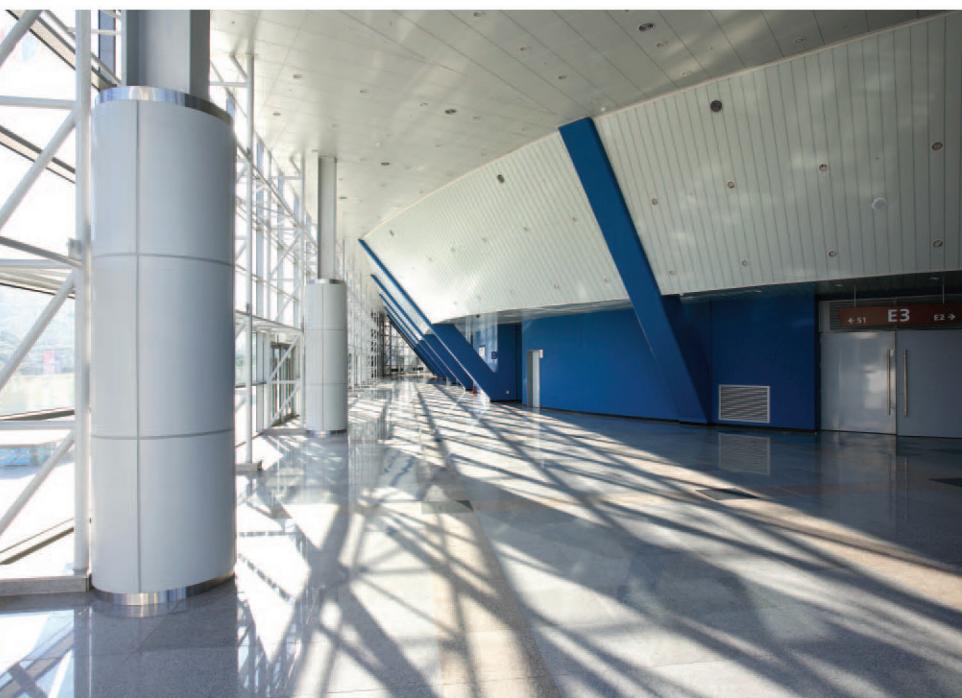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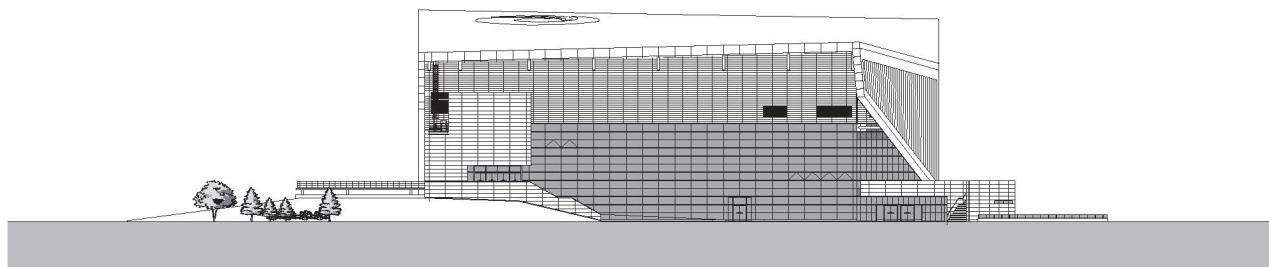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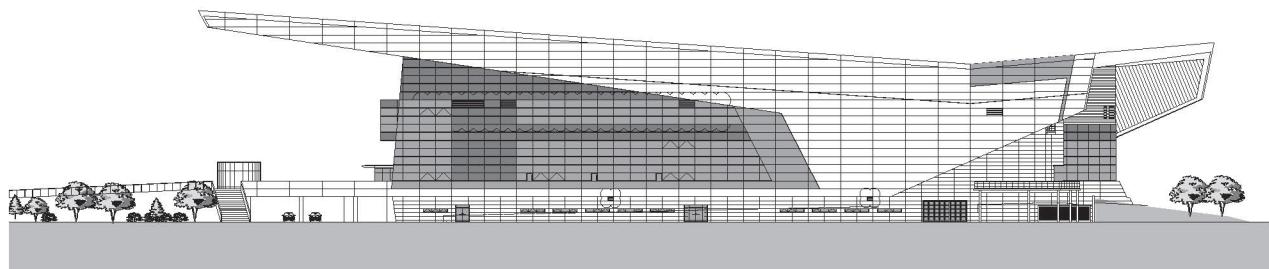


1. 인천 상산시립체육관 야경
2. 인천 상산시립체육관 야경
3. 존코스
4. 인천 상산월드체육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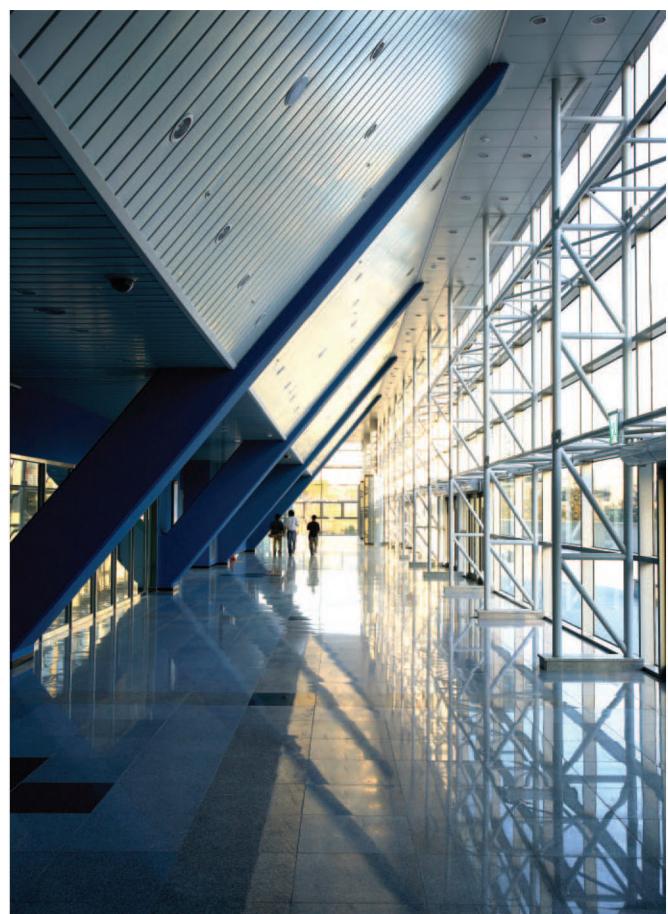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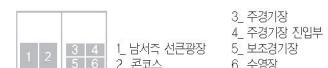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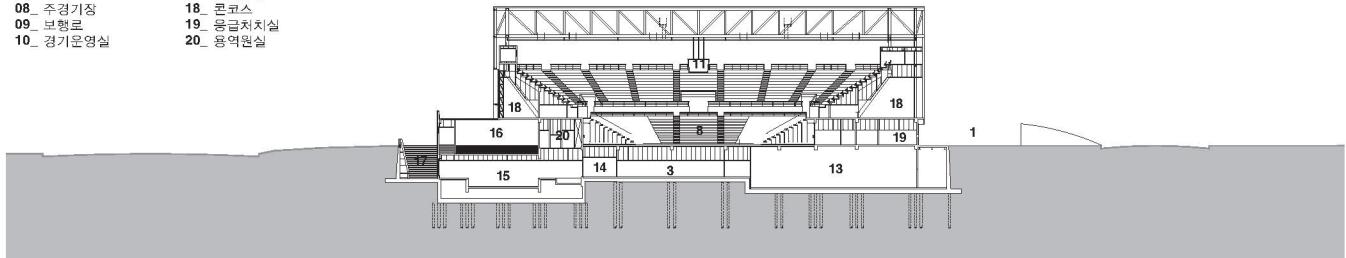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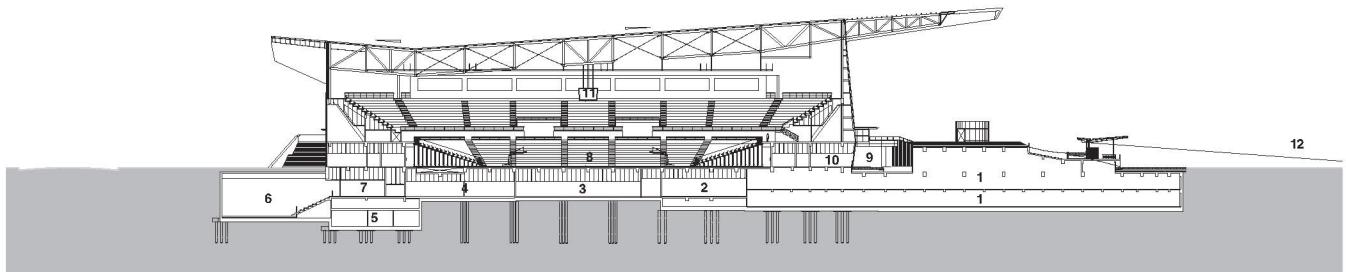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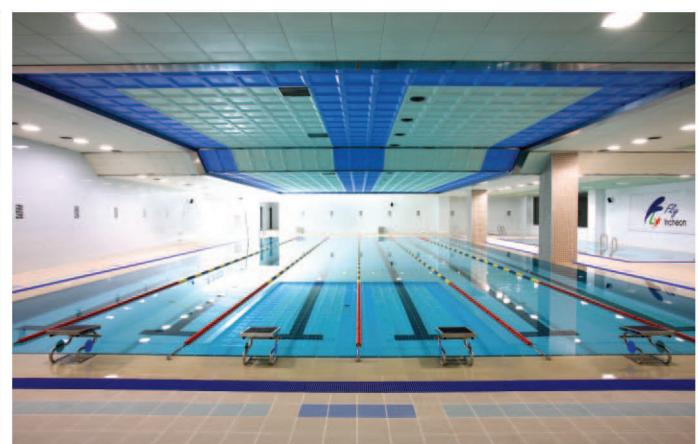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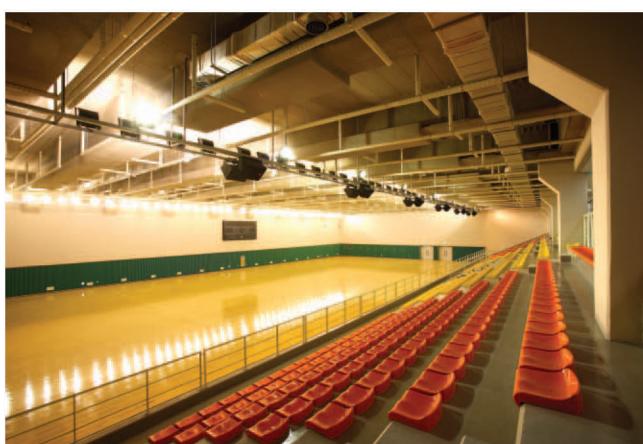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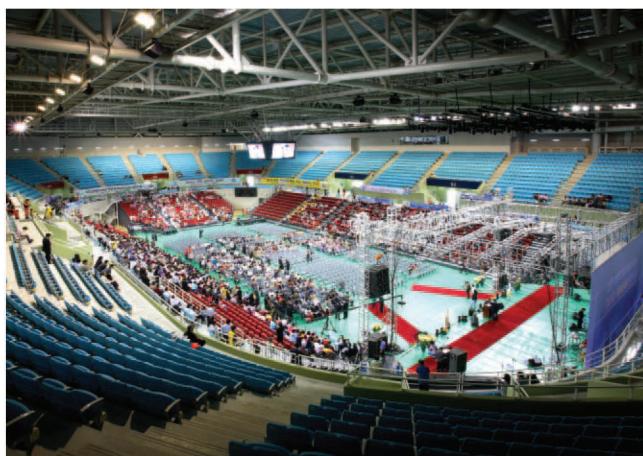
- 01\_주차장
- 02\_사우나
- 03\_헬스장
- 04\_에어로빅
- 05\_정화조
- 06\_보조경기장
- 07\_로비
- 08\_주경기장
- 09\_보행로
- 10\_경기운영실
- 11\_전광판
- 12\_축구장
- 13\_기체실
- 14\_안내
- 15\_수영장
- 16\_스극장
- 17\_선관광장
- 18\_클로스
- 19\_등급치치실
- 20\_용역원실



종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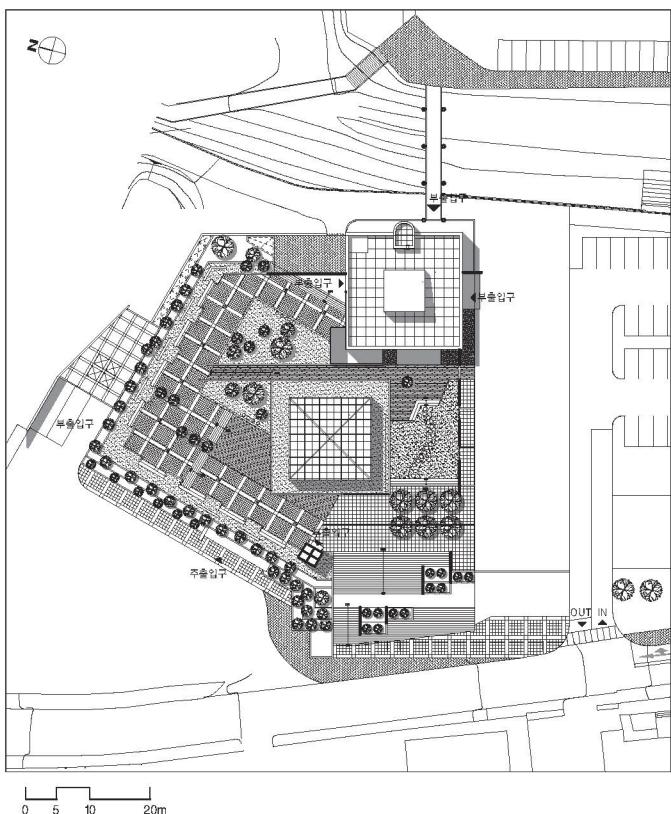


## 서울 위생병원 추모관

Seoul Adventist Hospital Memorial Hall

## ● 배치도

## ● 건축개요



|       |                         |
|-------|-------------------------|
| 대지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6-2외 7필지 |
|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경관지구            |
| 주요용도  | 의료시설                    |
| 대지면적  | 33,799.14m <sup>2</sup> |
| 건축면적  | 747.33m <sup>2</sup>    |
| 연면적   | 6,411.07m <sup>2</sup>  |
| 건폐율   | 2.21%                   |
| 용적률   | 3.01%                   |
| 규모    | 지하 2층, 지상 3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 내부마감  | 석고보드, MDF, 아트월          |
| 외부마감  | 화강석, 컬러복층유리             |
| 구조설계  | 세원구조                    |
| 설비설계  | 완설비                     |
| 전기설계  | 석운인곡                    |
| 시공사   | (주)의명건설                 |
| 설계기간  | 2006. 01 ~ 2007. 06     |
| 공사기간  | 2006. 03 ~ 2007. 06     |



Location 6-2, Hwigyeong-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Site area 33,799.14m<sup>2</sup>  
 Bldg area 747.33m<sup>2</sup>  
 Gross floor area 6,411.07m<sup>2</sup>  
 Bldg coverage ratio 2.21%  
 Gross floor ratio 3.01%  
 Structure R.C  
 Bldg. Scale B2, F3



이승에서의 헤어짐을 슬퍼하기보다는 천국으로 새로운 시작의 전야제를 멋지게 공연할수 있는 장소의 건립이라는 생각에서 접근한 프로젝트!

서울 종합위생병원, 삼육보건대학, 삼육 어학원, 위생치과병원, 교회, 기타 여러 시설군 등이 단지를 구성하는 있는 진입부에 영안실 건립이라는 주변의 걱정스런 시선에서 시작하여 단지 내의 만남의 커뮤니티 공간 및 옥외 휴게 공간으로서 새로운 명소가 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지의 6m 고저차를 이용한 단면 계획으로 지하 1층으로 추모관의 진입을 유도하여 엄숙한 실내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는 추모 공간으로, 지상 1층은 옥외광장과 만남의 공간 등을 형성, 병원 단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휴게·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상 2층·지상 3층은 편의시설, 게스트 룸, 은행 등을 형성하여 영안실의 분위기보다는 공

원 내 휴게소,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건물의 중앙에 Top Light를 설치하여 지하 1층, 지하 2층에서도 자연광을 이용한 채광이 가능케 하였고 벽천, 소공원, 에스컬레이터, 전망 엘리베이터 등을 실내에 설치하여 이용자 등의 편리성 및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였다.

단지 내 많은 불규칙적인 건물군에 정형화되고 규칙적인 형태의 배치 및 매스 계획으로 새로운 질서를 유도하는 중심적 역할뿐 아니라 단지 내의 다른 시설군들의 연결 및 중심적 휴게공간의 역할을 담당하여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는 단지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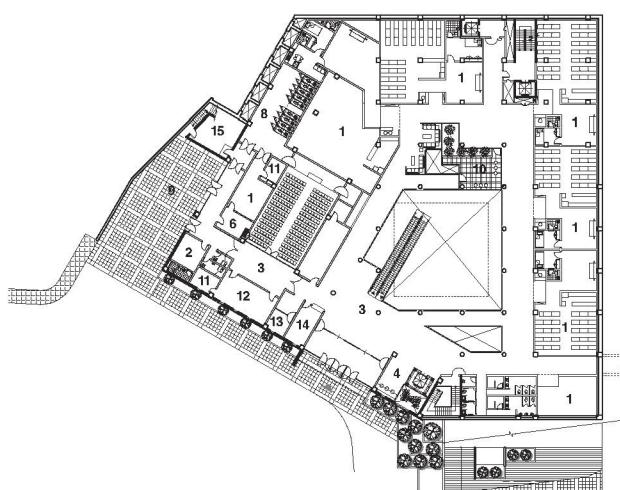
시설뿐만 아니라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에서 최근 장례 문화의 변화에 따라 건립되고 있는 영안실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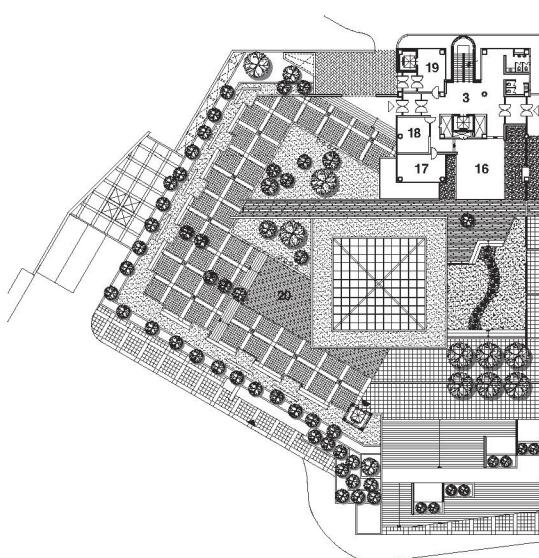
1 지상층 옥외 전경  
 2 1층 친목개단  
 3 1층 후면정원  
 4 1층 휴게공간

- |            |           |           |          |          |
|------------|-----------|-----------|----------|----------|
| 01_ 영인실    | 06_ 창관실   | 11_ 창고    | 16_ 라운지  | 21_ 게스트룸 |
| 02_ 사무실    | 07_ 입관실   | 12_ 전시판매실 | 17_ 놀이방  | 22_ 옥외테크 |
| 03_ 층      | 08_ 인치실   | 13_ 상담실   | 18_ 재단실  | 23_ 편의점  |
| 04_ 인터넷검색실 | 09_ 옥외행사장 | 14_ 매점    | 19_ 전설   | 24_ 은행   |
| 05_ 행사무    | 10_ 옥외정원  | 15_ 방재실   | 20_ 공개공지 | 25_ 베이커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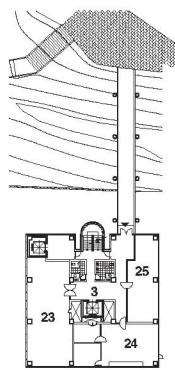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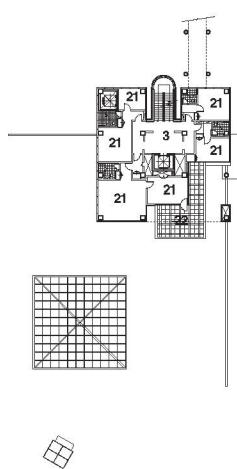
0 5 10 20m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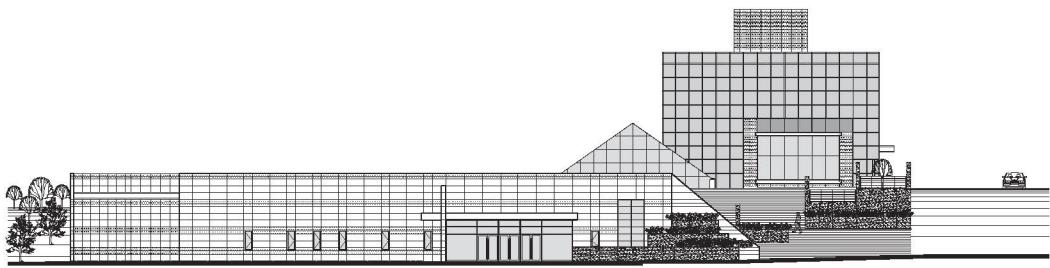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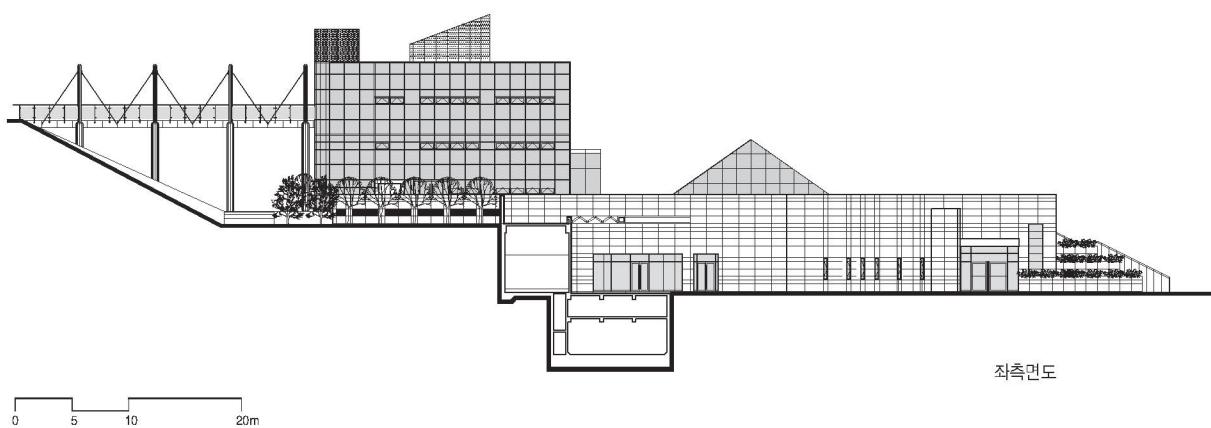


2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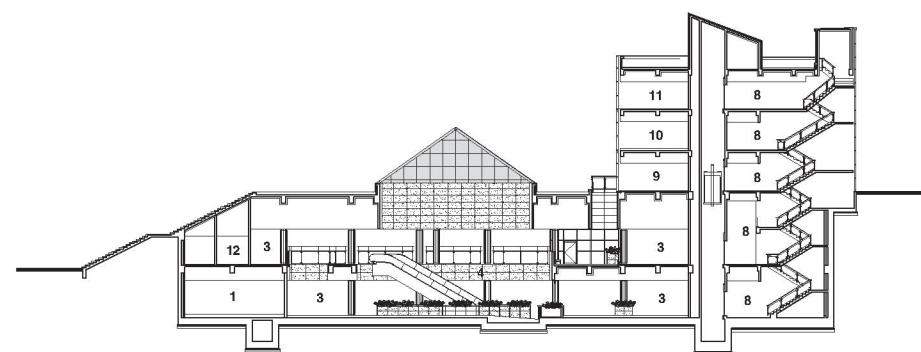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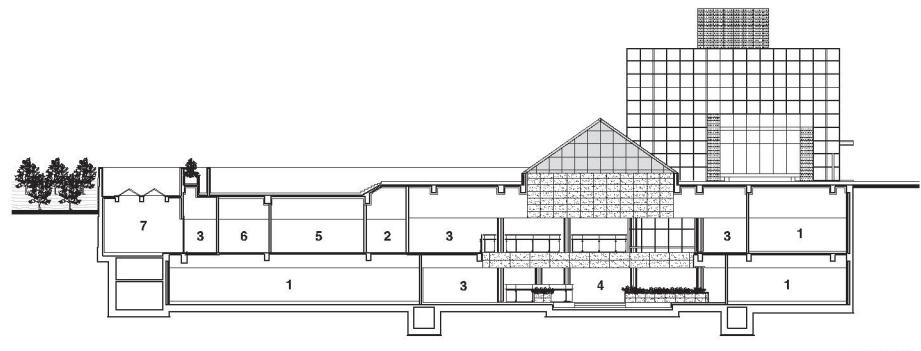
좌측면도



- 1. 실내 아트리움 전경
- 2. 실내 벽면
- 3. 1층 유품전시장
- 4. 옥외 유품공간
- 5. 1층 유품광장



- 01\_ 영안실
- 02\_ 사무실
- 03\_ 복도
- 04\_ 아드리움
- 05\_ 행사장
- 06\_ 입관실
- 07\_ 우외행사장
- 08\_ 출입
- 09\_ 블이방
- 10\_ 게스트룸
- 11\_ 편의점
- 12\_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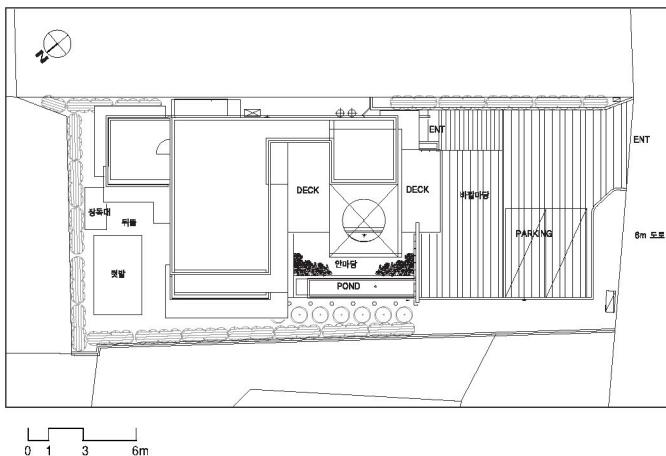


## 회원작품 | Works

이용우 / 정회원, 칸 · 도시 건축사사무소  
by Lee, Yong-woo, KIRA

## 학동주택 Hak-dong House

## ● 배치도



## ● 건축개요

|       |   |
|-------|---|
| 대지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123-23                      |
| 지역지구  | 관리지역, 문화재 영향검토구역                            |
| 대지면적  | 430m <sup>2</sup>                           |
| 건축면적  | 99.63m <sup>2</sup>                         |
| 연면적   | 158.76m <sup>2</sup>                        |
| 건폐율   | 23.17%                                      |
| 용적률   | 36.92%                                      |
| 규모    | 지상 2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SISMO)                             |
| 내부마감  | 석고보드위 실크벽지                                  |
| 외부마감  | SISMO 노출콘크리트                                |
| 설계담당  | 박경숙   |
| 설계    | 건축 · 구조 · 설비 · 전기 · 인테리어<br>(칸 · 도시 건축사사무소) |
| 시공사   | 이지디자인                                       |
| 설계기간  | 2005. 04 ~ 2005. 08                         |
| 공사기간  | 2005. 09 ~ 2006. 03                         |



Location 123-23, Hakdong-ri, Chowol-eup, Gangju-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430m<sup>2</sup>  
Bldg area 99.63m<sup>2</sup>  
Gross floor area 158.76m<sup>2</sup>  
Bldg coverage ratio 23.17%  
Gross floor ratio 36.92%  
Structure R.C  
Bldg. Scale F2

1\_학동주택 모형      2\_학동주택 전경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찾아왔다. 어머님 모시고 아이들과 전원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적은 예산이지만 그 꿈이 좋아서 선뜻 동의하고 현장을 찾았다. 곤지암 IC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곳 학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산 아래의 무질서한 공장지대를 지나 산기슭에 아담하게 펼쳐진 전형적인 전원주택지로 개발된 곳이다. 축대가 쌓여져 남북으로 좁고 긴 대지에 동으로는 낮은 산 구릉이 있고 남쪽과 서쪽이 트여있는 전망 좋은 곳이다.

시골이 고향인 젊은 건축주는 어릴 적 뛰놀던 고향집이 생각났으리라. 우리네 시골집은 그 자체가 전원주택이었다. 마당이 있고 낮은 토담너머로 앞동산이 보이고 담장 옆으로 줄줄 시냇물이 흐르던… 더구나 노모는 얼마 전 까지 시골에 살던 분이시란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미 들어서 있는 몇 채의 주택들… 도시를 벗어나 전원지역에 있다고 모두 전원주택이라 할 수 있을까? 도시의 주택이 장소만 바꾸어 서있다고 다 전원주택은 아닐 터. 그래서 이곳에서 만은 전원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에게 고향집을 선사하자. 노모에게는 떠나온 시골집처럼 편안

한 집을 지어 드리자. 텇마루에 앉아 마실 나온 이웃과 정답을 나누고 앞마당 작은 연못엔 수련을 띠우고, 뒤뜰에서는 고추랑 오이랑 키우고, 한 가족 둘러앉아 먼 산 노을 바라보며 저녁상 차리는 그런 집을 만들자. 새집을 옛 집처럼 손때 묻은 모습으로… 해서 시공의 용이성과 건축비를 감안해 노출콘크리트 SISMO 공법을 제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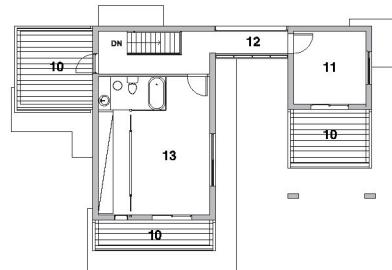
그리고 주변의 풍광을 충분히 즐길수 있도록 Picture Window를 적절히 배치하고 특히 거실과 노모방에는 한옥의 개념을 도입했다. 즉 거실은 병산서원의 만대루와 같이 투시가 되도록 하였고, 반가의 사랑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할머니 방은 안마당을 향하여 텇마루를 설치하고 오랫동안 생활해 왔던 옛집의 분위기를 이곳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배려 하였다. 안채와 바깥채를 연결하는 복도는 이집의 중심공간이다. 이 복도는 목재 데크에 접해 있어 자연스레 외부의 자연과 교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뒷마당에는 텇밭과 장독대를 배치하고 별당처럼 작은 방을 만들어 아이들의 놀이방으로 쓰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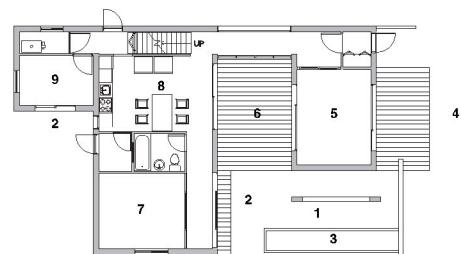
이집은 한옥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현대화하여 전원주택으로의 활용가능성을 실험한 작품이다. ■



- |          |           |         |
|----------|-----------|---------|
| 01_ 암마당  | 06_ 데크    | 11_ 서재  |
| 02_ 뒷마루  | 07_ 할머니방  | 12_ 복도  |
| 03_ 연못   | 08_ 주방·식당 | 13_ 주침실 |
| 04_ 바깥마당 | 09_ 둘이방   |         |
| 05_ 거실   | 10_ 테라스   |         |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0 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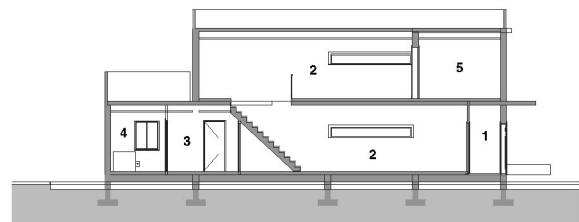


01\_ 현관  
02\_ 복도  
03\_ 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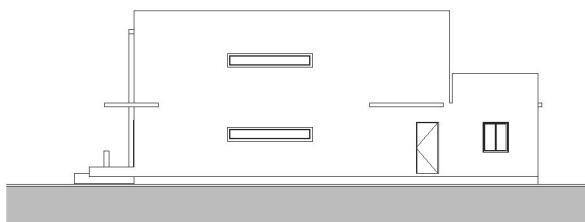
04\_ 보일러실  
05\_ 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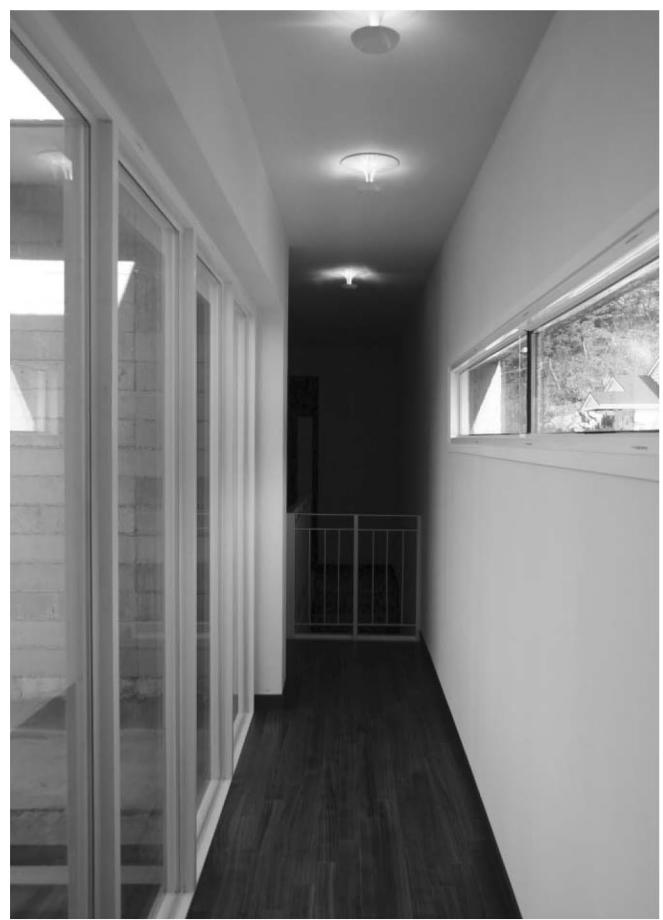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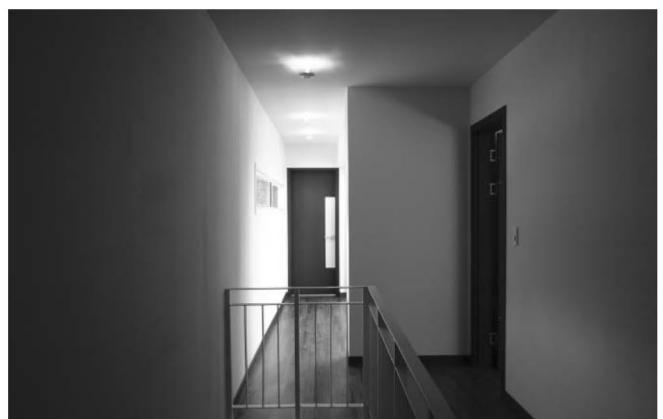
남측입면도



단면도



북측입면도



## 설계경기 | Competition

### 경정훈련원

Motorboat Racing training center

당선작 / 정영균 정희원, 금두연  
(주. 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                                       |
|--------------|---------------------------------------|
| <b>대지위치</b>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남측유수지 일원          |
| <b>지역지구</b>  |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
| <b>주요용도</b>  | 교육연구시설                                |
| <b>대지면적</b>  | 99,000m <sup>2</sup>                  |
| <b>건축면적</b>  | 9,834.00m <sup>2</sup>                |
| <b>연 면 적</b> | 13,726.00m <sup>2</sup>               |
| <b>건 폐 율</b> | 9.93%                                 |
| <b>용 적 률</b> | 13.83%                                |
| <b>규 모</b>   | 지상 3층                                 |
| <b>구 조</b>   | RC + SC                               |
| <b>발 주 처</b> | 국민체육진흥공단                              |
| <b>기계설비</b>  | 지막                                    |
| <b>전기설비</b>  | 대일 이엔씨                                |
| <b>구 조</b>   | 전우 apn                                |
| <b>토 목</b>   | 아남 컨설팅트                               |
| <b>설계담당</b>  | 김상, 이인수, 류행수, 윤택용, 정용주, 장우준, 김해진, 이충미 |

기존 미사리에 운영되고 있는 경정 경기장 및 훈련원은 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사용되던, 조정경기장의 기존 시설들을 활용해 사용되어졌다. 이에 훈련 및 경기 공간의 제약과 보안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영종도에 새로이 건립되는 경정훈련원은 상호 유기적이고 합리적인 동선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문적인 경정인의 양성에 주력하며 삼면이 바다라는 좋은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낙후되어있던 우리나라의 해양 수상레저스포츠를 활성화시켜 21세기 해양스포츠를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 계획개념

영종도에 건립되는 경정훈련원은 경정 선수 및 심판의 훈련을 담당하게 될 훈련원과 향후 관람장과 연계된 가족문화공간으로 탄생될 것이다.

불굴의 프로정신과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춘 인재 육성과 새로운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을 선도할 문화공간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기본 명제를 바탕으로 훈련원 각 기능을 고려한 공간계획과 함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갖으며 주변환경과 어우러져 균형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 건축물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정훈련원을 위한 3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 비상하는 경정

새로운 경정훈련원은 다양한 시각적 기법들을 적용하여 지역의 모티브와 장소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공항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며 첨단의 분위기와 조화되는 외장마감을 계획하여 주변의 관광시설 등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 지향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계획한다.

### 미래의 성장변화에 대응하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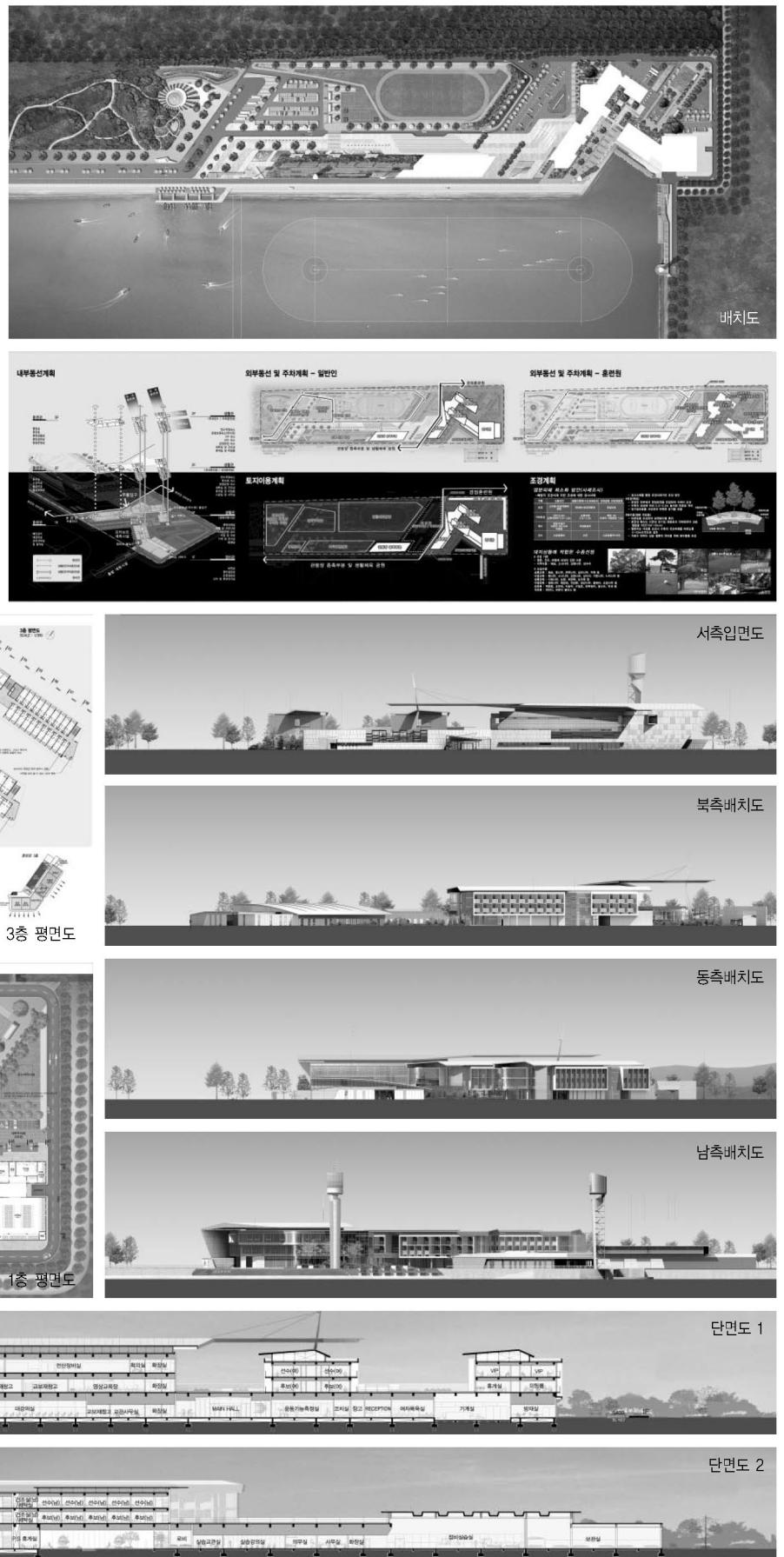
영종도에 건립되는 경정훈련원은 계획 단계에서 장래 수요와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현대인의 급변하는 라



이프스타일 속에서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공원과 항후 경정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람석(1,500여석) 등 항후 시설의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의 증축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증축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을 수립 반영한다.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간구현

요구되는 각 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평조닝 및 수직 조닝을 도출하고 훈련생 및 선수의 생활패턴에 적합한 환경을 제시함으로서 경정훈련 원만의 아이덴티티를 구현한다.



## 경정훈련원

Motorboat Racing Training Center

우수작 / 김종웅 정희원

(주) 성일종합건축사 사무소)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남측  
유수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52m), 공항,  
경제자유구역

대지면적 99,000m<sup>2</sup>

건축면적 6,200.01m<sup>2</sup>

연 면 적 13,736.59m<sup>2</sup>

건 폐 율 6.26%

용 적 률 13.88%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규 모 지상 7층

주차개요 269대

조경개요 53,687.70m<sup>2</sup>

발 주 처 고양시

설계담당 성일건축\_(박상봉, 이언종, 조만익, 박기홍)  
제이플러스\_(김세은, 이경호, 이현석, 정재욱,  
김종원, 임정택, 정화택, 장경민)  
OTL\_(김해식)

### “물길따라 바람일고”

그들은 물위의 양탄자를 타고 물위를 난다.  
바람을 일으키며 바람을 향해 난다.

· 바다 : 자연

· 땅 만들기 : 인간은 대지를 만든다.

· 질서 그리기 : 인공대지는 성장을 고려한  
계획적인 질서를 갖는다.

· 성격 나누기 : 인간은 필요에 따라 장소성  
을 부여한다.

· 바람 이루기 : 인공언덕(Blue Carpets)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안에서 인간들의 바람  
이 이루어진다.

기존 미사리에 운영되고 있는 경정경기장은  
우리 '성일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를  
했던 경기장이다.

그리기에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부족했던  
점이 무었이었고,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를 분석할 수 있었다.

현재는 경정훈련원의(선수들의 훈련이 주 목

적) 목적이 더 크지만 향후에는 미사리경정장을 이리로 옮겨올 계획이 이미 새워져 있으므로 향후 경정훈련원이 경정장 및 테마공원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획하였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간구현을 위하여 요구되는 각 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평조닝 및 수직 조닝을 도출하고, 경정훈련원 내 동선이 향후 경정장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각 동의 배치를 계획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영종도에 건립되는 경정훈련원은 경정선수 및 심판의 훈련을 담당하게 될 훈련원과 향후에 관람장과 연계된 문화의 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곳이다.

### “바람이 이루어지는 곳”

• 바람 · 설레임 – wind · wish  
언덕에 올라 춤추는 물결위로 귓전을 스치는  
바람소리를 듣는다. 이곳에서 나의 모든 바



람이 이루어지듯…

• 성장 – 가변과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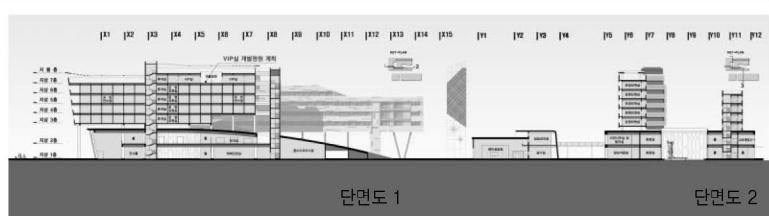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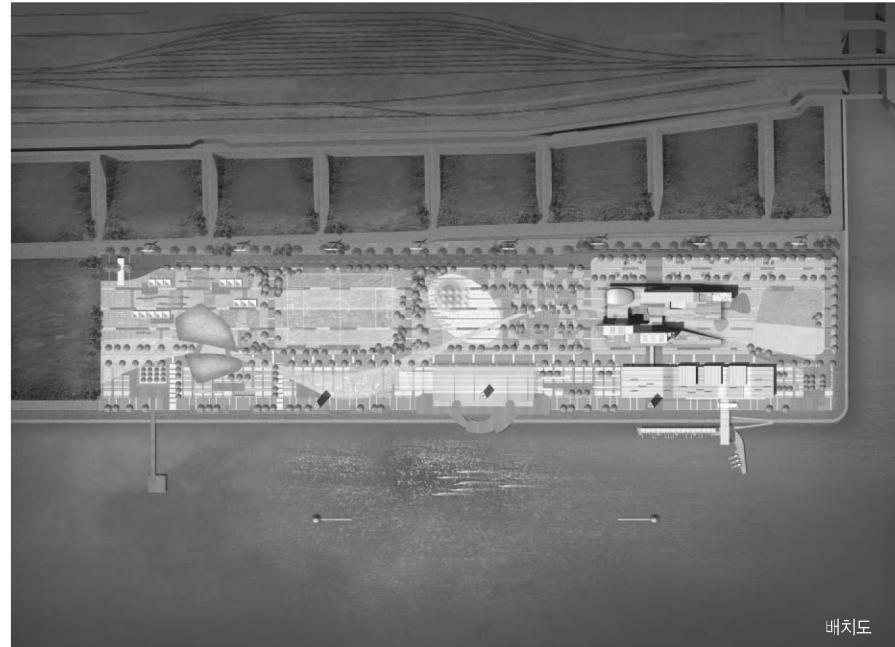
사람들이 모두 모여 어우러질 때 이곳은  
한층 커져가며 한 켜 한 켜 성장한다.

• 물결 · 흐름

바람 따라 물결이 일고 나의 배가 나아가는  
곳에 흐름이 생긴다.

위의 3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새로운 경정훈련원은 공항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첨단의 분위기와 조화되는 디자  
인, 주변의 관광시설 등과 조화를 이루는 미  
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한다.



## 경정훈련원

Motorboat Racing Training Center

가 작 / 남호철 정희원 · 김태명  
(주. 동우E&C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남측유수지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 공항, 경제자유  
구역

주요용도 주요용도교육 · 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99,000.00m<sup>2</sup>

건축면적 9,900.82m<sup>2</sup>

연 면 적 13,398.24m<sup>2</sup>

건 폐 율 10.00%

용 적 률 13.53%

규 모 훈련관(지상 3층), 정비관(지상 2층),  
생활관(지상 4층)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요마감 THK24 로이 복층유리,  
알루미늄복합파널(산화처리), 점토벽돌

협력업체 비쥬얼리스트(CG), 기술사무소 이수(조경),  
IPX(보고서)

발 주 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설계담당 심재한, 최준섭, 김형수, 김민정, 유선아,  
최문용, 박유정

## DYNAMIC WAVE

바다가 육지가 되었다.

바다와 가장 가까운 땅이 되었다.

바다의 고요한 기억을 담고 있는 이땅에서  
경정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함성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 경정 훈련원의 하루… (설계 시나리오)

#### am 06:00

기상소리가 들리고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기숙사를 나온다. Forest training course로 진입하여 오늘 훈련을 구상한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힘찬 훈련을 기대한다.

#### am 08:00

아침식사를 마치고 동기들과 어울려 View  
graden에서 휴식시간을 가진다.

#### am 09:00

오전 수업이 시작되었다. 실내강의를 듣고 오후에 있을 수상훈련에 대비한 강의가 열린 교실에서 있었다.

#### am 12:00

점심을 먹고 난 후 원형광장에 모여 팀원들과 커피를 마시며, 어제 다른팀에 비해 저조했던 성적에 대해 토론하고 작전을 새롭게 구상해 본다.

#### pm 13:00

오후는 해상훈련이다. 터지점에서 바라보니 유선장에는 훈련을 관람하는 방문객들로 북적인다.

#### pm 17:00

힘들었던 하루일과가 끝났다. 실내 체력단련실에서 체력강화 훈련을 마친 우리는 팀을 나눠 족구와 농구 시합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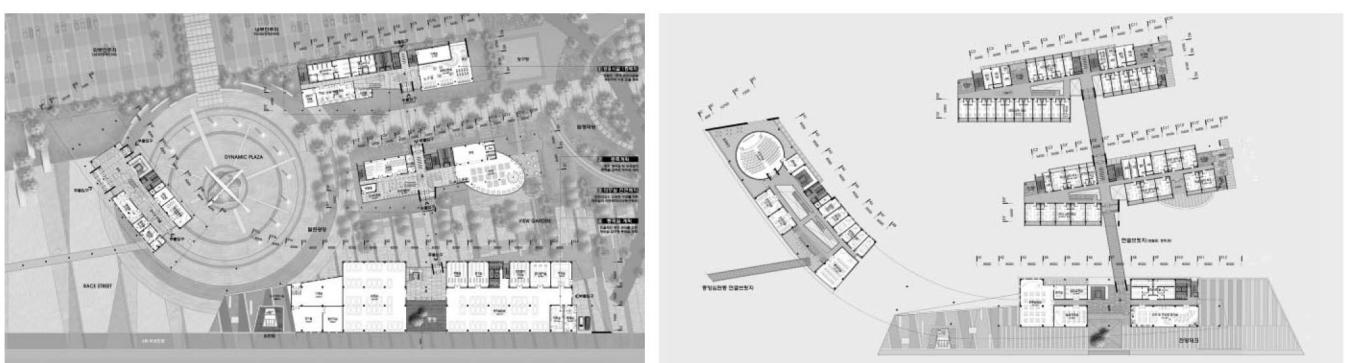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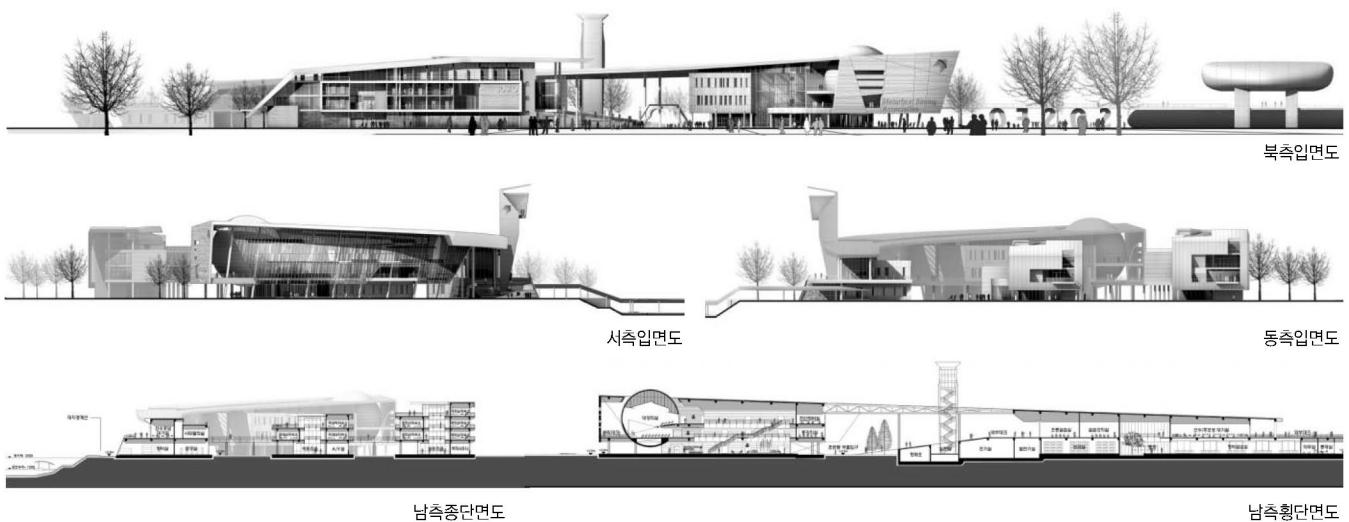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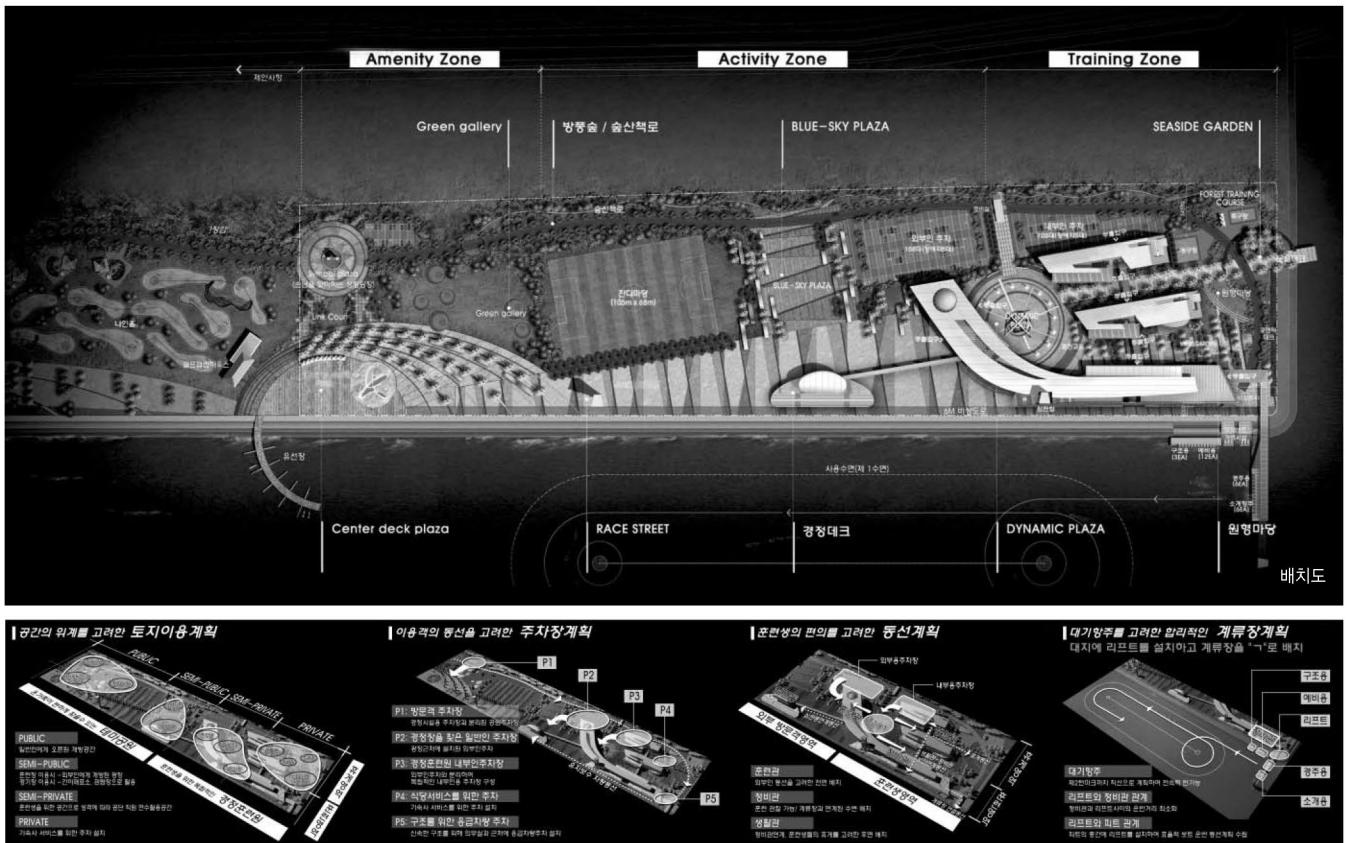
#### pm 18:00

사우나에서 피로를 풀고,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마친후 동료들과 함께 AV실과 휴게실에서 여가활동을 하였다.

#### pm 22:00

숙소로 돌아와 내일 훈련에 대비하여 잠을 청한다. 이 곳 훈련원에서의 기억들은 훗날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글:최준섭)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설계경기 | Competition

###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NACF ulju country office

당선작 / 이해성 정희원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영남)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640-44번지 일원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민관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판매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대지면적** 3,610.00m<sup>2</sup>

**연 면 적** 11,872.77m<sup>2</sup>

**건 폐 율** 59.97%

**용 적 률** 138.71%

**규 모** 지하 2층, 지상 4층

**발 주 처**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

**설계담당** 손대환, 임식규, 이철우, 최시훈, 배보라, 최은애

### 계획의 주안점

첫째,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미래를 주도하는 농협의 상징성, 인자성 부여 둘째, 최대 7m의 부지레벨차를 고려한 체계적인 동선계획으로 접근성(보행자, 차량) 확보 셋째, 판매시설과 금융시설의 위계성 및 독립성을 고려한 유기적인 공간배치를 중심으로 계획하였다.

### 동선계획

• 보행동선 – 최대 7m의 부지레벨차를 활용하여 지하 1층의 농협하나로마트(판매시설)와 지상 1층의 농협울주군지부(업무시설)의 다양한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수직동선(무빙워크)을 통해 판매시설, 금융업소와 지상주차장의 유기적인 공간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차량동선 – 대지의 전면 35m도로(문수로)에서 고객차량은 완화차선을 통해 진·출입하도록 배치하고, 물류차량, 직원차량은 후면 6m도로에서 진·출

입하도록 배치하여 고객과 관리동선을 분리토록 계획하였다.

### 평면계획

- 지하2층
  - 하나로마트의 물품하역 및 화물용 EV를 통한 매장내의 원활한 물품공급을 위한 물류창고 배치
  - 지상 2, 3, 4층의 고객주차장과 분리된 직원주차장 배치

- 지하1층
  - 부지레벨을 이용한 독립된 진출입구로 하나로마트의 독립적 위계설정
  - 물류창고와 물품하역을 후면도로에서 진입하도록 배치하여 고객차량동선과 관리차량동선을 분리

- 지상1층
  - 고객의 금융업무와 쇼핑을 non-stop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시설(금융업소, 울주군지부)을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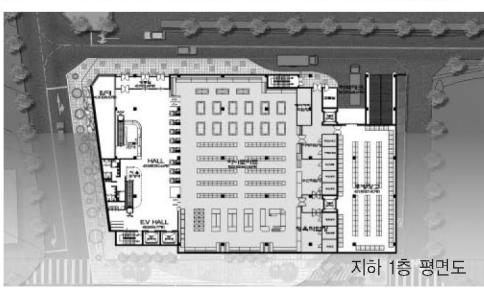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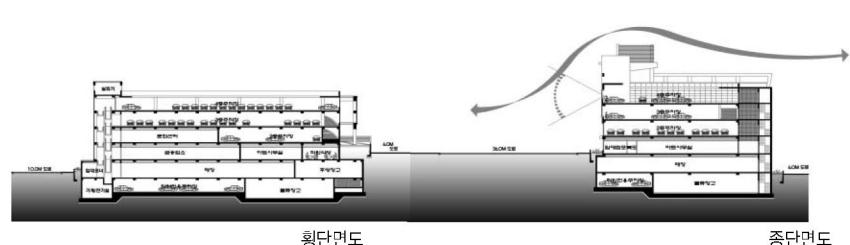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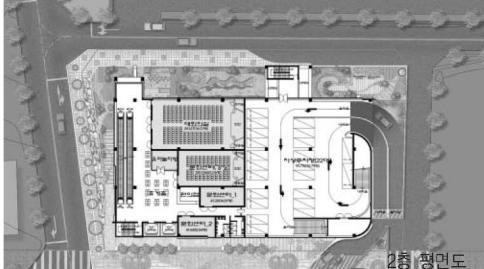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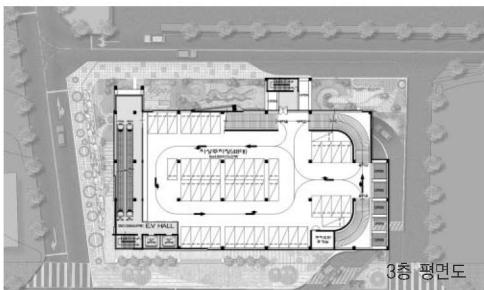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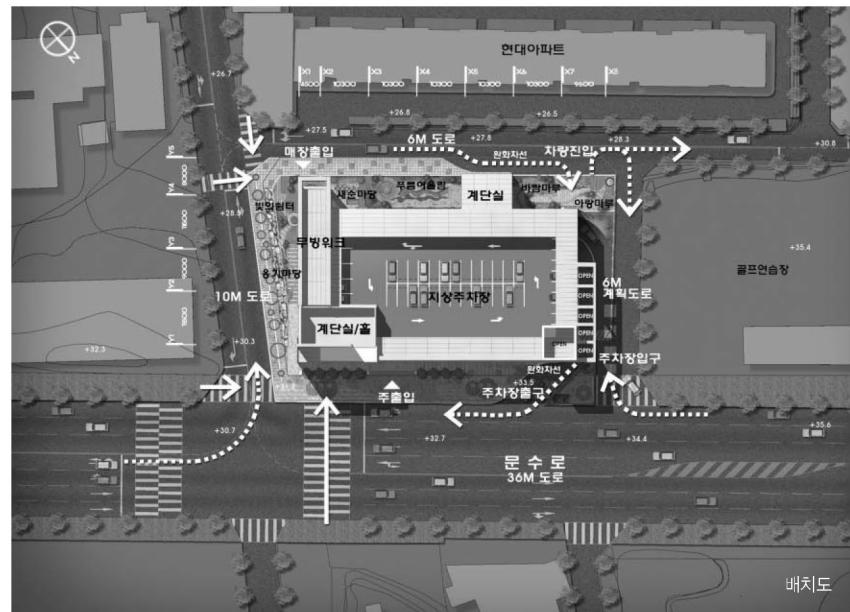


하고, 매장과 하나로마트 종합사무실의 체계적인 마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수직동선을 계획하여 고객동선과 관리동선을 분리하였다.

- 고객의 주된 수직동선(무빙워크)을 void 한 입면처리로 개방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으로 형성하였다.

#### • 지상2층

- 대회의실, 강당, 문화센터, 휴게공간을 배치하여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형성하고, 지상주차장과 마트, 금융업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하였다.



##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NACF Ulju country office

가작 / 우동일 정회원 (주. 우일 건축사사무소) + 박철현 정회원  
(주. 청담 건축사사무소) + 주. 암엔드이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640-44번지외 10  
필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주요용도 울주군 농협청사 및 마트

대지면적 3,300m<sup>2</sup>

건축면적 1,976.45m<sup>2</sup>

연 면 적 11,434.37m<sup>2</sup>

건 폐 율 59.89%

용 적 률 186.87%

규 모 지하 2층, 지상 4층

주차대수 141대 (장애인용 5대 포함)

조경개요 53,687.70m<sup>2</sup>

### 설계소묘

대지는 울산의 관문인 공업탑 축을 끈 대로 (35m)에 위치해 있다.

차량들이 빈번하고 가까이 울주군청과 더불어 주변에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대지이기도 하다.

농협건물의 상징성과 인자성을 살리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입면 디자인을 도입하여 디자인 해 보았으며, 보행자와 차량의 당해 건물로의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면부를 보행자 접근 위주로 하고 후면부에 주차진, 출입로를 배치하여 명확한 동선부리를 꽤하였다. 실질적으로 미관지구에 해당되어 전면부에서의 차량의 진출입은 불가하며 후면부만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다.

농협의 상징성과 더불어 실질적인 보행자 중심의 기능이 원활한 울주군 농협청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해 보았다.

### 배치계획

- 건물내로의 접근성을 최대화하고 주출입 구의 인지도를 높임
-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배치계획
- 대지의 레벨을 적극 활용하여 접근성 확보 및 합리적인 계획추구

### 입면계획

- 농협중앙회의 투명성을 강조할 수 있는 디자인
- 미래지향적이며 하이테크적인 이미지 연출(농협의 비전제시)
- 주변 일대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자인

###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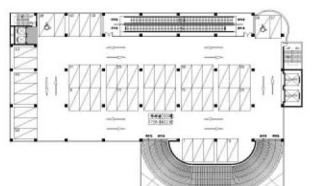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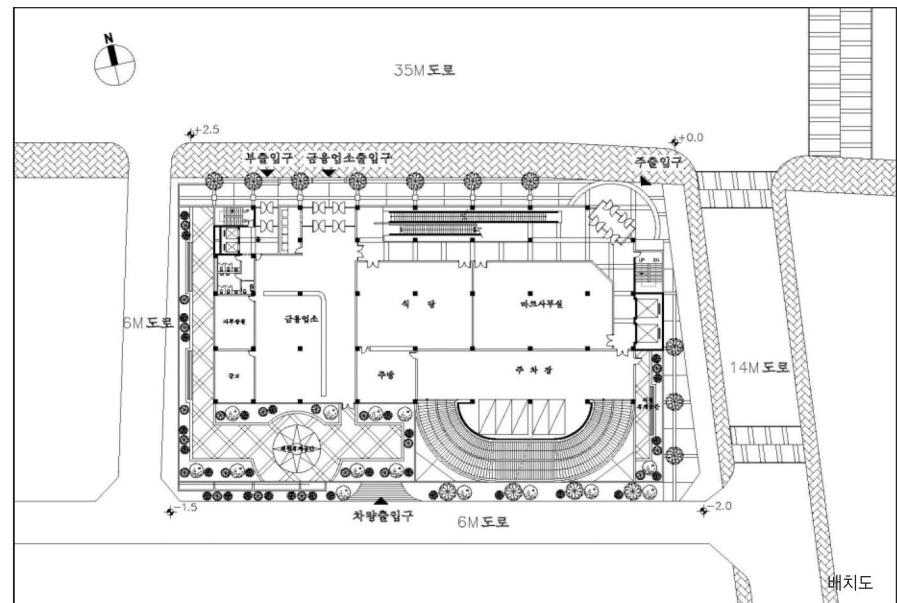
- 양쪽 주진입과 부진입에 대응하는 코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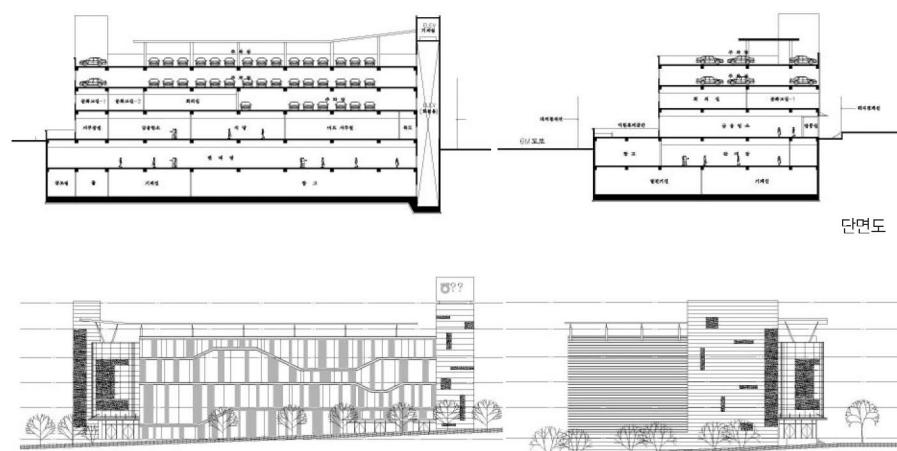
- 기존지형에 따른 계단식 단면조닝
- 각각의 도로폭(6m/35m)에 대응하는 단면형상

### 매스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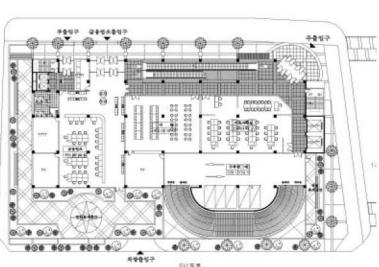
- 농협중앙회의 아이덴티티를 가질수 있는 매스구성
- 미래지향적이고 첨단기술적인 디자인 고려
- 차후 그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역할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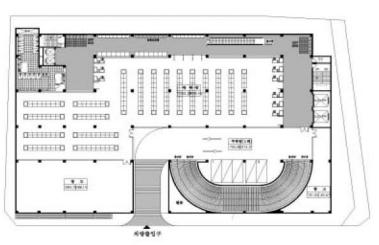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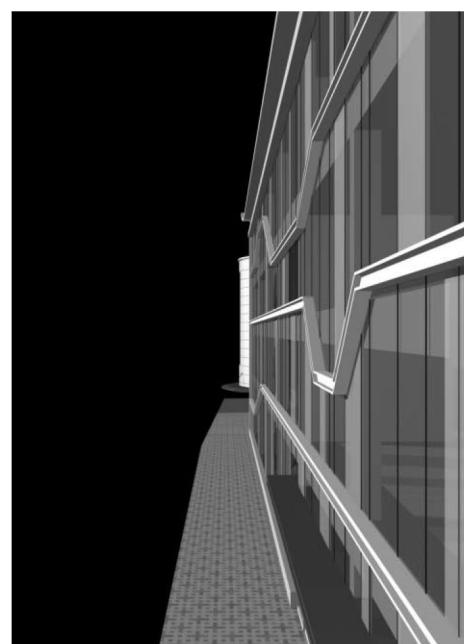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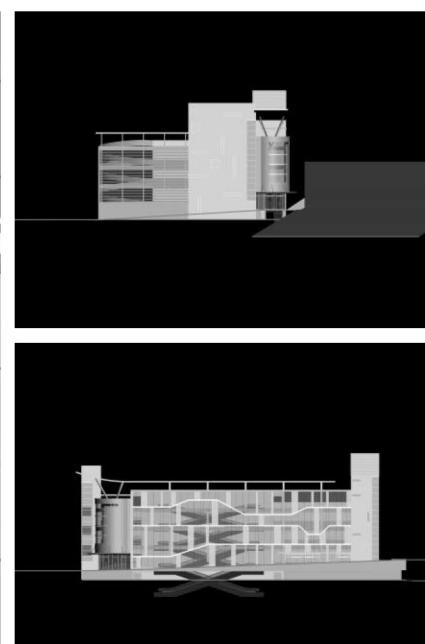
立面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김주형  
동명대학교 건축대학 건축공학과 조교수  
by Kim, Ju-hyeong

# 건축주 브리핑 – 관점의 중첩(2)

## Client Briefing - Perspectives Overlapping

### 목 차

#### 1. Who are clients?

건축주의 이해 : 건축주의 정의, 유형, 건축주의 당위적 행위, 국내 건축주 대상 만족도, 당위적 행위 중요성 인지 및 이의 수행 시 어려운 정도, 당위적 행위를 위한 정보취득 행동 조사 방법 및 분석 결과

#### 2. Ins and out of clients briefing

건축주 브리핑의 이해 : 건축주 입장에서의 프로젝트 성공, 건축주 브리핑의 유형, 건축주 브리핑의 절차 및 내용

#### 3. Today and tomorrow of clients briefing

건축주 브리핑의 현재와 미래 : 국내외 건축주 브리핑의 사례, 향후 건축주 브리핑 발전 방향

※ 김주형 교수는 한양대 학사와 석사를 졸업 후, 영국 레딩대(Univ. of Reading)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동명대학교 건축대학 건축공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1997 ~ 2000. (영) Advanced ConstructionTechnology 연구원
- 2002 ~ 현재. 동명대학교 교수
- 2006.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워크숍 분과위원
- 2006 ~ 현재. 한국교육평가원 교육시설 BTL 제안서 평가위원
- 2007 ~ 현재.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2007 ~ 현재. 한국건설관리학회 영남지회 총무이사
- 2007 ~ 현재. 동명대학교 건축공학과장
- 2007. 대한건축학회 논문상 수상

---

## 들어가는 말

---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그 어떤 명의도 병을 고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명의는 뛰어난 의료기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심리까지 파악해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치료과정 및 결과에 대해 환자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도 갖춘 의사일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명의라고 소문난 의사에게 진료 받을 기회를 어렵게 얻은 후 그들의 고압적인 태도 혹은 치료방법에 대한 독단적 결정에 실망한 경험이 한번 쯤 있을 것이다. 스튜디오의 문을 두드린 건축주에게 건축사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환자와 건축주 모두 자신의 상황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와 건축행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관계로 때로는 자신의 요구를 설명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과거의 경험 혹은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의사와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도로 상황을 전개할 수 있다고 본다.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상이한 관점들의 접점에서 때로는 환자나 건축주를 교육시키면서 때로는 그들의 내면 깊이 숨겨져 있는 요구를 표면화 시키면서 상황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의사나 건축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환자나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닐 수 있다.

건축주 및 건축사를 포함한 용역제공자의 관점이 중첩되는 부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건축주 브리핑이다. 건축 프로젝트의 초기단계는 ‘문제상황(problem situations)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시도’라고 요약될 수 있다. 문제상황은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우려(concerns), 관심(interests), 요구(requirements), 필요(needs) 및 제약(constraints) 등으로 파악될 수 있다<sup>1)</sup>. 브리핑(briefing)은 문제상황의 파악 및 해결 과정이라 이해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건축주 조직의 필요와 자원을 이해하고 이를 건축주의 (시설물에 대한) 목적과 (건축주 조직의 고유) 업무와 부합시키는 점진적 절차”라 정의내릴 수 있으며 브리프(brief)는 이 과정의 결과이다. 그러나 건축주 브리핑을 기술 혹은 절차로만 이해한다면 기존의 건축기획 혹은 설계의 한 부분으로만 이해될 수밖에 없다.

올바른 건축주 브리핑은 건축주는 누구이며 그들이 어떻게 건축에 접근하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건축주 자신의 생활 혹은 업무영역에서는 그들이 최고의 전문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지식을 최대한 프로젝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 용역 제공자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설계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무료로 수행했던 건축주 대상 비설계 업무가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대가를 받는 독립적인 용역으로 발전해야 한다. 물론 건축사 혹은 여타 전문가의 건축주 브리핑 능력이 제고되어야 하고, 건축주는 브리핑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 결과 건축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건축주는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무료로 수행된 브리핑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주브리핑의 온전한 이해는 건축주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 질문과 관련된 논의를 다루고자 하며, 건축주의 정의, 유형, 건축주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당위적 행위 등을 살펴보자 한다. 국내 건축주 중 민간 개인 건축주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만족도, 당위적 행위에 대한 인지 정도 및 이를 수행할 때 느꼈던 어려운 정도,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의존한 대상 조사 방법 및 이를 토대로 추론한 행동 양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룬다. 2회에서는 건축 프로젝트 절차에 따라 분류된 건축주 브리핑의 종류와 이와 관련된 브리핑 내용 등을 설명한다. 3회에서는 국내외에서 수행된 건축주 브리핑 사례와 앞으로의 건축주 브리핑 발전 방향 등을 언급하고자 한다.

---

1) Blyth, A. and Worthington, J. "Managing the Brief for Better Design", Spon Press, London, UK, 2001. 기타 브리핑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 Ins and out of clients briefing 건축주 브리핑의 이해

건축주 브리핑은 국외, 특히 영국에서 건축주의 필요에 의해 실무에서 먼저 독립된 용역으로 수행되었으며 최근에 이론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프로젝트 이전단계의 건축주의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한 만큼 이와 관련한 보편적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고, 건축주의 상황이 다양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용적인 건축주 브리핑 지원 방법을 체계화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건축주 브리핑 이론과 실제 수행방법 중 상당부분은 타당성 분석과 가치공학과 같은 기준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개념을 조금이나마 정립하기 위해 건축주를 중심으로 한 건축주 브리핑의 등장 배경, 유형, 절차 및 수행 방법 등을 다룬다.

### 건축주가 빠지기 쉬운 함정 – 자기 합리화

지난 호에서 개인건축주 정보취득 매체 분석 결과 중 경험이 없는 건축주도 유사공간 및 시설, 비용조달방법, 예산내 적정 규모 및 품질 등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전문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한 자문을 용역 제공자로부터 구하지 못했거나, 건축주가 스스로 합당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건축주는 풍부한 정보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고하기보다는 용역제공자를 접촉해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손에 망치를 쥐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못 밖에 없다’란 영국 격언이 있다. 일단 건축주가 자신의 필요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건축프로젝트를 떠올리는 순간 프로젝트의 큰 틀은 결정된다. 이때 대부분의 건축주는 최초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간과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건축프로젝트 관련 용역 제공자를 접촉한 후에는 프로젝트를 백지 상태에서 원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자기합리화로 인해 건축주에게 큰 손실을 안겨준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새천년을 맞아 영국 정부는 야심찬 계획 하나를 세운다. 세계 최대의 돔을 지어 그곳에서 새천년을 맞이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건설된 밀레이엄 돔(millenium Dome)〈그림 2〉은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그러나 새천년맞이 행사 이후 그 돔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은 그렇게 세밀하지 않았던 것 같다. 대형 인체 모형들을 세워 그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인체를 경험할 수 있는 인체관 등 각종 과학적

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일종의 체험의 장으로 이용하겠다는 안이 최초의 사용 계획이었다. 돔은 예정된 기간 내에 완공되었고 1999년 마지막 날 그곳에서는 영국 여왕이 참석한 성대한 새천년맞이 행사가 열린다. 그러나 이후 개장한 체험의 장 관람객 수는 기획당시의 예측과 달리 운영자금을 충당하기에도 벅찰 만큼 급감한다. 돔 운영사의 거듭되는 파산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고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1,300억 원에 달했다. 영국 정부는 돔을 매각하기로 하고 매수자를 물색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가 2002년 주변 토지와 함께 돔을 무상으로 개발업자 컨소시움에 양도해 향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기에 이른다. 이후 영국의 무선통신회사인 The O2가 인수해 스포츠 및 문화시설로 활성화시키고자 했다. 심지어 런던시는 2006년에 그 내부에 대형 카지노 시설을 유치할 계획까지 세웠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었다. 가장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 사용될 23,000명 규모의 실내경기장으로 용도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니 그 용도에 대한 불임이 파란만장하기도 하거니와 앞으로도 이의 운영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밀레니엄 돔 전경

밀레니엄 돔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용역 제공자에게는 성공적인 사례일 것이다. 역사적인 상징물을 설계한 건축사인 리처드 로저스 (Richard Rogers),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 엔지니어, 정해진 공기에 맞춰 이를 건설한 프로젝트 관리자 및 시공자에게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인식될 것이다. 그러나 건축주인 영국 정부에게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손실만 안겨준 실패작이다. 이 실패를 리처드 로저스에게 물을 수 있을까? 그는 건축사이자 프로젝트 완료후의 운영성과까지 책임질 주체는 아니다.

## 건축주의 이익 – 이용자의 만족에서부터

새천년을 기념하기 위한 건축주의 요구는 비슷했으나 처음부터 이용자를 염두에 두고 기획되어 프로젝트 수행과정 중의 어려움을 딛고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다. 영국항공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된 런던아이(British Airways London Eye, Millenium Whee]라고도 불림)는 그 기획단계에서부터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영국 건축계에서는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망가뜨리는 흉물이 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결국 런던아이는 한시적으로 5년간만 운영하다 해체하기로 하고 건설을 시작한다. 이후 시공 단계에서 <그림 2>와 같이 템즈강에서 조립한 훨을 수직으로 세우기 위해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크레인과 훨을 연결하는 케이블들 중 몇 개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여곡절로 인해 결국 예정된 시한을 넘겨 2000년 3월에 들어서야 대중에 공개된다. 그러나 런던아이에는 연간 400만 명 정도의 이용객이 몰려들고 있으며 세계 11대 관광 명소에 꼽힐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2005년 3월 해체될 예정이었던 런던아이는 24년 후인 2027년까지 운영되기로 결정되었다. 프로젝트 관리 및 시공 용역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인도기한을 맞추지 못한 런던아이는 분명 실패한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자금을 지원하고 런던아이 운영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BA는 직간접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다. 탑승료 수익뿐만 아니라 전망대의 공식 명칭인 British Airways London Eye가 회자될 때마다 BA의 브랜드 인지도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2> 런던아이 양종 과정과 완성 후 전경

## 건축주 브리핑 – 혁신과 이용자의 만족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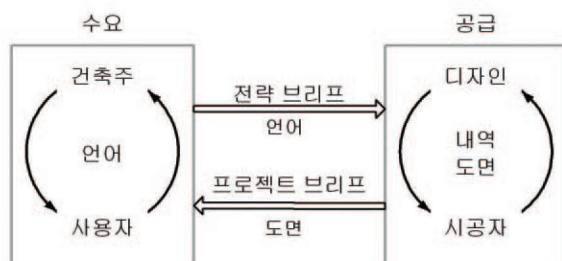
앞서 예로 든 두 프로젝트는 새천년을 기념하면서 영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한 동일한 요구를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 프로젝트로 구체화 시켰는지, 프로젝트 종료 후 건축주 혹은 자금을 지원한 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밀레니엄 돔이 규모의 극대화로 상징성을 얻고자 했을 때 런던아이는 런던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즐겁게 해주면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기획되었다. 밀레니엄 돔이 공간 그 자체에 국한해 시설물이 완성된 후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소홀했다면 런던아이는 처음부터 운영 프로그램이 중심이 된 ‘회전 전망대’로 프로젝트를 발전시킨 것이다. 런던아이의 관람캡슐이 개인 파티를 개최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만들어진 이유도 이용자의 수요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

였다. 두 프로젝트 모두 혁신적이었지만 런던아이가 보다 이용자의 만족을 염두에 둔 접근을 한 결과 성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혁신과 이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기획은 비단 국가의 기념비적 사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최근 일반 기업체에도 지식 공유 문화를 정착해 업무에 혁신을 불러일으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선두기업은 과거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면서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다 결국 뒤쳐지는 사례가 많다. 최고 수준의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건축물은 그동안의 성공에 안주해 기존 건축물의 부분적인 개선에 그쳐서는 탄생할 수 없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여 건축프로젝트를 기획할 경우 건축주에게 인도되는 최종 시설물은 과거 최고 수준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이다.

## 건축주의 언어로 – 전략브리핑

혁신적 관점이 건축주 브리핑의 핵심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프로젝트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의 기획단계 및 타당성 분석단계에서도 건축주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건축주 브리핑을 도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 종류와 상관없이 건축주 브리핑이 필요한 이유는 <그림 3>과 같이 건축주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그 누구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자신들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반해 프로젝트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전문가는 내역이나 도면과 같은 전문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데서 오는 괴리를 줍히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자를 전략 브리핑(strategic briefing)이라 하고 후자를 프로젝트 브리핑(project briefing)이라 한다.



<그림 3> 브리핑–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브리핑

전략 브리핑은 건축주가 제시한 필요와 요구가 충족되었을 때 건축주의 고유 업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에 대한 묘사이다. 이 때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는다. 단순히 필요나 요구가 충족되었다는 가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건축주의 업무가 어떤 형태로 수행되는지에 대한 가상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건축주 고유 업무의 목표, 현재 내부적 상황과 외부의 경제 및 사회적 경향, 건축주의 세부조직의 업무 및 이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어떤 방식으로 건축주 조직의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브리핑 단계에서 건축주의 최고 상태를 건축물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 제시된다.

전략 브리핑이 기존의 타당성 분석과 같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의

CM업무와 다른 점은 건축주 ‘스스로’ 혹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 건축주 업무의 최고 수준을 규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과, 이를 지원하는 용역제공업체는 이후의 프로젝트 단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발주 여부나 이후 참여로 발생하는 영업적 이익과 무관한 용역 제공자만이 진정으로 건축주의 입장에서 혁신적으로 프로젝트의 윤곽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건축주 브리핑의 등장 배경

### 가치에 대한 제고

건축주브리핑이 새로운 분야로 정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영국 건설산업 환경의 변화이다. 영국 정부는 공공발주 프로젝트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관련자에게 최대한의 가치를 돌려주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필요를 밝혀내고 이를 프로젝트에 반영하는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구매전략(procurement strategy)또한 변하게 되어 다양한 계약제도의 도입을 단행했다. 건설사업관리가 별도의 용역으로 입찰제도를 통해 발주된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 이는 설계자, 엔지니어링 설계자 및 시공사들 간의 역할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를 “전문 용역 제공자들의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했는가와 건축주의 입장에서 프로젝트 발주를 통해 최대의 가치를 달성했는지는 별개의 문제”(O'Reilly 1987)로 인식되면서 건축주의 가치를 분석하는 절차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건축주 브리핑은 건축주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가치를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보다는 ‘무엇이’ 가치인지를 규명하는 가치경영(value management)에 그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Blyth and Worthington 2001; Kelly and Male 1993) 이와 같이 가치를 규명하는 과정은 프로젝트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주에게 필수적이다. 특히 개인건축주에 비해 건축주 조직에서는 구성원의 요구가 다양하고 완성된 시설물에 기대하는 가치 또한 상이하다. 더군다나 건축주 조직뿐만 아니라 건축 활동 또는 이의 결과물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련자(stakeholder)들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정교한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축주 브리핑의 이론과 방법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 점유 후 평가 중요성 인식

건설프로젝트는 건축주가 현재 점유·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새로운 필요를 느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새로 발주할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받을 시설물과 비교하는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건축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새로운 시설물을 기획하는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건축주 브리핑 이론과 방법은 프로젝트 이전 및 진행 과정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이후 단계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여 시설물 사용 후 평가를 새로운 건설 프

로젝트의 기획단계에서 반영하는 체계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건축주 브리핑의 정의 및 종류

건설 프로젝트의 초기단계는 ‘문제상황(problem situations)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시도’라고 요약될 수 있다. 문제상황은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우려, 관심, 요구, 필요 및 제약 등으로 파악될 수 있다. 브리핑(briefing)은 문제상황의 파악 및 해결 과정이라 이해할 수 있으며 브리프(brief)는 이 과정의 결과이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인 프로그래밍(programming)이란 분야가 존재한다. 그러나 프로그래밍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후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건축사에게 여러 기획안중 적정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Cherry 1999)이라는 점에서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건축주에게 있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브리핑과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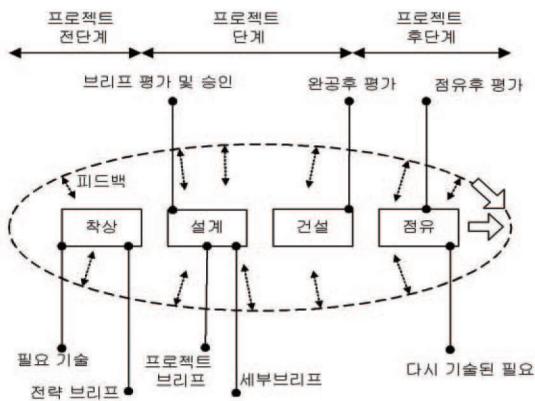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건축주 브리핑은 프로젝트 수행 절차와 연관지어 네 가지로 구분되며(Blyth and Worthington 2001) 이의 유사 명칭은 표 1과 같다.

〈표1〉 건축주 브리프의 조우와 이의 유사명칭

| 브리프의 종류  | 내용 및 유사용어   |
|----------|---|
| 필요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주 조직의 사업목표를 (건설프로젝트를 통해) 만족시키기 위한 건축주조직의 필요에 관한 묘사(Blyth and Worthington 1999)</li> <li>Global 브리프(Barrett and Stanley 1999)</li> </ul>                |
| 전략 브리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당 가능한 재원, 프로젝트의 개략적인 범위 및 목적에 관한 기술(CIB 1997)</li> <li>Basic 브리프(Barrett and Stanley 1999)</li> </ul>   |
| 프로젝트 브리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성된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받는 건축주의 기능적/운영적 요구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CIB 1997)</li> <li>Brief for the definitive plan(Barrett and Stanley 1999)</li> </ul>                   |
| 세부 브리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젝트 브리프에서 기술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계획안, 향후 수행해야 될 연구사항, 이전단계에서 동의된 계획과 관련한 요구사항이 포함된 문서(CIB 1997)</li> <li>Specification(Barrett and Stanley 1999)</li> </ul> |

브리핑의 정의와 성격은 브리핑을 바라보는 전문가 집단의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브리핑 단계에서 논의되는 중점 사항과 결과물의 성격도 다양하다. 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용역제공자는 브리핑과정을 통해 이후 설계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 반면 건설관리를 염두에 둔 전문가들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윤곽을 확정짓기를 원한다.

## 절차로써의 건축주 브리핑과 내용



(그림 4) 건설프로젝트 절차에 따른 건축주 브리프 (Blyth and Worthington 2001)

〈그림 4〉는 〈표 1〉에서 언급된 여러 브리핑을 프로젝트 절차와 연관시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타원의 점선은 피드백 시스템의 경계를 나타낸다. 피드백은 단일 프로젝트 세부 절차에서 연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이후 프로젝트에 반영된다. 그림에서는 각 절차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브리핑 또한 일회적인 것으로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절차는 중첩되며 브리핑의 내용도 다음단계로 연결되어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중첩까지 고려하여 건축주 브리핑의 절차와 내용을 담은 절차<sup>1)</sup>모델도 있다. 브리핑의 결과물은 이를 이용할 당사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일관되어야 한다. 또한 누가 언제 어떻게 브리핑의 결과물을 생성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야 한다.

### 프로젝트 이전단계

〈표 2〉는 프로젝트 이전 단계의 건축주 브리핑 및 관련 절차의 행위 및 결과물을 Blyth and Worthington (2001)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요약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건축주가 주된 역할을 한다. 설계전문가가 이 단계에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설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대안을 설계 전문가의 입장에서 평가하게 위한 것이다.

건축주 조직의 경우 브리핑을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현재 건축주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최고 수준에 달했을 때(business case)를 가정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의 상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표 2〉에서 건축주 및 관련자의 필요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치경영이 언급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기로 한다.

현재 건축주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연관시킬 때 건축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현재 시설물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필

〈표 2〉 프로젝트 이전 단계의 건축주 브리핑 내용

| 세부절차<br>(참여자)                                      | 행위  |
|--|---|
|  | 결과물   |
| 필요기술<br>(건축주 조직의 경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요기술 준비</li> <li>건축주 조직의 업무 및 사업목적</li> <li>변화의 필요</li> <li>과거경험에 따른 필요</li> <li>현재 건축주가 보유하고 있는 대지, 건물 및 기타자원</li> <li>건축주 업무의 최고수준</li> </ul>  |
| 동의 및 행동<br>(건축주 조직의 경영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주 조직 담당자가 조사에 동의</li> <li>프로젝트 후견인(project sponsor) 규정</li> <li>프로젝트 후견인이 사업사례팀 지명</li> <li>건축주 자문가 지명</li> </ul>  |
| 필요평가<br>(프로젝트대표, 사업사례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요와 건축주 조직의 자원 평가</li> <li>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옵션 생성(옵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포함)</li> <li>대안: 이익, 장애물 및 위험 포함</li> </ul>   |
| 옵션평가<br>(프로젝트대표, 사업사례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평가</li> <li>건축주 조직의 사업전략을 고려한 옵션 평가</li> <li>건축주의 필요 및 사용자원 분석</li> <li>사용자를 포함한 제3자와의 대화 시작</li> </ul>  |
| 동의 및 행동<br>(프로젝트대표, 사업관리자, 사용자를 포함한 제3자, 프로젝트 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옵션 (Business options)</li> <li>업무처리 행태 변화</li> <li>기술사용 능력 향상</li> <li>자원의 재배치</li> <li>공간 및 대지 임차</li> <li>건설옵션 (Constructionoptions)</li> <li>리모델링</li> <li>재건축</li> <li>신축</li> </ul>   |
| 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명된 옵션 확정</li> <li>자금조달을 위한 신청</li> <li>선택된 옵션 발표</li> <li>가치경영 실시</li> <li>위험분석 수행</li> <li>목적탐구</li> <li>전략브리핑 준비</li> </ul>   |
| 전략브리프<br>(프로젝트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자의 필요 확인 및 명확화</li> <li>브리핑 준비</li> <li>프로젝트 계획 준비</li> <li>건축주 조직의 부서별 목적 및 우선순위</li> <li>건축주 조직의 구조 및 관계</li> <li>위치</li> <li>종합비용</li> <li>수용능력</li> <li>인도될 건물의 질적 수준</li> <li>인도될 건물의 사용자 수준</li> <li>구매(계약)절차</li> <li>일정</li> <li>핵심시점(milestones)</li> </ul> |
| 동의 및 행동<br>(건축주대표, 사업관리자, 사용자를 포함한 관련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략 브리프가 모든 관련자를 고려해서 생성되었으며 비용과 일정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 졌음을 확정</li> <li>가치경영과 위험평가가 수행되었음을 확정</li> <li>향후 행동에 대한 계획 검토</li> <li>프로젝트 참여 가능 전문가 리스트 선택</li> <li>참여 가능 전문가들 접촉</li> <li>참여 가능 전문가 선택</li> </ul>   |

1. CIB (1997) Construction Success: Code of practice for client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omas Telford, London.

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옵션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이를 테면 신축은 하나의 대안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략 브리핑 단계에서 <표 2>에서 언급된 내용이외에도 ①무엇이 사전에 기술되어야 하며 어느 부문에서 설계팀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하는지 결정, ②누가 어떤 결정을 언제 내려야 하는지 정의, ③의사소통 전략 수립, ④우선순위 결정, ⑤이후 브리핑을 수행할 팀 결정 등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 프로젝트 단계

설계담당팀이 전략 브리프를 전달받아 무엇을 건축주가 필요로 하는지에 관해 피드백하면서 이를 평가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과거의 선례가 있어서 새로운 개념으로 설계할 필요가 없는 부분과 혁신적인 개념으로 설계 되어야 할 부분을 나누게 된다. 디자인 팀은 여러 가지 설계 대안을 제안하고 검토하면서 프로젝트 브리프를 개발하게 된다.

프로젝트 과정 중에 설계팀은 전략 브리프에 기술된 요구와 프로젝트 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가치공학 및 위험경영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체 설계가 시작되기 전에 완성된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받는 건축주의 기능적·운영적 요구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이 프로젝트 브리프 형태로 생성된다.

일단 프로젝트 브리프가 건축주에 의해 동의되면 설계팀은 이후 단계의 프로젝트 참여자를 위한 세부 브리프를 생성한다.

### 프로젝트 이후단계

일단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전체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설계팀이 얼마나 과업을 잘 수행 했는가와 여러 브리핑 과정이 잘 수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이후 프로젝트를 위해 유용할 것이다. 건축물의 성능에 대한 체계화된 평가는 설계팀과 건축주 모두에게 기대에 비해 건축물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건축주와 설계팀은 잠재된 실패가 외부로 표출되는 것을 우려해 때때로 점유 후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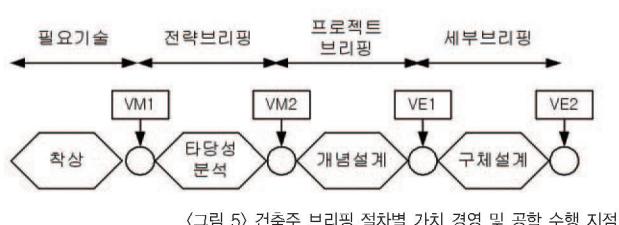
### 건축주 브리핑의 수행

#### 가치경영의 이해

기존의 가치공학 기법이 기능중심이라면 가치경영은 가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치공학은 모든 관련자가 건축물의 기능에 대해 동일한 인식을 하고, 기능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

준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여러 대안은 동일한 수준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가정이 만족되어야 수행될 수 있다.(Green 1994) 가치는 비용의 절감에 의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은 비용을 결정적으로 고려해 평가된다.

문제는 관련자가 모두 제시된 가치에 동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기능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표 2> 프로젝트 이전 단계의 브리핑 결과물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프로젝트 목적 자체가 규명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와 같은 가치공학을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가치가 무엇인지 밝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가치경영은 가치공학과 같이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충되는 목적과 필요 자체에 대한 논의를 통해 관련자가 동의할 수 있도록 이들을 규명하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이는 '학습'에 더 가깝다.



<그림 5> 건축주 브리핑 절차별 가치 경영 및 공학 수행 지점

<그림 5>는 가치경영(VM) 및 가치공학(VE) 워크샵이 프로젝트 절차와 연관해 언제 수행되는지를 도식화 한 것이다. 이후 언급될 각종 조사방법으로 취합된 관심사는 첫 번째 가치경영 워크샵(VM1)을 통해 건축주 조직의 구성원이 공유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제시된 필요나 요구가 건축주 조직의 업무사례와 관련이 있는지와, 만약 그렇다면 이를 만족시켰을 때 건축주 조직의 업무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규명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건축주에게 최대의 가치를 주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가치경영 워크샵(VM2)에서는 타당성 분석을 통해 평가된 대안 중 한 가지를 선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표 2의 전략브리핑 내용이 모두 규명되거나 확정되어야 한다. 가치공학에 대한 이론과 실례<sup>2)</sup>는 기존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예비활동: 건축주의 지식 향상

건축주에게 건설프로젝트에 관한 기본지식을 쌓게 하는 매체 중 대표적인 것은 건축주 안내이다. 국외에서 발표되고 있는 건축주 안내의 핵심 내용은 건축주에게 프로젝트 절차를 이해시키기 위한 절차모델과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는 계약제도이다.<sup>3), 4)</sup> 건축주를 위한 절차모델은 건축주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과 이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절차 중 중첩된 부분이

2. 유병기, 건설사업관리 성공사례, 제6회 한국건설관리학회 영남지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pp36~50, 2004

3. CIB (1997) Construction Success: Code of practice for client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omas Telford, London.

4. Bowen, P. A., Pearl, R. G. and Edwards, P. J. (1999) Client briefing processes and procurement method selection: a South African study.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Architectural Management, 6(2), p.p.91~104.

표현되고 각 절차별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까지 자세히 표현된 전문가를 위한 절차모델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주가 절차모델을 숙지한다고 해서 당위적 행동경로에 접어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 이전 단계에서는 건축주의 요구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형화되고 세분화된 절차모델은 유연한 문제규명 및 이의 대안제시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

건축주는 절차 혹은 정보의 흐름으로 브리핑을 이해하기 보다는 인도될 시설물의 구체화에 더 관심을 가진다. 이에 따라 각 브리핑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설물의 수준을 구분시켜 놓은 제품 상하관계가 제시되었다. Blyth와 Worthington(2001)은 이를 건물쉘, 설비, 경관, 내부배치 등 4단계로 구분했다.

건물쉘(building shell)은 건물의 외부와 구조로 건물의 생애와 그 주기를 같이한다. 통상 50년 이상으로 고려한다. 이 수준에서 내려야 할 주요 의사결정 사항은 외형, 규모 그리고 조직 및 기술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 이 단계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장기적으로 내려져야 한다. 주로 전략 브리핑 단계에서 결정된다.

설비는 냉난방, 환기, 조명 및 배선 등을 포함하며 이들의 교체 주기는 15년에서 20년 사이이다. 이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다. 이 유연성 정도는 건물쉘을 결정할 때 상당부분 결정된다.

경관(scenery)은 내장재의 노출부분으로써 천장, 칸막이벽, 마감 등이다. 설비보다 교체주기가 짧으며 통상 7년에서 10년 정도이다. 설비와 경관은 세부적인 사용자의 요구, 조직의 변화에 따른 사안, 개인의 특이성향 그리고 조직의 이미지와 부합되어야 한다. 이는 빌딩쉘과는 독립적으로 조합될 수 있다.

내부배치는 가구 및 빌딩쉘 내부에 있는 장비의 일상적인 배치이다. 칸막이와 가구는 조직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재배치 될 수 있다.

건설 관련 용역제공 전문가들은 위의 4가지 제품상하관계 이외에 더 세부적인 수준의 제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건축주는 위와 같은 지식이 없으며 따라서 각 프로젝트 절차별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제품모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향후 인도받게 될 제품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건축주 자기 상황 인지 지원

'건축주 자기 상황 인지 메트릭스'는 Barret과 Stanley(1999)의 연구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들은 성공적인 건축주 브리핑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1) 건축주 권한 강화
- 2) 프로젝트의 가변적 상황 관리
- 3) 적정한 사용자 참여 유도
- 4) 적정한 프로젝트 조직 구성
- 5) 적정한 시각화 도구 사용

위의 각 사항에 대해 건축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그림 6>과 같이 개발하였다. 체크리스트 항목별로 현재수준에서 얼마나 부합되는 지와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각각 4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이를 메트릭스에 표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축주는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 지와 이상적인 상황을 위해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파악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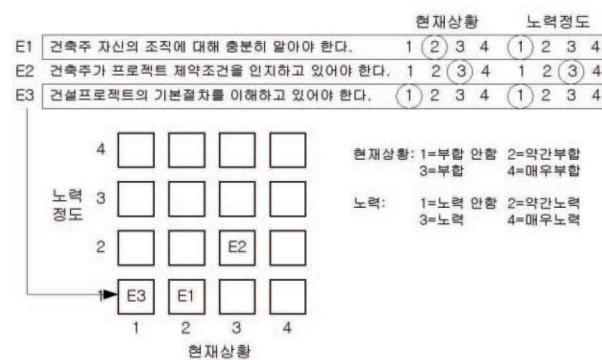


그림 6. 건축주의 자기상황 인지 메트릭스 예

Barret과 Stanley(1999)는 이러한 자기상황 인지를 통해 건축주 브리핑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브리핑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 건축주의 인식을 높이는 방법일 뿐 브리핑 자체를 지원하는 도구는 아니다.

### 건축주의 가치파악을 위한 데이터 수집

#### (1) 기명 소집단 기술

기명 소집단 기술(nominal group technique)은 브레인스토밍과 매우 유사하나, 보다 공식적이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소집단 구성원간의 교류가 창조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간의 대화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후 단계에서도 대화를 별로 수행하지 않는다. 절차는 ①아이디어는 최초에 개인적으로 제시되고 각자에 의해 메모 된다. ②메모된 아이디어는 아무런 토론 없이 한번에 한 가지씩 소집단에 발표되고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매체에 기록된다. ③참여자는 이후 그들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대해 의사를 개진한다. ④각 참여자는 이후 개인적으로 각 아이디어의 순위를 매긴다. 마지막으로 ⑤공통적인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돋기 위해 개개인이 매긴 순위가 취합된다.

#### (2) 델파이 방법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은 문서화된 설문지를 이용하는 특징이 있다. 이 방법은 참여원이 워크샵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 이점이 있을 수 있다. 특별하게 정해진 절차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주요단계가 있다. ①응답자는 최초 설문지에 답한다. ②제시된 아이디어는 모

니터링 팀에 의해 모아진다. ③ 모아진 아이디어는 응답자들에게 보내진 후 이를 다른 참여자들의 아이디어와 비교하고 필요하다면 그들 스스로 최초 아이디어를 수정한다. ④ 응답자는 그들의 새로운 답을 보낸다. ⑤ 새로운 답변은 의견일치가 있는지 상이한 의견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 팀에 의해 분석된다. 만약 상이한 의견이 있다면 의견일치를 볼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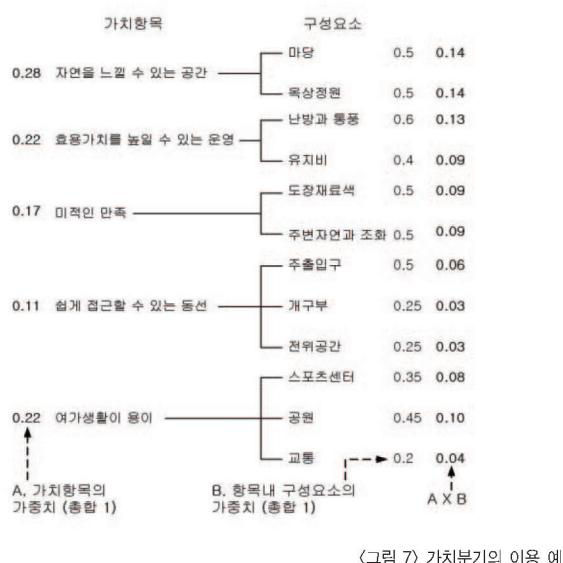
### 건축주의 가치 분석

앞서 언급한 도구로 건축주의 가치에 관한 데이터가 수집된 후 이를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분석 방법에서 여타 용역 제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과 다른 점은 건축주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 (1) 가치분기와 FAST

가치분기(value tree)<sup>6)</sup>는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주가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가치를 파악하고 이의 중요도를 수치화 시기는 기법이다. 가치분기는 가치공학에서 이용되는 FAST(Function Analysis System Technique)<sup>7)</sup>와 원리는 유사하다. 그러나 가치분기와 FAST는 차이점이 있다. FAST는 기능분석 중심인데 반해 가치분기는 건축주가 생각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기능뿐만 아니라 기타 요소들도 포함될 수 있다. 가치분기는 프로젝트 이전단계와 전략 브리핑 단계에서 아직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형상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7>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 워크샵을 통해 그들이 전 원주택에 대해 기대하는 가치를 가치분기를 이용해 실제로 분석해 본 예이다.



그림에서 가치항목은 '만족', '쉽게', '용이' 등과 같이 건축주가 생각하는 가치가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가치항목내 구성요소는 실제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기능일 필요가 없다. <그림 7>에서와 같이 '유지비'와 같이 정량적으로 표현이 되거나 '공원'과 같이 존재 유무로 평가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림 7>에서 좌측 수치 A는 가치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다. 항목별 가중치의 총합은 1이 되어야 한다. 항목별 구성요소에 다시 B와 같이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치항목의 가중치(A)와 항목내 구성요소의 가중치(B)를 곱해 전체에서의 각 구성요소의 가중치를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가치분기를 이용한 방법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가치항목의 구성요소가 많아지면 중요도에 상관없이 전체에서의 구성요소 가중치 값이 낮아진다. 또한 건축주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치항목 및 이들의 구성요소와 같이 수준별로 밝히지 않고 무작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가치경영을 지원하는 전문가는 구성요소를 적정한 가치항목으로 묶거나 수준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FAST는 프로젝트 및 세부 브리핑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Connaughton and Green(1996)은 FAST를 브리핑 과정에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FAST 다이어그램은 원래 제조업의 가치공학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기본 논리는 건설프로젝트에 때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2) 많은 수의 부차적 기능 및 디자인 부재가 정의될 수 있고 이는 과다하게 복잡한 분석 및 다이어그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치공학을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적정한 수준으로 이를 묶어야 한다.

3) 많은 시각이 상위 기능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전가능성이 없는 기술적 해결방안에 낭비될 수 있다. 가치경영 담당자 지원하는 주체는 따라서 토론이 최대의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집중되고 상위 기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4) FAST 다이어그램 생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아마도 비전문적 참여자를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 (2) 집단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Green(1994)에 의해 개발된 SMART방법은 상이한 관점을 가진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가치를 밝혀내어 브리핑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SMART는 앞서 언급한 건축주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과 이의 분석과정을 하나로 묶어 프로그램화 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SMART역시 최종적으로 가치를 수치화 시키

6. Green, S. (1994) Beyond value engineering: SMART value management for building proj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12(1), p.p.49-56.

7. 최석인 (2002) 건설 VE 프로젝트에서 효과적인 기능분석 적용방안, 제3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78-84.

는 과정에서 가치분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가치분기에서의 가치항목과 구성요소를 도출해 내는 과정과 이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에 사회과학에서 사용되었던 집단의사결정 방법을 도용한 특색이 있다. 구체적으로 연성시스템 접근(soft systems approach)에 기반을 두고 건축주 조직 구성원이 공통으로 느끼는 현재상황과 이상적인 상황을 도식화하고 이를 두 상황간의 귀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세우는 절차로 체계화 시켰다. 현재상황과 이상적인 상황은 현재 시설물을 바탕으로 벌어지는 건축주 조직의 고유 업무 활동이 주를 이루며 이상적인 상황은 업무 활동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설물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SMART의 단점은 연성시스템 방법의 단점과 궤를 같이 한다. 건축주의 가치를 규명하고 이를 동의하는 과정은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어도 규명된 가치나 이의 중요도는 프로젝트별로 다르기 때문에 재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한번 이러한 과정을 거친 참여자는 다른 프로젝트를 위한 SMART과정 중 과거의 경험에 몰입해 자칫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

### 건축주 브리핑 수행시 유의점

건축주를 도와 건축주 브리핑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퍼실리레이터(briefing facilitator)라 칭하고 있다. 건축주 브리핑의 이론 및 수행 방법을 터득한 후 실제 이를 수행할 때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 사업제안서와 구분

건축주 브리핑은 건축주의 입장에서 시설물에 대한 필요 및 요구를 파악하고 시설물의 인도를 통해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 목적인 반면 사업제안서는 외부에서 잠재적인 사업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사업개척 예비단계의 성격의 강하다. 이에 따라 사업제안서는 개발자들에 의해 사업 형성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업제안서의 구성 항목을 건축주 브리핑 과정 중에도 역시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건축주는 개발자와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건축주 브리핑과 타당성 분석의 차이점 인식

브리핑의 일부 결과물이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브리핑을 타당성 분석과 혼동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이전 단계에서의 브리핑은 건축주 스스로 자신의 사업사례(business case)를 규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방향을 정하는데 초점을 두는 반면, 타당성분석은 형상화되기 시작한 프로젝트를 개발 필요성, 경제적 측면 및 실현가능한 설계안 등을 제시하면서 수행 된다는 차이가 있다.

#### 구성원의 비현실적인 기대감 제어

건축주 브리핑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과 기법은 일단 건축주(혹은 건축주 조직의 구성원)가 시설물과 관련해 기대하는 가치를 외부로 표현하는 것에 기초한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자유스럽게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축주는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인도될 시설물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가질 수도 있다. 인도되는 건축물이 동원 가능한 자원에 비해 객관적으로 최대의 가치를 가져다 줄 지라도 건축주가 주관적으로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칫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현실 불가능한 의견을 제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건축주 브리핑을 지원하는 전문가의 능력에 달려 있다.

#### 최적화의 적정수준 수행

가치경영의 이해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치를 어떻게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가치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잘못 파악된 가치를 비용절감을 통해 높인다 해도 최종적으로 이는 관련자에게 가치가 없는 결과를 줄 수도 있다. 프로젝트 형성단계에서 최적화를 우선시하여 가치공학기법을 도입할 경우 오히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 이에 건축주 브리핑 용역 제공자는 가치경영과 가치공학을 적정한 시기에 수행해야 한다.

#### 맺음말

건설프로젝트 형성 이전 단계에서 내려지는 의사결정이 이후의 활동보다 프로젝트가 건축주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발주를 결정하기 전 가치를 규명하는 과정에 보다 많은 관심이 기울여 쳐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수행되는 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타당성 분석은 건축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이후 여러 대안을 세우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 이전에 건축주 스스로 자신의 필요와, 현재 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규명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있다. 프로젝트 수행 단계에서도 건축주가 지속적으로 설계결과와 입찰자 선정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있다.

건축주 브리핑은 건축주의 입장에서 프로젝트 완료후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절차로써 기존의 타당성 분석이나 가치공학과 다르다. 건축주 브리핑에 대한 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젝트 이전 단계의 건축주 브리핑은 건축주에게 무엇이 가치인가를 규명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가치공학과 같은 최적화 기법보다는 사회과학분야의 집단의사결정이나 학습 이론에 더 기반을 두고 있다. 실무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다양한 가치를 표현하게 하고 이의 충돌을 조정해 가면서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건축주 브리핑은 일회적인 활동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행해져야 한다. 필요기술, 전략브리핑, 프로젝트 브리핑, 세부 브리핑 및 점유 후 평가는 순환적으로 연결된다.

건축주 브리핑을 수행하는 건축주 혹은 이를 지원하는 용역 제공자는 최적화에 집착하여 더 큰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프로젝트 이전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자체 보다는 프로젝트 발주를 통해 건축주 자신의 사업에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심어주는 것도 피해야 한다. ■

#### ※ 참고문헌

- 1) Barrett, P. and Stanley, C. (1999) Better Construction Briefing, Blackwell Science, Oxford, UK.
- 2) Blyth, A. and Worthington, J. (2001) Managing the Brief for Better Design, Spon Press, London, UK.
- 3) Cherry, E. (1999) Programming for Design, John Wiley & Sons, Inc., NY, US.
- 4) CIB (1997) Briefing the Team: A guide to better briefing for clients, Thomas Telford, London, UK.
- 5) Connaughton, J. and Green, S (1996) Value Management in Construction: A client's guide, CIRIA, UK.
- 6) Green, S. (1994) Beyond value engineering: SMART value management for building proj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12(1), p.p.49–56
- 7) Kelly, J. and Male, S. (1993) Value Management in Design and Construction, E & Fn Spon, London, UK.
- 8) O'Reilly, J. J. N. (1987) Better Briefing Means Better Building,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Garston, UK.

신 춘 규  
정회원 (주)건축사사무소 시그에이  
by Shin, Chun-gyu, KIRA

# 2007년 한몽건축사협회 교류방문 보고

**2007 Korea-Mongolia Registered Architect  
Interchange Visiting**

'한·몽 건축사협회상호협력 협정'에 따른 2007년 몽골건축사협회 방문이 2007년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협회에서는 한명수 회장, 류춘수, 이영순, 정명옥 부회장, 심재호 이사와 필자 등 7인이 공식 대표단으로, 그리고 13명의 시·도 건축사회 회장들이 참관단으로 방문하였다.

특히, 이번 교류에서는 몽골건축사협회(UMA) 측에서 자국의 건축 관련 제도에 대한 변화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건축 관련 제도와 대한건축사협회의 조직 및 운영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립, 조직, 회원, 사업 등 전반적인 협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현황을 세미나 주제로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다.

7월 31일 몽골의 Continental 호텔 2층 회의실에서 몽골건축사협회 Batzav Batkhuyag 회장의 인사말과 한명수 회장의 답사를 시작으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몽골건축사협회 측에서 현안에 대한 중요성을 회원들에게 사전 홍보한 결과 약 40여명의 건축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우선 심재호 이사가 '의료시설의 설계실무에 있어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The New Paradigm of Design Practice for Healthcare Facilities' 및 대한건축사협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협회와 관련된 법적 제도 및 건축 교육제도의 변화에 대한 사항은 수년간 협회 정책위원회를 맡아 왔던 한명수 회장이 직접 답변하였다.

심재호 이사는 발표를 통해 21세기에는 노인층의 급속한 증가에 의한 주요 질병의 변화, 산업시설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질병과 사고의 증가, 그리고 시장개방에 따른 새로운 타입의 경쟁 등으로 의료시설의 설계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



1\_ 우리협회 헌명수 회장과 몽골건축사협회 Batzav Batkhuyag 회장  
2\_ 우리협회 공식 대표단과 몽골건축사협회 임직원 일동  
3\_ 우리협회 헌명수 회장이 몽골건축사협회 임직원에게 KIRA 로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_ 미니 나남 축제에서 우리 협회 방문단의 단체 사진  
5\_ 한·몽 건축사협회 세미나 전경

명하고, 이에 맞는 의료시설 설계에 있어서의 8개 항목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하였다.

우리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발표에 있어서는 몽골건축사협회 측의 요청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립, 조직, 운영, 회원 등에 관련되는 법적 근거와 대한건축사협회 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주제에 관심이 높은 만큼 몽골건축사협회 Batzav Batkhuyag 회장이 직접 통역을 하였고 필요할 때마다 부연 설명을 하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

특히 UMA의 명예회장이자 울란바토르의 명예시민인 원로건축사 Sambuugiin는 원로들에 대한 연금문제 등에 관심이 많았으며, 회원의 회비, 정부와의 관계, 공공 프로젝트의 발주방법, 시험제도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해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

환송 만찬에는 시·도건축사회 회장들로 구성된 참관단이 자리를 같이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향후 두 협회가 다양한 건축설계 관련 사업 등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 하였고, 올해 몽골건축사협회의 방한일정을 10월 15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였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 UMA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기로 하였다.

1. UMA의 젊은 건축사들의 우리나라 건축사사무소에서의 연수 교육 요청 시 우리협회가 적극 협조하기로 함.
2. 2008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의 학생 잭보리 행사시 몽골에서 많은 인원을 참가도록 할 계획인 바, 우리 협회의 협조를 요청함.
3. UMA는 현재 유고슬라비아와 이태리 등에서 건축사사무소 지사를 몽골에 설립하여 설계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로 진출하기를 제안하였고, 특히 고층건물, 철골조, 하이테크건축물의 설계 분야가 취약한 만큼 이 분야의 진출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명수 회장은 우리나라와 몽골의 건축사들이 협작형태로 인근 국가의 설계시장에 공동 진출계획의 검토를 제안함.
4. UMA는 북한건축사협회와의 협약이 이루어져 있는 만큼, 향후 북한건축사협회와의 교류 추진 시 우리협회를 지원할 것을 약속함. ■

김 종 석  
강남대학교 도시건축공학부 교수  
by Kim, Jong-seok

# 학교시설의 공공성

## The School as a public facility

### 학교시설의 성격

우리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시설 중 학교는 타 시설과는 달리 매우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각종 개발관련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시설을 중심으로 학교시설이 지닌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학교시설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 이용계층

공공시설로서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특정집단인지 아니면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가능한 시설인지의 여부에 따라 시설물의 성격이 공적 성격을 지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학교를 제외한 다른 시설의 경우 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용계층의 제한은 없는 편이나 과거 학교급별로 직접적인 이용자가 학생으로 제한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교가 단지 학령기의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협의의 의미만을 적용할 경우이며, 평생교육이나 생애교육 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학교시설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의 학교시설은 지역민들을 위한 시설로서의 기능성이 추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이 일

어나는 하드웨어인 ‘학교’라는 시설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교육’이라는 소프트웨어 간의 개념일치를 고려할 때 미래의 학교시설 이용자는 제한된 계층이 아닌 일반인들의 교육을 위한 시설로서의 기능회복이 추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일일이용권

시설의 필요성은 매일 이용하는지의 여부인 일일생활시설인지가 결정한다. 또한 이 항목은 시설의 가용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도 작용한다.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는 매일 이용하는 시설로서 이 시설이 없으면 생활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거주공간에는 필수적인 시설이다. 반면 공원과 녹지의 경우 직접적인 생활의 가능성이 아닌 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고려요소이며, 앞으로는 이들 시설의 일일이용가능성이 거주의 품질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보생활권

공간시설의 경우 도보로 이용가능한지의 여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생활권의 질을 좌우한다. 도로, 수도, 하수도는 이 항목의 평가가 불가능하며, 나머지 시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과 철도 및 항만은 일반적으로 도보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닐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은 가능한 한 이격되어 있을수록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녹지와 공원, 그리고 학교는 가능한 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되어 있는 것이 생활의 편리성이란 측면에서 권장되며, 특히 학교는 생활권의 중심시설로서 생활권의 권역 자체를 결정하는 시설이다.

### 공적이용권

시설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충족의 개념에서 이용하는지는 시설 설치의 필수성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상기의 비교대상이 되는 시설 모두 이 요소에 있어서는 공적성격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공시설이 지니고 있어야 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이용선택권

각종 시설 이용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이용하는지 아니면 이용자가 선택 가능한지의 여부는 시설의 공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이다. 도로와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철도, 항만 등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없는 시설로 사람들은 단지 주어진 시설을 이용할 권한만 주어질뿐 여러 시설 중 원하는 시설을 선택한다는 개념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들 시설은 국가가 시설의 양과 질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반면 공원과 녹지는 일일이용

권 시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한다는 개념이 아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 배치된다는 개념이므로 학교급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설 이용선택권을 지니고 있지 않다.

### 수익발생

시설 이용에 따른 직접적인 수익발생의 여부는 시설 설치의 방법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시설 이용에 따른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은 개인이나 집단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억제하거나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은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지닌 개인이나 단체는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으려고 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 단체가 이들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인지도

시설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지도는 공공시설이 지녀야 될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 요소는 시설의 앞의 분석요소인 기능적인 측면과는 달리 감성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로 시각적인 특성이 뚜렷한 시설은 인지성이 매우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도나 하수도는 선형시설임과 동시에 지하에 매설되는 시설이어서 평가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주변 지역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의 분석요소 중 가장 중요한 이용선택권과 일일이용권, 그리고 도보생활권이라는 3대 요소를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시설이 지닌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 종합

주요 항목별 비교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시설별 특성분석

| 시설명   | 도로 | 수도 | 하수도 | 학교 | 공원 | 녹지 | 폐기물 처리시설 | 철도 | 항만 |
|-------|----|----|-----|----|----|----|----------|----|----|
| 이용계층  | ●  | ●  | ●   | ▲↑ | ●  | ●  | ●        | ●  | ●  |
| 일일이용권 | ●  | ●  | ●   | ●  | △↑ | △↑ | △        | x  | x  |
| 도보생활권 | /  | /  | /   | ●  | △  | △  | x        | x  | x  |
| 공적이용권 | ●  | ●  | ●   | ●  | ●  | ●  | ●        | ●  | ●  |
| 이용선택권 | ●  | ●  | ●   | ●  | x  | x  | ●        | ●  | ●  |
| 수익발생  | ●  | ●  | ●   | ●  | ●  | ●  | ●        | ●  | ●  |
| 인지도   | ●  | /  | /   | ●  | ●  | △  | x        | ●  | ●  |

● : 공적 성격이 매우 높음

x : 공적 성격이 없음

▲ : 공적 성격이 높음

- : 평가불가

△ : 공적 성격이 보통임

학교의 경우 상기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용계층을 제외한 모든 비교항목에서 매우 공적 성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용계층의 경우도 과거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던 폐쇄적인 운영하에서의 학교와는 달리 현재는 운동장을 지역민들을 위한 시설로 개방하는 경우로부터 시설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지역민들의 각종 행사가 학교내에서 행하여지는 등 이제는 개방적인 시설로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용계층의 제한은 점진적으로 없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경향은 더욱더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 학교설립 관련 법령체계 및 주요 법령 내 학교시설의 위치

### 법령간의 관계

학교의 신설에 관련되는 각종 개발에 관련된 법령들의 경우 학교시설의 신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각 법령들에서 학교가 점하고 있는 위치를 명확하게 살펴 현재 학교신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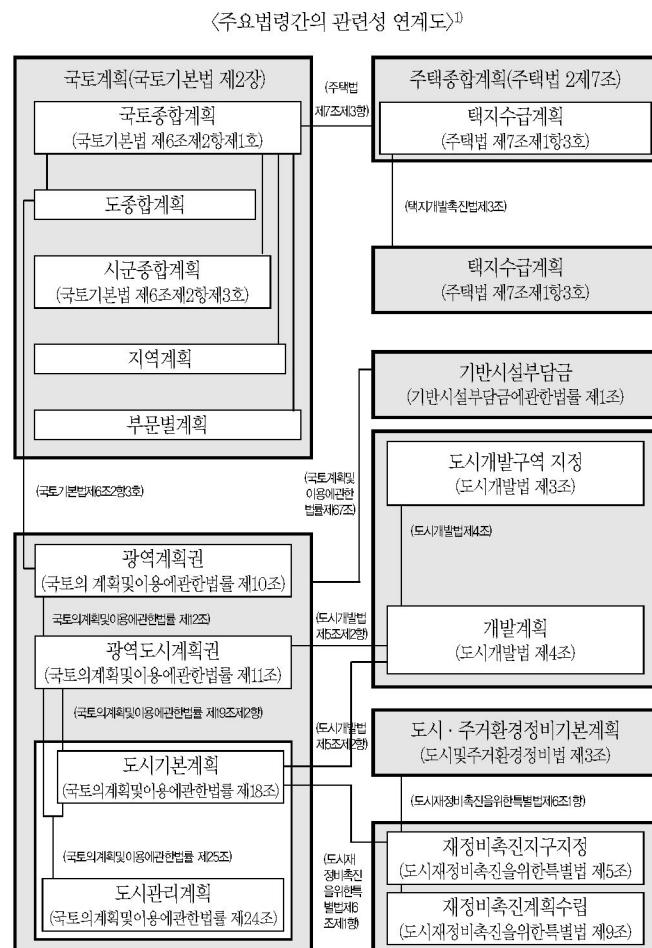
있어서 법령의 적용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살펴보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볼 때 무엇보다도 먼저 관련 법령들이 제정된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개별에 관련된 법령 중 국토 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살펴봄과 아울러 이외에도 학교용지화 보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의 관련법령 중 학교신설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학교용지화보등에 관한특례법과 공익 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법률의 제정목적을 살펴보면 앞의 표에서와 같이 개별 법의 취지에 따라 국토의 건전한 발전, 국민의 복리향상, 福祉向上, 공공복리의 증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민民居生活의 安定, 주거생활의 질 향상, 쾌적한 都市環境의 造成, 도시의 균형발전, 도시환경 개선 등과 같이 매우 유사한 의미를 지닌 용어를 중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각각 법률은 상호간에 매우 높은 연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법령들 간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주요 법령별 제정목적              |   |
|--------------------------|---|
| 법령명                      | 제정목적  |
| 국토기본법                    |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험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택지개발촉진법                  | 이 法은 都市地域의 時急한 住宅難을 解消하기 위하여 住宅建設에 필요한 宅地의 取得·開發·供給 및 管理등에 관하여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國民民居生活의 安定과 福祉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 도시개발법                    | 이 法은 都市開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計劃의이고 體系의인 都市開發을 도모하고 쾌적한 都市環境의 造成과 公共福利의 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학교용지화보등에관한특례법            | 이 法은 公立의 初等學校·中學校 및 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라 한다)用 學校用地의 造成·開發·供給 및 관련 경비의 부담등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4)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본 그림에 제시된 법령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기본법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국토기본법 제6조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 ②..... 1.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세시하는 종합계획 ..... 3. 시군종합계획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 .....

주택법 제7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 주택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3. 주택 · 택지의 수요 ·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③주택종합계획은 .....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

택지개발촉진법 第3條 (豫定地圖의 지정등(개정 1999.1.25)) ①건설교통부장관은 ..... 宅地票給計劃이 정하는 바에 따라 ..... 豫定地圖로指定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광역도시계획에는 ..... 당해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②광.....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①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반시설부담금) ..... ②.....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第3條 (都市開發區域의 지정 등) ①特別市長 ·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第4條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第3條의規定에 의하여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하는 者.....는 ..... 都市開發區域에 대한 都市開發事業의 計劃.....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第5條 (개발계획의 내용) ..... ②「..... 開發計劃의 내용이 당해 廣域都市計劃 또는 都市基本計劃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시 · 도지사는 .....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①시 · 도지사는 .....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 도시기본계획과 「.....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시장 · 군수 · 구청장은 .....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 ·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반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타 법령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 작용법령별 학교시설의 소속

학교시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대상으로 다른 기반시설과의 비교를 통하여 학교시설이 지니고 있는 법령상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 주요 관계법령에서 학교시설의 위치

| 법령                              | 주요시설                                   | 기타 시설 |    |     |    |    |    |          |    |    |          |
|---------------------------------|--|-------|----|-----|----|----|----|----------|----|----|----------|
|                                 |  | 도로    | 수도 | 하수도 | 학교 | 공원 | 녹지 | 폐기물 처리시설 | 철도 | 항만 | 기타 시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반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시설                                   | ○     | ○  | ○   | X  | ○  | ○  | X        | ○  | ○  | ...      |
|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에 관련된 시설                    | ○     | ○  | ○   | ○  | X  | X  | X        | X  | X  | ...      |
| '도시 개발 법'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의 기반시설                 | ○     | ○  | ○   | ○  | ○  | ○  | ○        | X  | X  | ...      |
|                                 | 기반시설 <sup>2)</sup>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시설                                   | ○     | ○  | ○   | X  | ○  | ○  | X        | ○  | ○  | ...      |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 제12조제1항에서의 공공시설 <sup>3)</sup>          | ○     | ○  | ○   | ○  | ○  | ○  | ○        | ○  | ○  | ...      |
|                                 | 기반시설 <sup>4)</sup>                     | ○     | ○  | ○   | ○  | ○  | ○  | ○        | ○  | ○  | ...      |
|                                 | 제28조제1항에서의 기반시설 <sup>5)</sup>          | ○     | ○  | ○   | X  | ○  | ○  | X        | ○  | ○  | ...      |
| '택지 개발촉진법' 및 시행령                |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시설 <sup>6)</sup>          | ○     | ○  | ○   | ○  | ○  | ○  | ○        | ○  | ○  | 공공 청사 등  |
|                                 | 공공시설용지에 설치되는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시설 <sup>7)</sup>                     | ○     | X  | X   | ○  | ○  | X  | X        | X  | X  | 공용의 청사 등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서의 정비기반 시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시설 | ○     | ○  | ○   | ○  | ○  | X  | ○        | ○  | ○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서의 정비기반 시설        | ○     | ○  | ○   | X  | ○  | ○  | X        | X  | X  | ...      |

2) '도시개발법 제2조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도시개발법에서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과 동일하다.(단, 특별히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3) '도시개발법 제12조(도시개발사업의 위탁 등)'에서 '시행자는 항만 · 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0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따라서 주요법령간의 관련성 연계도에서 알 수 있듯이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의 8개 법령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대적으로 타 법보다 상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법령에서의 학교가 공공시설이 아닌 기

는 공공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4)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기반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정의.
- 5)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서는 동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공공시설을 말한다."라고 하여 최소한 이 조항에서는 기반시설이 공공시설을 의미함을 명시하고 있다.
- 6)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원칙)」에서 '용적률 또는 건축률의 높이는 …… 원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종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과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로 명시하고 있다.
- 7)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의2제5항제2호에서는 '도로 · 학교 · 공원 · 공용의 청사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라고 하고 있는 등 본 법령의 여러 부분에서 학교가 공공시설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택지개발촉진법에서의 공공시설」부문 참조)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기반시설로 학교는 도로, 수도, 하수도, 공원,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철도, 항만 등과 같이 기반시설로 되어 있으나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이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동 법률에서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시설로 지역의 생활환경에서 필수적인 시설인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시설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과 관련되는 시설로 분류하여 이 4가지 시설의 용량에 따라 개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교대상 9개 시설 중 철도, 항만을 제외한 7개 시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설로써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공공시설용지에 설치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기반시설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녹지를 제외한 8개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서의 정비기반시설로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철도, 항만을 제외한 5개 시설이 해당된다.

상기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로, 수도, 하수도는 5개의 법령 모두에 해당되며, 학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공시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정비기반시설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나머지 개발행위와 관련된 주요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도시기능의 회복」, 「주거환경이 불량한 기존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할 때 학교의 경우와 같이 학령인구의 증가를 급격하게 초래하는 시설과의 연계성이 약하므로 사실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공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 공공시설로서의 학교시설 활용 사례(학교공원)

### 학교공원의 개념

학교공원이란, 학교와 공원이 인접 또는 동일부지 내에 병합하여 배치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와 공원 사이에는 담장, 도로 등 어떠한 경계도 없으며 두 시설이 상호 복합되어 있다. 즉 학교공원 내에 주민편의 및 문화시설, 사회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 및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의 일환이다.

학교시설과 공원시설의 복합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1) 우선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와 공원이 서로의 시설을 공유하는 것으로 학교의 학생들이 공원의 시설이나 자원을 이용하여 현장학습을 할 수 있다. 2) 지역주민은 공원시설뿐만 아니라 학교의 여러 가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시설간의 상호복합화란 공간적 복합, 기능적 복합, 관리 운영적 복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교공원의 배치형태는 다음과 같이 3종류로 분류된다.

- ① 기존 공원 또는 인접부지에 학교 설치
- ② 기존 학교 또는 인접부지에 공원 설치
- ③ 동일부지에 학교와 공원을 동시에 설치

### 학교공원의 필요성

학교는 통학거리와 취학인구를 고려하여 도시의 기간시설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학교가 교육의 장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현대에 와서는 학교가 지역사회 중심의 장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의 모든 시설은 지역사회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시범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환경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고 있지만 교육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대안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학교공원(school park)제도이다. 이 제도는 도시의 기간시설로 배치되는 공원과 학교가 병합해서 배치되는 것으로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교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중앙공원과 함께 배치하는 제도이다. 이는 도시에서 지가상승으로 충분한 공원과 교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고안한 절충안으로 우리 현실에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학교는 교육시설 기준령에 따라 시설이 구비되므로 어느 정도 최저 운동 및 학습공간은 마련되나 교재원 등 학습시설이 대부분 부족하고 소음에 시달린다. 또 공원은 대부분 구릉지에 배치되므로 운동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학교와 공원을 인접해서 배치시키면 상호 보완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공원 안에 학교가 배치됨에 따라 학교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교를 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이중 시설투자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관리상의 문제점은 학교에 위탁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금후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 도시환경과 학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나 이 같은 학교공원제도의 도입이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 및 정책 전문가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학교공원의 역할

#### 보다 좋은 교육환경

학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의 교육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학교교육은 지·덕·체의 전인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식 전달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장래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전인교육을 시키는 환경조성이 절실했던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공원은 지식전수도 암기·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실물을 관찰하고 직접 참여하여 재미있게 터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또한 튼튼한 체력만이 앞으로 닥칠 험한 사회생활의 가장 값진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뛰어 놀 수 있는 놀이·운동 환경의 제공도 학교공원의 역할이다.

- ① 교과서에 언급된 동·식·광물 등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소동  
식물원 및 실물 교육장
- ② 조상의 슬기를 배울 수 있는 사당
- ③ 학생들이 즐겁게 뛰어놀며 체력을 다질 수 있는 운동 공간

#### 사회교육시설 확충

학교시설은 대부분 제한된 시간에만 이용되고 있다. 지역사회 입장에서 보면 학교시설은 매우 귀중한 사회적 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은 일별, 주별, 월별, 년별로 상당기간이 유휴시설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시설이 제한적인 특정시간대에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갖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학교설정으로는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 많은 제약점이 있지만 학교와 공원을 복합화하면 학교가 순수교육기능과 지역사회기능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다. 즉 문화관련시설, 체육관련시설, 교육관련시설 등 평생교육 및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등의 정비가 용이하다.

- ① 학교시설 복합화
- ② 학교 개방
- ③ 학교 공원화

#### 지역주민의 활동과 휴식의 장소

학교공원의 푸른 숲과 오픈 스페이스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레크리에이션활동, 건강운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의 거점이 된다. 즉 1)어린이와 지역주민에 의한 식수 등 시민이 참여하여 학교공원을 정비한다. 2)지역주민의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의 장소로서 건강유지 및 증진에 기여한다. 3)연령에 관계없이 자연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한다. 또한 지역주민은 학교공원의 정비·관리 및 녹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① 주민쉼터
- ② 건강을 위한 운동 활동
- ③ 평생교육의 장
- ④ 지역주민참가의 학교공원 꾸미기 운동

#### 도시의 안전성 향상

화재, 대설, 홍수, 지진 등 위험성이 높은 밀집시가지에서는 재해시의 피난지, 피난로, 연소방지, 복구·부흥의 거점이 되는 방재공원의 정비가 필요하다. 학교공원은 방재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 즉 1)주변지역으로부터 피난자를 수용하여, 시가지 화재 등으로부터 피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광역 피난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2)구조 활동을 위한 다목적 광장을 설치하여 소방, 구호, 복구·부흥의 거점이 된다.

- ① 피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학교공원
- ② 소방·구원활동의 거점이 되는 학교공원

#### 지역 활성화

중심 시가지에 적극적으로 학교공원을 설치하는 것은, 그 지방의 전통문화 보존,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육성, 지역간의 교류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즉 1)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농업 체험 등과 같은,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한다. 2)학교공원 내에 그 지방의 전통 문화 및 상징물을 복원하여, 관광·교육의 중심지로 한다. 3)학교공원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중심 시가지에 설치하여 공원·녹지공간으로 활용한다.

- ① 자연 자원의 활용
- ② 중심 시가지 활성화
- ③ 역사적 자원의 활용

#### 양호한 도시환경을 제공

지구 온난화 방지, heat Ireland 현상의 완화, 다양한 생물 보존 등은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들의 해결책은 도시 공원의 정비, 녹지 보존, 녹화 추진 등을 통하여 도시에 무성한 숲과 오픈 스페이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학교공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교육의 장소, 또는 실천학습의 장소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1)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새로운 학교공원을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창출한다. 2)학교건물의 옥상녹화를 진행하는 것에 의하여, heat Ireland 현상을 완화한다.

- ① 새로운 학교공원사업 추진
- ② 도시 녹화 추진

#### 학교공원의 외국(일본名古屋市) 사례

일본 나고야시(名古屋市)에는 시립초등학교가 259교 있으며, 이들 중 약 40%에 해당하는 109교가 공원에 인접해 있다. 또한, 학교와 공원사이에 도로나 담장 등의 경계가 없이 학교와 공원을 일체화

하여 계획·정비한 학교공원은 전부 8개교이다.

※ 참조 : 본 원고의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연구 “학교설립 관련 법령의 분석 및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의 일부를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

#### 일본 나고야시(名古屋市)의 학교공원

| 설치년도     | 위치(구) | 초등학교<br>(공원)        | 교지면적<br>공원면적 (m <sup>2</sup> ) | 학교공원<br>면적 | 교지면적<br>공원면적 (m <sup>2</sup> ) |
|----------|-------|---------------------|--------------------------------|------------|--------------------------------|
| 1983년    | 名東    | 平和が丘 초등학교<br>(平和공원) | 12,128<br>95,000               | 8,200      | 4,720<br>3,480                 |
| 1984~87년 | 守山    | 大森北 초등학교<br>(雨池공원)  | 13,196<br>11,700               | 17,600     | 7,600<br>10,000                |
| 1985년    | 東     | 矢田 초등학교<br>(矢田공원)   | 11,778<br>4,400                | 9,100      | 4,800<br>4,300                 |
| 1986년    | 西     | 榎초등학교<br>(榎공원)      | 5,771<br>3,700                 | 5,582      | 1,880<br>3,702                 |
| 1989년    | 北     | 楠西 초등학교<br>(會所공원)   | 9,809<br>2,500                 | 8,100      | 5,600<br>2,500                 |
| 1990년    | 天白    | 大坪 초등학교<br>(植田大坪공원) | 10,502<br>7,100                | 12,300     | 5,400<br>6,900                 |
| 1991~92년 | 千種    | 見付 초등학교<br>(見附공원)   | 14,556<br>7,300                | 8,000      | 7,300<br>700                   |
| 1992년    | 西     | 浮野 초등학교<br>(横井공원)   | 11,690<br>2,400                | 8,300      | 5,900<br>2,400                 |
| 합계       |       | 8개 초등학교, 8개 공원      |                                |            |                                |

## 결 론

### 학교설립 관련 법령의 개정 방안 추진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학교를 기반시설로만 규정하고, 공공시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학교는 공원, 도로 등과 같이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공시설이라 할 수 있다.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위치에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남은 부분에 학교를 배치됨에 따라 부적절한 곳에 학교가 위치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돌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설립 관련 법령의 개정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교육청내에 교육환경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개발계획이 지역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간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환경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각종 개발시에는 의무적으로 개발계획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서 교육환경이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악화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학교시설 복합화의 활성화

공공시설로서의 학교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공원 등과 같은 학교 복합화 사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복합화 사업에 대한 외국의 선진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학교공원 등과 같은 학교복합화 사업을 혁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회소식\_kira news

이사회

■ 제7회 이사회

2007년도 제7회 이사회가 지난 7월 18일 오후 4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가칭)설계심사원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의 건, 시.도건축사회 표준회칙(안) 승인의 건, 시.도건축사회 회칙(안) 승인의 건,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발간계획 승인의 건이 논의되었고, 협의사항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안)에 관한 건, 정회원(월정)회비 장기미납회원 징계처리에 관한 건, 협회 홍보대사 위촉 운영에 관한 건,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가칭)한국건축사협회 설립추진 대책에 관한 건, 회의참석비 개선에 관한 건, 설계자 표시제도 시행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가칭)설계심사원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의 건
  - (가칭)설계심사원 설립·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행키로 함.
- 제2호의안 : 시.도건축사회 표준회칙(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정관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부분(제4조제3항제2호, 제8조 제2항 등)에 대해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수정키로 함.
- 제3호의안 : 시.도건축사회 회칙(안) 승인의 건
  - 정관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삭제·수정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다만, 인천 및 제주건축사회의 경우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대한 부분을 회칙상에 명시하는 것을 허용하나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하기로 함.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나 비용부담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에는 본협회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제4호의안 :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발간계획 승인의 건

-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발간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되, 필요예산은 목간전용을 하지 아니하고 법제도개선사업비 내에서 지출키로 함.
-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발간은 회계절차상 홍보·편찬위원회에서 담당키로 하고, 서초구건축사회 연구진에서 원고를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키로 함.

▲협의사항

- 제1호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안)에 관한 건
  - 법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지급기준요율을 협회의 의견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호 : 정회원(월정)회비 장기미납회원 징계처리에 관한 건
  - 협회의 정회원(월정)회비를 예년과 같이 5년(60개월) 이상 미납한 회원을 제명도록 하되, 회비수납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마련하기로 함.
- 제3호 : 협회 홍보대사 위촉 운영에 관한 건
  - 협회 홍보대사 제도는 회장 임기내에서 자율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세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여 추후 이사회에 상정키로 함.
- 제4호 :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회의를 7월 26일 16시에 개최하여 대처방안, 세부예산 집행계획 등을 논의키로 함.
- 제5호 : (가칭)한국건축사협회 설립추진 대책에 관한 건
  - 좀 더 충이를 지켜본 후에 논의키로 함.
- 제6호 : 회의참석비 개선에 관한 건
  - 회의참석비 중복 지급문제는 협회예산, 타단체 사례 등을 좀 더 검토한 후 관련 규정 개정여부를 논의키로 함.
- 제7호 : 설계자 표시제도 시행에 관한 건
  - 기획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추후 논의키로 함.

## 위원회 개최 현황

### ■ 제1회 공제사업소위원회(손해배상공제 실무기준마련 소위원회)

제1회 공제사업소위원회(손해배상공제 실무기준마련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손해배상공제 실무기준 마련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손해배상공제 실무기준 마련에 관한 건  
– 손해배상공제 실무기준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각 위원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실무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차기 위원회를 '07. 7. 19. 17시에 개최키로 함.

#### ▲기타사항

- 손해배상공제업무를 통해 설계도면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설계 견실화를 추구함.
- 손해배상공제의 요율 책정 시 기준을 다양으로 검토함(예컨대 용역비, 총공사비, 공사면적 등에 따라 배상액과 요율이 달라질 수 있음).
- 현재는 손해배상의 문제를 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손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비자의 사용부주의에 따른 피해, 예컨대 소비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타일을 깔도록 설계된 도서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등 소비자의 인식이 변하고 있음에 유의.

### ■ 제2회 공제사업소위원회(손해배상공제 실무기준마련 소위원회)

제2회 공제사업소위원회(손해배상공제 실무기준마련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손해배상공제 실무기준 마련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손해배상공제 실무기준 마련에 관한 건  
– 설계 · 감리 견실화를 위한 손해배상공제업무 실무기준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검토 마련키로 함.

#### ▲기타사항

- 건축사사무소지원의 수준향상 및 능력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차원에서 직원의 설계능력 등급제를 인정하여 설계 견실화를 추구하는 방안도 고려(선진국에서는 설계능력에 등급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 제2회 공제사업소위원회(운영세칙마련 소위원회)

제2회 공제사업소위원회(운영세칙마련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제사업 운영세칙(안)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공제사업 운영세칙(안)에 관한 건  
– 제41회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공제규정(안)과 업무세칙 초안에 대해 위원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 · 협의하여 규정(안) 및 업무세칙(안)을 정리함.

#### ▲기타사항

- 출자증권의 증자 및 감자에 대한 구체적인 세칙마련
- 공제규정 및 각 세칙에 대한 신 · 구(안) 비교 검토

### ■ 제3회 공제사업소위원회(운영세칙마련 소위원회)

제3회 공제사업소위원회(운영세칙마련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제규정(안) 및 업무세칙(안)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공제규정(안) 및 업무세칙(안)에 관한 건  
– 공제사업소위원회(운영세칙마련)에서 1차 심의한 공제규정(안) 및 업무세칙(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확정하고, 일부 미협의된 사안은 공제사업 전체위원회에서 검토 · 보완하기로 함.

#### ▲기타사항

- 공제사업 전문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세칙 초안을 수정 · 보완하도록 함.
- 출자증권의 증자 및 감자에 대한 타단체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세칙 초안을 수정 · 보완 하기로 함.
- 손해배상공제청약서 접수시 이미 착공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 감리용역 무하자 증명원을 요구하는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의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함.
- 공제사업팀 직원을 추가 배정하여 사업시행의 신속을 도모하고, 사업시행 전부터 위원회와 연계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함.

### ■ 제3회 법제소위원회(질의회신)

제3회 법제소위원회(질의회신) 회의가 지난 7월 1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표준계약서(설계, 공사감리, 공사) 개정에 관한 건과 건축법령 해설집 발간계획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표준계약서(설계, 공사감리, 공사) 개정에 관한 건  
– 표준계약서 대비표(현행, '05~'06년 법제위원회 검토안, '07년 법제위원회 검토안)를 사무처에서 작성하여 법제위원회 회의실에 올리면, 각 위원은 검토 의견을 7월 18일까지 올려주기로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취합정리하여 다음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계약서를 활용하는 방법 등의 교육이 필요한바, 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법령 해설집 발간계획에 관한 건  
– 발간계획(과업계획서)에 대하여 박준승 부위원장이 정리하기로 함.
- 광고에 대하여는 홍보·편찬위원회(신문, 건축사지 광고), 정보위원회(홈페이지 광고)에 협조요청하기로 함.

#### ■ 제4회 법제소위원회(질의회신)

제4회 법제소위원회(질의회신) 회의가 지난 7월 16일 서초건축사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법령 질의회신 작성 일정 및 과업내용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법령 질의회신 작성 일정 및 과업내용에 관한 건
  - 10월 1일 발간을 목표로 8월 초까지 서초 건축사회 연구진에서 정리, 선별, 워드 작성을 하고, 합동회의(건설교통부, 법제위원회, 서초건축사회 연구진)를 통해 감수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함.
  - 원고작성에 대한 점검에 대해 위원들이 나누어 확인하기로 함.
  -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감수비, 회의비, 광고료 등을 조정하기로 함.

#### ■ 제3회 법제소위원회

##### (주택건설공사감리)

제3회 법제소위원회(주택건설공사감리) 회의가 지난 7월 1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대가 요율에 관한 건, 건기법 건축사법을 위배되게 운영하는 문제에 관한 건, 감리제도 연구용역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대가 요율에 관한 건

–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회의에서 조문별로 검토하여 우리협회 안을 건교부에 제출하기로 함.

- 제2호 : 건기법 건축사법을 위배되게 운영하는 문제에 관한 건

– 건기법이 건축사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유종희 위원)한 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감리제도 연구용역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한 건

–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제4호 : 기타사항

– 감정업무에 대해 논의함

#### ■ 제4회 법제소위원회

##### (주택건설공사감리)

제4회 법제소위원회(주택건설공사감리) 회의가 지난 7월 1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관한 건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대해 논의함.

#### ■ 제5회 법제소위원회

##### (주택건설공사감리)

제5회 법제소위원회(주택건설공사감리) 회의가 지난 7월 1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건설공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주택건설공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에 관한 건
  - 건기법의 책임감리업무 수행지침서를 그대로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 기준에 반영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바, 건교부의 개정안에 대한 부분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현행기준을 근거로 우리협회 안을 마련하여 건교부에 제출하기로 함.

의견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현행기준을 근거로 우리협회 안을 마련하여 건교부에 제출하기로 함.

#### ■ 제2회 법제소위원회(조사검사업무)

제2회 법제소위원회(조사검사업무) 회의가 지난 7월 1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제도 연구용역계획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제도 연구용역계획에 관한 건
  - 연구용역기관에 대하여 논의 함.
- 제2호 : 기타사항
  - 지방회원의 회의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화상회의시스템의 도입을 건의함.

#### ■ 제6회 법제위원회

제6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제위원회 추진업무 점검 및 향후 계획에 관한 건,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법제위원회 추진업무 점검 및 향후 계획에 관한 건
  -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 개선 연구 용역
  -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제도 개선 연구 용역
  - 감리제도 개선 연구 용역
  - 건축법령 질의 회신집 발간
  - 주택법 공사감리제도 개선 방안 및 감리 대가 기준
  - 일본 건축기본법 및 건축사법 번역
  -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계약서/공사계약서의 표준화
  - 협회 규정 및 회칙 제정 및 개정
  - 감정업무에 관한 건
  -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법제처 법령개정내용에 대한 요일별 모

## 나터링

- 법원감정 업무, 계약방법 등을 건축사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시험위원회 공동 추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함.
- 지난 4월20일 법제위원회 워크숍의 의견 중 다음의 과제는 후반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함.

### • 제2호 : 기타사항

-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검토 협의한 바 현 법제도 개선사항을 감당하기 어려 우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하고, 또한 우리협회의 사무처 인력만으로는 현재의 법제위원회의 업무를 처리 할 수 없음에 공감하고 사무처 인원의 보강을 재차 건의하기로 함.
- 법제도 관련 각 개별사안에 대한 지속적 인 연구 및 대응을 위하여 법제위원회가 관할하는 별도의 각 분야별 5~7인으로 구성하는 7개 정도의 전문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함.
- 건축을 전공한 사무처 연구원 각 분야별 3~5인조의 7개팀운영 요청

## ■ 제5회 법제소위원회(회칙 및 규정)

제5회 법제소위원회(회칙 및 규정) 회의가 지난 8월 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문화신문 및 건축사지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문화신문 및 건축사지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
  - 건축문화신문 및 건축사지 편찬 관련자 와의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건축문화신문 및 건축사지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논의함.
- 제2호 : 기타사항
  - 외부 관련 규정 및 사례들을 좀 더 확보하여 검토기로 함.

## ■ 제3회 홍보·편찬소위원회

제3회 홍보·편찬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대장정 추진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대장정 추진에 관한 건
  - 송일영 위원을 건축대장정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정함.
  - 각 위원별로 권역별 건축대장정 코스(루트)계획서를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행사방법 및 내용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 제4회 홍보·편찬소위원회

제4회 홍보·편찬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대장정 추진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대장정 추진에 관한 건
  - 건축대장정 추진과 관련해 결정하며, 차기 전체 홍보편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기획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기로 함.

## ■ 제3회 교육·시험위원회

제3회 교육·시험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도 건축사 연수교육 프로그램(안)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7년도 건축사 연수교육 프로그램(안)에 관한 건
  - 7. 27(금)까지 2007년도 건축사 연수교육 강사(안)을 확정하기로 함

## • 제2호 : 건축사 계속교육 프로그램(안)에 관한 건

- 건축사법 개정안에 법제위원회를 거쳐 건의하기로 한 내용
- 계속교육 이수단위를 임의단위, 시간, 학점 중에 한가지로 통일할 필요 있음.
- 시·도 건축사회별로 실시할 수 있는 자생적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함

## • AIA 계속교육 및 APEC 등록건축사 교육 등을 앞으로 협회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제3호 : 연수교육 설문에 관한 건
  - 참여율 저조로 7. 27(금)까지 2주간 설문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그 결과를 2008년도 연수교육시 반영하기로 함.

## ■ 제1회 UIA PPC 회의 집행위원회

제1회 UIA PPC 회의 집행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강사 섭외에 관한 건, 환영 만찬(Welcome Reception) 장소에 관한 건, 10월 4일 저녁 만찬 장소에 관한 건, 환송 만찬 장소에 관한 건, 건축물 탐방장소(청계천 문화관, 삼성 리움 미술관 등)의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강사 섭외에 관한 건
  - '07.10.2일 개최되는 특별강연시(건축의 날 행사내용중 일부) UIA PPC 공동위원장인 주양 웨이민(ZHUANG Weimin)을 초청하여 특별강연 한 꼭지를 맡기기로 함.
- 제2호 : 환영만찬(Welcome Reception) 장소에 관한 건
  - '07.10.3일 개최예정인 환영만찬은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18:00부터 ~20:00 까지 개최기로 함.
- 제3호 : 10월 4일 저녁 만찬 장소에 관한 건
  - '07.10.4일 저녁 만찬 장소는 100여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전통 한정식 식당을 섭외하기로 함(예 : 삼청각).
- 제4호 : 환송 만찬 장소에 관한 건
  - '07.10.5일 개최예정인 환송만찬은

COEX에서 개최되는 전국건축사대회(건축사의 밤) 참석한 후 COEX에서 진행하기로 함.

- 제5호 : 건축물 탐방장소(청계천 문화관, 삼성 리움 미술관 등)
  - 건축물 탐방장소는 청계천 → 종묘 → 국립중앙박물관의 코스 등을 임창복 위원이 검토기로 함.
  - 종묘에 관한 설명은 경기대 김동욱 교수님께 요청하기로 함.

## ■ 제2회 UIA PPC 회의 집행위원회

제2회 UIA PPC 회의 집행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10월 3일 환영 리셉션 참석자에 관한 건, 10월 4일 저녁 만찬 참석자에 관한 건, 10월 5일 환송 만찬 참석자에 관한 건, 2007 UIA PPC 회의 준비계획(안)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10월 3일 환영 리셉션 참석자에 관한 건
  - '07년 10월 3일 환영 만찬 계획을 수정하여 간단한 각테일 파티수준으로 진행하고 행사참석자는 약 90명 정도로 예정기로 함.(PPC 참석자 : 50명, 사협회 : 20명, 가협회 : 10명, 학회 : 10명)
- 제2호 : 10월 4일 저녁 만찬 참석자에 관한 건
  - '07년 10월 4일 저녁 만찬은 예산에 맞추어 외빈(PPC 참석자 : 50명) 위주로 전통 한정식 식당을 섭외하기로 함. (삼청각 가예악)
- 제3호 : 10월 5일 환송 만찬 참석자에 관한 건
  - '07년 10월 5일 개최예정인 환송만찬은 COEX에서 개최되는 전국건축사대회(건축사의 밤)에 참석하여 진행하기로 한 바, 건축의 날 집행위와 상의하여 당일 행사 프로그램 중에서 PPC 외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함.
- 제4호 : 2007 UIA PPC 회의 준비계획(안)의 건

- 가능한 한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를 준비하기로 함.

### ▲ 기타사항

- 투어프로그램 중 청계천 문화관 방문은 취소하고 대신 청계천 광장-종묘-국립중앙박물관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함.
- 청계천 소개는 서울시 또는 청계천 문화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반도록 하고 종묘 소개는 김동욱 교수, 중앙박물관은 황철호 국제위원이 담당하기로 함.
- 이옥화 위원이 배우자 프로그램, 명찰 디자인, 전통 한정식 식당 섭외를 담당하기로 함.

## ■ 제6회 여성건축사위원회

제6회 여성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3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성건축사위원회 사업계획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여성건축사위원회 사업계획에 관한 건
  - 구인, 구직관련 인력 네트워킹 구축
    - >건축사 구인, 구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협회 홈페이지상의 구인, 구직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함
  - >구인, 구직자의 겸종방법 및 대체 수요 현황 실태조사
  - 예비 건축사 대상 건축사 바로 알리기 및 입회 활동 촉진
  -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건축문화 프로그램 운영
  - 협회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건축관련 단체 및 공직자와의 정기 세미나(간담회)를 1년에 한번정도 개최
  - >타 분야와의 교류를 통한 홍보활동
- 제2호 : 기타사항
  - 2008년 여성건축사대회 개최지는 서울에서 하기로 결정함
  -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와 연계 키로 함

## ■ 제9회 기획위원회

제9회 기획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정책기획과제 업무분장의 건, (가칭) 국제건축통신원' 제도 운영에 관한 건, 전문 위원회 구성 운영방안에 관한 건, 대외협의회 설치·운영방안에 관한 건, 건축사지 및 건축문화신문 운영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위원회 정책기획과제 업무분장의 건
  - 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기획과제 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 위원별 업무분장(안)에 대해 과제별 담당위원을 정함.
- 제2호 : '(가칭)국제건축통신원' 제도 운영에 관한 건
  - 금번 회의 자료로 첨부된 '(가칭)국제건축통신원' 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이 국제위원회(민규암 위원)에 스크린을 받은 자료가 아닌 사무처 내부적으로 작성되어 올라온 자료임을 감안, 정확한 자료출처와 작성자에 대한 확인 작업 후 국제위원회를 통해 차기회의에 상정도록 함.
- 제3호 :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방안에 관한 건
  - 본 건에 대해서는 법제위원회로 회부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 데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이끌어 나가도록 함.
- 제4호 : 대외협의회 설치·운영방안에 관한 건
  - 차기회의에 논의기로 함.
- 제5호 : 건축사지 및 건축문화신문 운영에 관한 건
  - 위 안건에 대해서는 편집·출판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차기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함

### ▲ 기타사항

- 기타사항 안건 1~6호 차기회의에서 논의 키로 함

- 몽골 건축사협회 방문 경과보고(한명수 회장)
- 협회 사무처 업무 개선 건
- 차기회의는 오는 8월 7일 오후 5시 회의실 (임원실)

## ■ 제10회 기획위원회

제10회 기획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7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대외협의회 설치·운영방안에 관한 건, 남·북건축문화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대외협의회 설치·운영방안에 관한 건
  - ‘민관 건축협의회’와 ‘여의건축 포럼’을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소요예산은 홍보사업비내 법제도개선사업 대외협력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함.
  - 건축단체통합 문제를 논의하여 온 회의체인 ‘건축단체교류협정통합 간담회’는 한국건축사협회 창립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중단하고 ‘건축문화포럼’으로 변경하여 운영키로 함.
- 제2호 : 남·북건축문화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건
  - ‘남북건축문화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사회(제8회, 8/21)에 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키로 함.

### ▲기타사항

- 건축문화신문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관련 대처에 관한 사항

## ■ 제6회 회관건립백서발간위원회

제6회 회관건립백서발간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관 건립백서 발간에 관한 건과 기

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회관 건립백서 발간에 관한 건
  - 건립백서 발간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변경 계약서 작성률 검토키로 협의함.
- 제2호 : 회관 다목적실 용도변경에 관한 건
  - 우슬재건축에서 보내온 공사견적서를 검토한 후, 장애인시설 보완공사, 스프링클러 설치 및 중앙연단 방염처리공사를 실시키로 협의함.
  -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 보완시설 지적사항 법적근거를 확인키로 협의함.

### ▲기타사항

- 대한건축사회관 웹페이지에 페백실 민원이 발생하여 웹페이지 페백실 사용공간을 바꾸기로 협의함.

## ■ 제6회 국제위원회

제6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8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위원회 활동 강화 방안에 관한 건, 제14차 아카시아 포럼 참가 준비에 관한 건,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준비 현황에 관한 건, 제11차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개최에 관한 건, 네덜란드 건축문화원 및 미국건축사협회와의 교류 추진에 관한 건,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에 관한 건, 해외 건축통신원 운영 방안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국제위원회 활동 강화 방안에 관한 건
  - 그간 국제행사에 집중했던 국제위원회의 업무를 본 협회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개최시 국제위원회 활동보고 및 각 위원회 간 정보 교환을 통해 국제위원회의 활동을 강화, 증진하기로 함.
- 제2호 : 제14차 아카시아 포럼 참가 준비에 관한 건
  - 당초 계획된 대표단(8인)과 아카시아 임

원(4인)이외에 국제위원회의 국제행사에 대한 전문을 넓히고 경험을 쌓기 위해 참석 가능한 국제위원회(6인 : 강정삼, 김성민, 민규암, 이성란, 오근석, 정재욱)이 본 협회의 추가예산 없이 경비를 분담하여 참가하기로 함.

- 제3호 :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준비 현황에 관한 건
  - 제1회 조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고 신춘규 국제위원회 위원장이 제1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ACA-13 기획 분과위원회에 국제위원회들이 참여하여 지원하기로 함.
- 제4호 : 제11차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개최에 관한 건
  - ‘07. 11.12~15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1차 한중일 건축사협의회의 회의 주제는 지난 회의시 협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정함.

- 제5호 : 네덜란드 건축문화원 및 미국건축사협회와의 교류 추진에 관한 건
  - 네덜란드 건축문화원(NAI)과의 교류는 3인(심재호 이사, 신춘규 국제위원장, 조종기 법제위원장)의 대표단이 상호교류 사전실무협의 차원에서 네덜란드를 방문('07. 8. 26 ~ 8. 30)하기로 함.
- 미국건축사협회와의 교류 방안은 우선적으로 FIKA 실무회의(본 협회 심재호이사 참석)에서 한국건축가협회와 미국건축사협회 사이에 체결한 협정관계를 검토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접근 방향을 논의하기로 함.

- 제6호 :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에 관한 건
  - 한-미 FTA의 경우, 건교부에서 앞으로 진행할 용역업무를 본 협회에서 맡을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본 협회 용역 시 국제위원회에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로 함.
  - 한-미 FTA의 실질적인 대응방안은 심재호 이사가 건교부와의 협의 진전 사항을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에 상정하기로 함.
- 제7호 : 해외 건축통신원 운영방안에 관한 건
  - 민규암 의원이 초안을 제시하고, 합의된 국제위원회 제시 안.

## 7월의 건축환경문화, '의재미술관' 선정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진애)는 허백년의 곧고 단아한 정신세계를 예술 공간으로 담아낸 '의재미술관'을 7월의 건축환경문화로 선정하였다.

현대 한국화의 대가인 의재 허백련(1891~1977)이 마지막 30여 년 동안 그림을 그리며 제자를 길러낸 춘설헌, 농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웠던 옛 농업기술학교인 삼애현, 찻집 춘설다현, 허백련 묘소, 춘설차 재배 밭과 공장 등 그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광주시 동구 운립동 무등산 기슭에 세워졌다.

특히 의재미술관은 무등산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등산로에 길게 면해 있다. "무등산의 변화하는 자연이 허백련 그림의 소재가 됐듯, 건축사도 이 미술관의 장소를 무등산으로 잡았다"고 건축선진화위는 밝혔다. 건축사는 찾아온 이들이 건축과 미술과 자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미술관의 안팎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곳에선 2층 전시실의 허백련의 그림, 2

층 적삼목판재 외벽에 투영된 주변 수목의 모습, 1층 유리면을 통해 보이는 자연 등 세 가지 한국화를 맛볼 수 있다. 김일현 경희대 교수는 "허백련은 화선지에 그렸고, 건축사는 외벽에 그렸으며, 관람객은 마음속에 그릴 것"이라고 이 풍경을 묘사했다.

의재미술관은 조성룡(주.건축사사무소 조성룡 도시건축) 건축사와 김종규 건축사의 설계로 지난 2001년 대지 6,048m<sup>2</sup>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됐다.

## '내가 디자인하는 서울—2007 공공디자인' 시민공모 부문 공모

서울시에서는 관광객 1,200만 달성을 위해 변화하고 있는 서울의 모습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심 곳곳에서 우리 일상과 함께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공모를 위해 '내가 디자인하는 서울—2007 공공디자인 공모전(시민공모 부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응모자격 :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공공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
- 공모분야: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가로판매대
- 공모일정
- 작품접수 : 2007. 9. 10~2007. 9. 12(3

### 일간)

- 수상자 발표(예정) : 2007. 9. 18
- 시상식 : 서울시 홈페이지에 시상일정 및 개별 통보 예정

### · 응모방법

- 응모 제출물(프리젠테이션 패널-1매, 출품신청서-1매)을 등기우편, 택배 또는 방문접수 등을 통하여 다음 주소로 제출하며, 운송료는 응모자가 부담함
- 포장은 작품별 개별 포장하고,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시 12일 18시에 접수마감
- 보내실 곳 :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별관 2동 6층 공공디자인담당관
- 작품 심사 : 서울특별시에서 위촉한 각계 전문 심사위원
- 당선작 및 시상내용 : 대상(부문별 1점), 금상(부문별 3점), 은상(부문별 5점), 동상(부문별 10점), 입선(부문관계없음)
- 당선작 발표 : 서울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및 개별통보 (2007.9월17일 예정)
- 시상 : 2007년 10월 중순(예정)
- 문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시청별관2동 6층 공공디자인담당관 앞

의재미술관



## 제21회 건축사진아카데미 강좌 모집

청암건축사진연구소에서는 제21회 건축사진 아카데미(APA)를 2006년 9월 6일부터 12월 20일 까지 16주간 개최합니다. 이 강좌는 건축사진의 이론과 실기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디지털카메라와 필름카메라를 이용하여 각종 모델촬영, 현대 건축물 촬영, 전통건축물 촬영 그리고 흑백사진 작업에 이르기까지 실제 응용을 목적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건축답사를 병행하며 진행합니다.

- 기간: 2007년 9월 5일~2008년 1월 2일
-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8시 30분
- 장소: 청암건축사진연구소(서울 광진구 구의동 206-2호)
- 참가인원: 선착순 12명 내외(인원이 초과되면 화수로 나누워 진행)
- 신청방법: 온라인 입금 후 자기소개서를 이메일 발송
- 강의내용: 건축사진의 이해 / 건축을 보는 눈 / 빛과 공간의 이해 및 실기 / 건축사진과 디카, 필카의 응용 / 공간의 표현 및 실기 / 건축과 도시탐사 실기 / 자연광을 이용한 모형 촬영실기 / 인공광을 이용한 모형 촬영실기 / 각종 현대 건축물의 촬영방법 / 전통건축답사 및 촬영실기 / 흑백사진 작품의 이해 / 흑백사진의 현상 과정 실기 / 흑백사진의 인화과정 실기 / 프리젠테이션의 응용 / 포트폴리오 제작과 방법 / 종합토론 및 총평
- 문의: 석정민 011-9891-1740, [www.foto.co.kr](http://www.foto.co.kr)

## 서울도심 초고층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이번 공모전에서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초고층건축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지금 서울은 역사성을 이유로 도심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른 건물 폭제한 등의 횡일적인 규제에서 비롯된 문제점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공모가 목적이이다. 평가기준은 서울 중심이 가지는 정체성과 지리적 비전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제시하여 재생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 주제: 서울도심 내 초고층건축을 통한 도시의 정체성과 비전 확보



- 대지: 서울시 중구 관내 임의부지(권장사항: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내 임의부지)
- 참가자격: 대한민국 전국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 일정
  - ▷ 1차 원서교부 및 등록(온라인): 7월 30일(월) ~ 8월 31일(금), 6:00PM
  - ▷ 1차 작품 접수: 9월 13일(목)
  - ▷ 1차 심사/결과 발표: 9월 18일(화)
  - ▷ 2차 등록(1차 합격자에 한함): 9월 19일(수) ~ 9월 21일(금)
  - ▷ 2차 작품접수(1차 합격자에 한함): 10월 24일(수)
  - ▷ 2차 심사/최종결과 발표: 10월 25일(목)
  - ▷ 낙선작 반출: 10월 26일(금)
  - ▷ 시상식 및 전시(구 서울역사): 11월 10일(토) ~ 11월 18일(일)
- 문의: [www.convention.kia.or.kr](http://www.convention.kia.or.kr)

## 제12회 대한민국 건축사진공모전 개최

한국건축기협회에서는 건축물의 조형성과 공간에 대한 체험을 시각적으로 재현하고 공유하며, 나아가 일반인들이 건축을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건축 사진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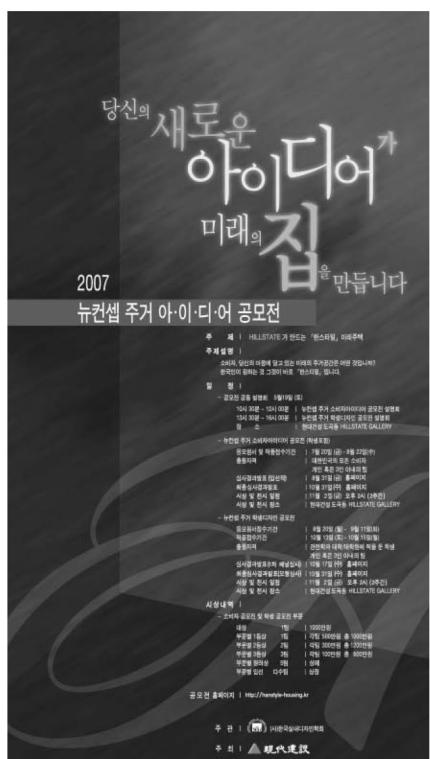
- 출품자격: 건축과 사진에 관심 있는 모든 자
- 작품주제: 기념에서 일상으로(건축, 삶을 묻다)
- 출품작품
- ▷ 작품내용: 국내외의 건축물을 소재로 한 건

## 축관련사진

- ▷ 작품규격: 장면 17"이하 사이즈
- 참가등록: 웹사이트상에서 직접 온라인 신청, 등록함
- ▷ 2007년 8월 20(월) 10시~2007년 10월 5일(금) 18시
- 작품접수: 2007년 8월 27일(월), 11:00AM ~ 2007년 10월 5일(금), 6:00PM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10월 5일 소인까지 인정)
-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17 예총회관 501호 한국건축기협회(110-765)
- 시상: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입선다수
- 문의: 02-744-8050, [convention.kia.or.kr](http://convention.kia.or.kr)

## 2007 뉴컨셉 주거 학생 디자인 공모전

“당신이 마음에 담고 있는 미래의 주거공간은 어떤 것입니까? 한국인이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스티일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현대건설과 한국실내디자인학회가 ‘한스티일과 미래주택’을 주제로 ‘2007 뉴컨셉 주거 학생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의 내용은 한국인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가까운 미래의 주거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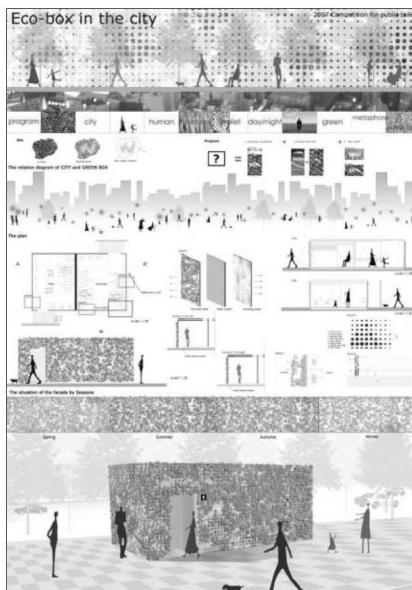


념을 제안하는 것이다. 단위주택 부문과 커뮤니티 공간 부문으로 나뉘어 열리며 2개부문 동시접수가 가능하다. 단위주택 실내공간의 다양한 영역 혹은 상세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나, 주거 세대들 간의 공용 공간에 대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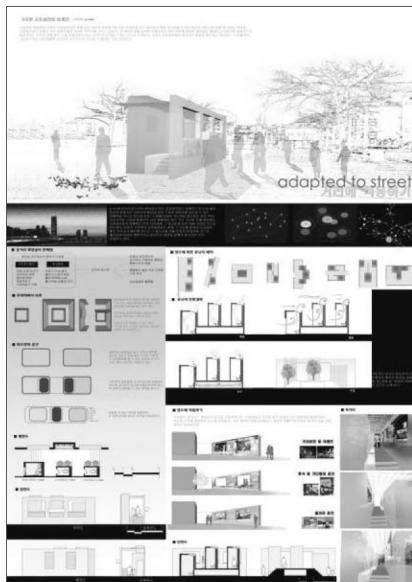
- 주제 : 한스타일과 미래주택
- 참가자격 : 관련학과 대학/대학원에 적을 둔 학생, 개인 혹은 3인 이내 팀
- 참가신청접수 : 2007년 8월 20일(금) ~ 2007년 9월 11일(화)
- 작품접수 : 2007년 10월 13일(토) ~ 15일(월) 18:00시까지
- 심사발표 : 2007년 10월 19일(금) 홈페이지에 발표
- 전시 예정 일정 : 2007년 10월 19일 (금) ~ 2007년 11월 7일(수)
- 문의처 : 02-564-2598 www.kiid.or.kr, www.hdec.co.kr

은자유)

- 신청서 접수 : 2007. 9. 10 ~ 9. 19
- 작품접수 : 2007. 9. 20 ~ 10. 5
- 작품심사 : 2007. 10. 9 ~ 10. 10
- 작품전시 및 시상식 : 2007. 10. 17 ~ 18, aT센터(시상식 : 2007. 10. 17, 10:30 ~ 12:00예정), aT센터)
- 시상내역
- ▷ 환경설계 분야 : 대상 1점(500만원 및 농림부장관상), 최우수상 3점(각 300만원 및 상장), 우수상 3점(각 100만원 및 상장), 특선 6점(각 50만원 및 상장), 입선 다수(상장 및 부상)
- ▷ 사진 콘테스트 분야 : 대상 1점(100만원 및 농림부장관상), 최우수상 1점(70만원 및 상장), 우수상 3점(각 50만원 및 상장), 입선 다수(상장 및 부상)
- 문의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환경자원과 031-299-0511~0516



· 일반부 금상 - 오승태(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도심지에 공중화장실 외벽을 조경식재가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여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장실 공간으로 조성



· 대학생부 금상 - 김선(전북대) / 공중화장실 천정을 유리로 만들고 빗물을 도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재생과 빗물 재활용으로 화장실의 친환경성 제고

## 제5회 농촌어메니티 환경설계 공모전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촌계획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5회 농촌어메니티 환경설계 공모전'은 농촌 공간에 존재하는 어메니티 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잠재된 부가가치를 개발하고, 농촌특유의 쾌적성을 표현하는 공간설계 및 계획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인간·자연·전통이 조화로운 아름다운 농촌'을 주제로 환경설계와 사진콘테스트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한다. 조경, 건축, 원예, 도시계획, 환경디자인, 관광관련 대학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설계분야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포함한 마을개발 개념 설정 및 기본계획을 공모하며, 사진콘테스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 주제 : 인간, 자연, 전통이 조화로운 아름다운 농촌마을
- 농촌어메니티 환경설계 분야
- ▷ 마을개발 개념 설정 및 기본계획(하드계획 및 소프트계획 포함)
- ▷ 대상지 선정 : '07년 정부지원 농어촌관광마을사업 대상(첨부)
- 예쁜마을 사진콘테스트
- ▷ 마을전체 전경 또는 부분 경관(대상지 선정

## 제2회 공중화장실 설계공모전 시상식 개최

행정자치부와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가 공동 주최 '제2회 공중화장실 설계공모전'의 시상식이 지난 7월 20일 백범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일반부 20팀과 대학생부 50팀, 총 70팀이 응모하여 민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부 5팀, 대학생부 10팀 등 전체 15팀의 작품이 선정됐다.

일반부 금상에 선정된 오승태(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씨의 작품은 화장실을 단순 배설 공간에서 도시의 주변공간을 풍요롭게 하는 조경요소로서의 역할까지 고려하여 계획된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온상에는 전보림, 이승환(MAR.U)씨가 선정되었고, 동상에는 박준용(주.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김희경·채가을(주.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박성중(모로건축사사무소) 등 3팀이 선정되었다.

대학생 부문에서는 김선(전북대)씨가 금상을 수상하였고, 은상에는 권재근(청운대), 동상에는 박만수(제주대)·김태용(청주대), 김정수(경원대)·이권호(광주대), 최두성(청원대)·심응석(홍익대), 하소형(홍익대)·김근환(동아대) 등이 선정되었다. 이 중 김선씨의 작품은 실내공간의

환경을 잘 계획하였으며, 가로변 화장실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도시공간에 잘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심사위원장인 장립종(연세대) 교수는 친환경적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장애인, 노약자 등 약자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를 심사기준의 기본으로 하고 공익성, 창의성, 특이성 등을 기준으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설치 시 권장 모델로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 LG화학, '2007 Z:IN 인테리어디자인공모전' 개최



LG화학의 프리미엄 인테리어 브랜드 'Z:IN'이 '제2회 Z:IN(지인) 인테리어 디자인 공모전'을 오는 9월 14일부터 개최한다.

올해 공모전은 '사람을 생각하는(知:人) 인테리어'를 주제로 벽지, 바닥재, 도어, 주방가구, 창, 조명 등 다양한 제품 및 공간에 대한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디자인 부문은 대학생과 디자이너, 아이디어 부문은 주부가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동호회 최강전' 부문에서는 참가 주부 가운데 최다 출품자와 최다 수상자를 배출한 인테리어 관련 온라인 동호회에게 별도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공모전은 종합 대상 1천 만원을 포함, 총 상금 규모가 3천 7백여만 원에 이른다. 디자인 부문 수상자(팀)의 경우 상금과 함께 LG화학 입사 지원서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양 부문 수상작들은 향후 Z:IN 제품 개발에 반영될 계획이다.

디자인 부문은 개별 및 3인이내 팀 단위 응모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통해 작품을 출품해야 한다. 반면 아이디어 부문은 개별 응모만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은 10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하기 바란다.

- 공모주제: '사람을 생각하는(知:人) 인테리어'
- 공모대상

### ▷ 디자인 부문

- 전문가·전·현직 디자이너 및 관련 업계 종사자

- 학생·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원)생 (후학 생 및 박사과정 포함)

▷ 아이디어 부문: 국내외에 거주하는 주부

· 접수기간: 2007년 9월 14일~10월 31일

· 당선작 발표: 2007년 11월 중순 이후 입상자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 문의: 02-776-5160, www.z-in.com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537-6833 · 종로구건축사회/725-9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2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28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6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지역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8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동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청원지역건축사회/(043)8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589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충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시 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8-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2-9005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6666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64-7400 · 함안시건축사회/(055)585-8587 · 창녕시건축사회/(055)533-247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 본협회 국제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전략

필자가 국제위원회를 맡은 지 약 4개월이 지났다. 우리 협회 국제위원회에는 1999년에 처음으로 위원이 되어 활동을 시작했다가 2년 만에 회장이 바뀐 후 구조조정으로 평회원으로 있다가 2005년 다시 복귀하여 부위원장 자격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새로운 젊은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5개월 동안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변화들이 개혁의 수준에서 지속되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동안 위원장 자격으로 협회의 많은 회의들을 참석하고, 다른 임원들과의 접촉 ·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 기회를 통해 우리 협회 내의 위원회 별 의사소통에 큰 구멍이 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국제위원회에 대한 오해는 더욱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기회를 통해 국제위의 활동 목표와 방향을 회원들에게 홍보하기도 하고, 반면 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을 짚어보며, 위원회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과거 활동 개요

2005년부터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동시에, 시간에 쫓기며 국제 행사에 참여해온 것을 주 업무로 여기고 지내 왔다.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활동해온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몇 분들은 상당한 의무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왔으며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을 할애해 온 사실을 보아왔다. 이런 몇 분들 때문에 그나마 우리 협회가 국제적으로, 특히 그동안 외연되어 온 UIA에서나 그 밖의 국제 교류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왔으며 국제적인地位를 확보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협회가 현재 국제적으로 관여하여 참여하는 행사가 10여개가 되며 12~3명이 되는 국

제위원들과 고문님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참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국제위원회에서 맡아온 일들은 이런 국제행사에 참여해 우리 협회의 존재를 알리고 때로는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해오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해외 행사나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여하거나 때로는 기획을 맡아 자기가 맡은 일을 담당하고 해석하고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취합하는 일 조차도 행사가 있을 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국제행사에 참여하여 뒷좌석에 앉아있더라도 안건별로 회의 후 국가 별 접촉이나 막후교섭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 가능한 많은 다른 국가의 협회의 인사들을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정기적인 회의 일정들 외에 많은 비공식적 모임들에 참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동안 위원회가 주력을 해온 국제행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UIA 총회, PPC 및 지역이사회 참석

오랫동안 한국건축가협회(이후 건축가협회)가 회원단체로서 활동을 해왔으나, 2002년 경 막후교섭을 통해 어렵게 건축가협회와 대한건축학회(이후 건축학회)와 함께 FIKA라는 adhoc body로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었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앞으로 순수 건축사 집단인 대한건축사협회(이후 건축사협회) 위주의 활동이 전개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UIA PPC(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의 경우 건축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한국에서 유치하는 것도 건축사협회 노력의 결실이다.

### ARCASIA: Architects' Regional Council of ASIA

아시아건축사지역연합회에서도 건축사협회가 주도적으로 85년부터 회원국으로 가입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이근창 회장을 배출하여 활약을 하고 있다. 99년 서울 포럼에 이어 2008년 부산에서 ACA-13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 한 · 중 · 일 건축사 협의회

일본의 일본건축사회연합회 및 중국의 중국전국건축사관리위원회와 이미 10년에 걸

친 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인증 문제 및 아시아 또는 APEC에 관련하여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다. 금년에는 서울에서 11월에 11차 교류를 갖게 되어 있다.

#### 한·몽건축사 단체 상호교류

몽골의 몽고건축사협회와의 교류를 10여년에 걸쳐 1년에 한 번씩 양국 간을 교대로 방문 교류해 왔다. 금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교류하자는 약정을 맺고 1년에 2회로 확대 교류하기로 한 바 있다.

#### APEC 건축사 추진위원회

지난 2005년 대한민국도 APEC 산하의 인력개발 실무그룹(HRDWGC)내에 APEC Architect Project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14개국 중 한 회원국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건교부에서 이 업무를 위임받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송기덕 전회장이 위원장으로 각 단체에서 추천한 10명의 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현재 216명의 APEC 등록건축사를 등록 관리하고 있다.

#### 각국 협회와의 교류

일본건축사회연합회(JIA)와 교류를 시작한 아래 점점 더 비중을 높이고 있다. JIA는 우리와 같이 순수 건축사로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협회로 오랫동안 건축가협회와 교류를 해온 바 있다. 현재 건축가협회의 경우 회장을 역임한 후 JIA총회에서 명예회원이 되는 의례를 지내고 있는 바, 우리 협회도 내년부터는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합의가 된바 있다.

미국건축사협회(AIA)도 건축가협회와 6년전부터 업무제휴를 맺어 오고 있으며 건축가협회 회원 중 활동이 두드러진 분들에게 명예회원(HFAIA)을 주고 있다. 또한 건축가협회는 미국건축사협회의 계속교육 제공자로 등록하여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교육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미국건축사협회도 순수한 건축사만의 단체이다. 위원회에서는 하루빨리 미국건축사협회(AIA)와도 업무제휴를 하여 상호인증 등 실질적인 협상을 위한 정보교환에 주력을 다하고 좋은

시스템을 배우고 더 많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고자 하고 있다. 이런 일환으로 처음으로 금년 AIA총회에 본 협회의 대표단 두 분이 참석했으며, 이 중 이근창 아카시아 회장은 명예회원(HFAIA)을 수여 받은 바 있다. 현재 세계 건축의 중심에 서있는 네덜란드 건축계와의 교류를 새롭게 정착하기 위해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등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시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교류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 앞으로의 활동 방향

앞에서 설명한 국제 행사 위주의 활동이 국제위원회의 활동을 다른 위원회와 격리시키고 오해를 사는 결과까지 초래해온 것으로 사료된다.

근래에 건설의 설계겸업, 미국에 이은 EU와의 FTA 협상, 건축사의 상호인증 등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거세지고 있으며, 우리 협회는 이런 추세에 대응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개혁과 변화를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제 협회의 모든 분야가 변화되어야 한다. 시장의 변화와 건축사에 대한 인식의 저하, 그리고 높아지는 경쟁력의 어려움 속에서 점점 힘들어져가는 우리 회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어야하고,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경쟁력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위원회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런 활동들이 협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잘 홍보되어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건축사의 인식제고에 일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목표와 활동방향을 정하고, 그 큰 바탕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정함으로써 회원들을 위한 활동 방향에 더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많은 부분 각 위원회와의 협력과 교류가 없이는 성과를 이룰 수 없다고 본다.

위원회의 목표와 활동 방향은 협회의 정관에 따라 회원의 권리보호와 국제경쟁력 향

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기의 목표에 실질적으로 다가설 수 있기 위해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전술한 각 종 국제 행사에 참여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하는 것은 협회의 활동과 국내 건축사들의 활동상을 발표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둘째, 각 국의 제도에 대한 자료 확보 및 전망에 대한 정보망 확보를 통한 건설의 설계겸업 및 시장 개장에 대해 효율적 대응 체계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우선 각국의 협회와 긴밀한 협조 체제 확보를 함과 동시에 각 국의 건축 통신원 제도 운영 등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협회나 건설 관련 제도 등의 정비를 위해 유관 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홈페이지, ‘건축사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국제적 변화에 대해 홍보하고 활동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건축사들의 활동 현황 파악 및 홍보는, 국내에 있는 해외 건축사 면허 소지자들 및 회원들의 해외 진출 현황을 파악 홍보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결언

국제위원회는 협회 내에 존재가 가능하다.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회원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권리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협회의 봉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항상 문을 열어놓고 개방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항상 임원과 회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니 많은 격려와 조언을 바란다. <신춘규/정책위원, 본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주)건축사사무소 시그에이>

# PLAZA ARCHITECTS'

건축마당

법령

law & ordinances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br>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균형생활시설 및 제2종 균형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 매소 <u>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u> 제외하며, 이하 “균형생활시설”이라 한다)<br>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교집회장과 그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br>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중 소매시장·상점<br>4.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br>5.~9. (생략)<br>제7조(적용의 특례) ①~③(생략)<br>④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등을 수립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으로 따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9조·제10조·제13조·제25조 내지 제29조·제34조 내지 제38조와 제46조·제47조·제50조·제52조·제53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br>⑤·⑥(생략)<br>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br>⑧(생략)<br>〈신설〉 | 제5조(기타 복리시설) -----<br>----- 다음 각호-----<br>-----.<br>1. ----- 별표 1에 따른-----<br>---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br>-----<br>2. -----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br><br>3. -----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br>중-----<br>4. -----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br>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br>5.~9. (현행과 같음)<br>제7조(적용의 특례) ①~③(현행과 같음)<br><삭재><br><br>⑤·⑥(현행과 같음)<br>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br>-----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br>⑧(현행과 같음)<br>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복리시설 설치에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53조·제55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br>1. 복리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br>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단지 안에 설치하는 복리시설과 큰 차이가 없을 것 |

신·구조문 대비표

# PLAZA ARCHITECTS'

건축마당  
통계  
statistics

## 2007년 건축허가 현황(6월)

### ■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 구 분  | 당월    |            |           | 누계     |            |            |        |
|------|-------|------------|-----------|--------|------------|------------|--------|
|      | 2006년 | 2007년      | 증가율       | 2006년  | 2007년      | 증가율        |        |
| 계    | 동 수   | 18,251     | -1.0%     | 78,810 | 111,235    | 41.1%      |        |
|      | 연면적   | 14,132,049 | 9,473,21  | -33.0% | 59,539,904 | 59,148,384 | -0.7%  |
| 주거용  | 동 수   | 5,060      | 5,861     | 15.8%  | 22,654     | 35,641     | 57.3%  |
|      | 연면적   | 5,383,972  | 3,088,407 | -42.6% | 24,252,182 | 19,217,840 | -20.8% |
| 상업용  | 동 수   | 5,571      | 5,965     | 7.1%   | 22,501     | 36,364     | 61.6%  |
|      | 연면적   | 3,837,491  | 1,949     | -25.4% | 13,697,550 | 16,938,424 | 23.7%  |
| 공업용  | 동 수   | 2,545      | 1,949     | -23.4% | 11,879     | 12,159     | 2.4%   |
|      | 연면적   | 1,488,921  | 1,307,573 | -12.2% | 7,777,1944 | 8,471,444  | 9.0%   |
| 교육 및 | 동 수   | 1,059      | 1,207     | -3.0%  | 5,613      | 6,573      | 17.1%  |
| 사회용  | 연면적   | 1,099,346  | 832,292   | -24.3% | 5,140,756  | 6,921,589  | 34.6%  |
| 기 타  | 동 수   | 4,016      | 3,263     | -18.8% | 16,163     | 20,498     | 26.8%  |
|      | 연면적   | 2,322,319  | 1,381,177 | -40.5% | 8,675,472  | 7,599,087  | -12.4% |

### ■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 구 분 | 당월    |            |           | 누계     |            |            |        |
|-----|-------|------------|-----------|--------|------------|------------|--------|
|     | 2006년 | 2007년      | 증가율       | 2006년  | 2007년      | 증가율        |        |
| 계   | 동 수   | 18,251     | -1.0%     | 78,810 | 111,235    | 41.1%      |        |
|     | 연면적   | 14,132,049 | 9,473,241 | -33.0% | 59,539,904 | 59,148,384 | -0.7%  |
| 철 근 | 동 수   | 15,539     | 15,038    | -3.2%  | 68,980     | 92,923     | 34.7%  |
| 철골조 | 연면적   | 13,922,859 | 9,223,610 | -33.8% | 58,715,968 | 57,592,844 | -1.9%  |
| 조적조 | 동 수   | 2,170      | 2,193     | 1.1%   | 8,013      | 13,108     | 63.6%  |
|     | 연면적   | 166,396    | 180,748   | 8.6%   | 652,038    | 1,121,166  | 71.9%  |
| 목 조 | 동 수   | 537        | 713       | 32.8%  | 1,812      | 4,397      | 142.7% |
|     | 연면적   | 42,341     | 60,443    | 42.8%  | 171,445    | 375,427    | 119.0% |
| 기 타 | 동 수   | 5          | 121       | 0.0%   | 5          | 807        | 0.0%   |
|     | 연면적   | 453        | 8,440     | 0.0%   | 453        | 58,947     | 0.0%   |

### ■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 구 분 | 당월    |           |           | 누계     |            |            |        |
|-----|-------|-----------|-----------|--------|------------|------------|--------|
|     | 2006년 | 2007년     | 증가율       | 2006년  | 2007년      | 증가율        |        |
| 계   | 동 수   | 18,251    | -1.0%     | 78,810 | 111,235    | 41.1%      |        |
|     | 연면적   | 14,132    | 9,473,241 | -33.0% | 59,539,904 | 59,148,384 | -0.7%  |
| 수도권 | 동 수   | 5,763     | 6,665     | 15.7%  | 23,785     | 37,747     | 58.7%  |
|     | 연면적   | 5,599,773 | 4,948,244 | -11.6% | 23,363,804 | 26,273,661 | 12.5%  |
| 서 울 | 동 수   | 1,045     | 1,135     | 8.6%   | 4,487      | 6,592      | 46.9%  |
|     | 연면적   | 2,093,811 | 935,303   | -55.3% | 6,458,615  | 6,457,551  | 0.0%   |
| 인 천 | 동 수   | 385       | 670       | 74.0%  | 1,895      | 3,556      | 87.7%  |
|     | 연면적   | 428,039   | 1,510,521 | 252.9% | 1,843,676  | 4,264,853  | 131.3% |
| 경 기 | 동 수   | 4,333     | 4,860     | 12.2%  | 17,403     | 27,599     | 58.6%  |
|     | 연면적   | 3,077,923 | 2,502,420 | -18.7% | 15,061,513 | 15,551,257 | 3.3%   |
| 지 방 | 동 수   | 12,488    | 11,400    | -8.7%  | 55,025     | 73,488     | 33.6%  |
|     | 연면적   | 8,532,276 | 4,524,997 | -47.0% | 36,176,331 | 32,874,739 | -9.1%  |
| 부 산 | 동 수   | 757       | 562       | -25.8% | 2,973      | 3,273      | 10.1%  |
|     | 연면적   | 2,756,434 | 188,237   | -93.2% | 5,946,331  | 2,309,739  | -16.2  |
| 대 구 | 동 수   | 485       | 525       | 8.2%   | 2,688      | 3,281      | 22.1%  |
|     | 연면적   | 480,608   | 356,852   | -25.7% | 2,820,824  | 2,584,967  | -8.4%  |
| 광 주 | 동 수   | 409       | 313       | -23.5% | 2,267      | 2,383      | 51.1%  |
|     | 연면적   | 145,390   | 181,290   | 24.7%  | 2,217,405  | 1,585,754  | -28.5% |
| 대 전 | 동 수   | 307       | 284       | -7.5%  | 1,704      | 1,869      | 9.7%   |
|     | 연면적   | 156,316   | 227,172   | 45.3%  | 1,232,928  | 1,229,449  | -0.3%  |
| 울 산 | 동 수   | 436       | 440       | 0.9%   | 2,135      | 4,020      | 88.3%  |
|     | 연면적   | 303,708   | 334,494   | 10.1%  | 1,402,037  | 2,353,925  | 67.9%  |
| 강 원 | 동 수   | 1,040     | 1,054     | 1.3%   | 4,470      | 6,388      | 42.9%  |
|     | 연면적   | 415,163   | 515,799   | 24.2%  | 2,016,671  | 2,608,696  | 29.4%  |
| 충 북 | 동 수   | 1,106     | 1,017     | -8.0%  | 4,702      | 6,488      | 38.0%  |
|     | 연면적   | 426,145   | 355,115   | -16.7% | 2,811,831  | 2,723,630  | -3.1%  |
| 충 남 | 동 수   | 1,351     | 1,344     | -0.5   | 5,309      | 8,307      | 56.5%  |
|     | 연면적   | 74,047    | 516,110   | -30.9% | 3,000,356  | 3,880,661  | 29.3   |
| 전 북 | 동 수   | 1,085     | 1,089     | 0.4%   | 4,897      | 6,022      | 23.0%  |
|     | 연면적   | 303,085   | 305,927   | 0.9%   | 1,853,766  | 2,144,070  | 15.7%  |
| 전 남 | 동 수   | 1,177     | 1,003     | -14.8% | 5,691      | 7,011      | 23.2%  |
|     | 연면적   | 474,925   | 247,697   | -47.8% | 2,567,052  | 1,971,385  | -23.2% |
| 경 북 | 동 수   | 2,016     | 1,716     | -14.9% | 8,646      | 11,700     | 35.3%  |
|     | 연면적   | 907,685   | 497,168   | -45.1% | 4,213,506  | 3,403,723  | -19.2% |
| 경 남 | 동 수   | 1,774     | 1,726     | -2.7%  | 7,500      | 10,937     | 45.8%  |
|     | 연면적   | 1,221,084 | 682,168   | -44.1% | 5,461,895  | 5,375,821  | -1.6%  |
| 제 주 | 동 수   | 545       | 327       | -40.0% | 2,043      | 1,809      | -11.5% |
|     | 연면적   | 194,686   | 116,208   | -40.3% | 631,498    | 702,903    | 11.3%  |

##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7년 6월말

| 구 분<br>건축<br>사회 | 개인사무소 |       |     |     |      |    |   |   |       |       | 법인사무소 |       |     |     |    |     |    |     |      |     | 용역<br>사무소 | 합계    | 비율(%) |       |       |       |       |        |        |       |       |       |
|-----------------|-------|-------|-----|-----|------|----|---|---|-------|-------|-------|-------|-----|-----|----|-----|----|-----|------|-----|-----------|-------|-------|-------|-------|-------|-------|--------|--------|-------|-------|-------|
|                 | 1인    |       | 2인  |     | 3인이상 |    |   |   | 소계    |       | 1인    |       | 2인  |     | 3인 |     | 4인 |     | 5인이상 |     |           |       |       |       |       |       |       |        |        |       |       |       |
|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       |       |       |       |       |       |        |        |       |       |       |
| 합계              | 5,179 | 5,179 | 138 | 276 | 18   | 57 |   |   | 5,335 | 5,512 | 1,533 | 1,533 | 281 | 552 | 70 | 210 | 29 | 116 | 31   | 222 |           | 1,944 | 2,643 | 7     | 7     | 7,279 | 8,155 | 100.0% | 100.0% |       |       |       |
| 서울              | 1,114 | 1,114 | 37  | 74  | 9    | 28 |   |   | 1,160 | 1,216 | 857   | 857   | 181 | 362 | 43 | 129 | 16 | 64  | 18   | 131 |           |       |       | 1,115 | 1,543 | 6     | 6     | 2,275  | 2,759  | 33.2% | 35.4% |       |
| 부산              | 480   | 480   | 18  | 36  | 3    | 10 |   |   | 501   | 526   | 87    | 87    | 17  | 34  | 5  | 15  | 3  | 12  | 3    | 19  |           |       |       |       | 115   | 167   |       |        | 616    | 693   | 8.9%  | 9.1%  |
| 대구              | 421   | 421   | 24  | 48  | 6    | 19 |   |   | 451   | 488   | 63    | 63    | 18  | 36  | 8  | 24  | 0  | 0   | 2    | 10  |           |       |       |       | 91    | 133   |       |        | 542    | 621   | 7.3%  | 7.5%  |
| 인천              | 236   | 236   | 2   | 4   | 0    | 0  |   |   | 238   | 240   | 48    | 48    | 9   | 18  | 0  | 0   | 0  | 0   | 0    | 0   |           |       |       |       | 57    | 66    |       |        | 295    | 306   | 3.9%  | 3.5%  |
| 광주              | 217   | 217   | 2   | 4   | 0    | 0  |   |   | 219   | 221   | 34    | 34    | 6   | 12  | 1  | 3   | 2  | 8   | 3    | 20  |           |       |       |       | 46    | 77    |       |        | 265    | 298   | 3.5%  | 3.6%  |
| 대전              | 200   | 200   | 13  | 26  | 0    | 0  |   |   | 213   | 226   | 27    | 27    | 10  | 20  | 3  | 9   | 0  | 0   | 2    | 21  |           |       |       |       | 42    | 77    |       |        | 255    | 303   | 3.8%  | 3.7%  |
| 울산              | 168   | 168   | 8   | 16  | 0    | 0  |   |   | 176   | 184   | 16    | 16    | 3   | 6   | 1  | 3   | 0  | 0   | 0    | 0   |           |       |       |       | 20    | 25    |       |        | 196    | 209   | 2.8%  | 2.5%  |
| 경기              | 700   | 700   | 6   | 12  | 0    | 0  |   |   | 706   | 712   | 220   | 220   | 20  | 40  | 3  | 9   | 1  | 4   | 1    | 5   |           |       |       |       | 245   | 278   |       |        | 951    | 990   | 12.7% | 12.1% |
| 강원              | 166   | 166   | 2   | 4   | 0    | 0  |   |   | 168   | 170   | 21    | 21    | 3   | 6   | 0  | 0   | 0  | 0   | 1    | 5   |           |       |       |       | 25    | 32    |       |        | 193    | 202   | 2.5%  | 2.4%  |
| 충북              | 181   | 181   | 5   | 10  | 0    | 0  |   |   | 186   | 191   | 27    | 27    | 3   | 6   | 1  | 3   | 2  | 8   | 1    | 11  |           |       |       |       | 34    | 55    |       |        | 220    | 246   | 2.9%  | 2.9%  |
| 충남              | 176   | 176   | 3   | 6   | 0    | 0  |   |   | 179   | 182   | 38    | 38    | 2   | 4   | 1  | 3   | 4  | 16  | 0    | 0   |           |       |       |       | 45    | 61    |       |        | 224    | 243   | 2.7%  | 2.6%  |
| 전북              | 199   | 199   | 3   | 6   | 0    | 0  |   |   | 202   | 205   | 25    | 25    | 1   | 2   | 2  | 6   | 1  | 4   | 0    | 0   |           |       |       |       | 29    | 37    |       |        | 231    | 242   | 2.8%  | 2.6%  |
| 전남              | 140   | 140   | 0   | 0   | 0    | 0  |   |   | 140   | 140   | 9     | 9     | 1   | 2   | 0  | 0   | 0  | 0   | 0    | 0   |           |       |       |       | 10    | 11    |       |        | 150    | 151   | 1.9%  | 1.7%  |
| 경북              | 320   | 320   | 7   | 14  | 0    | 0  |   |   | 327   | 334   | 28    | 28    | 3   | 6   | 1  | 3   | 0  | 0   | 0    | 0   |           |       |       |       | 32    | 37    | 1     | 1      | 359    | 371   | 4.6%  | 4.2%  |
| 경남              | 361   | 361   | 8   | 16  | 0    | 0  |   |   | 369   | 377   | 24    | 24    | 4   | 8   | 1  | 3   | 0  | 0   | 0    | 0   |           |       |       |       | 29    | 35    |       |        | 398    | 412   | 5.2%  | 4.8%  |
| 제주              | 100   | 100   | 0   | 0   | 0    | 0  |   |   | 100   | 100   | 9     | 9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9     | 9     |       |        | 109    | 109   | 1.5%  | 1.4%  |

##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 구 분<br>건축사회 | 회원    |    |       |        | 준회원 |
|-------------|-------|----|-------|--------|-----|
|             | 건축사   | 2급 | 계     | 비율     |     |
| 합계          | 8,155 | 10 | 8,165 | 100.0% | 23  |
| 서울          | 2,759 | 3  | 2,762 | 35.4%  | 10  |
| 부산          | 693   | 1  | 694   | 9.1%   | 9   |
| 대구          | 621   | 0  | 621   | 7.5%   | 0   |
| 인천          | 306   | 0  | 306   | 3.5%   | 0   |
| 광주          | 298   | 0  | 298   | 3.6%   | 0   |
| 대전          | 303   | 1  | 304   | 3.7%   | 0   |
| 울산          | 209   | 0  | 209   | 2.5%   | 0   |
| 경기          | 990   | 2  | 992   | 12.1%  | 2   |
| 강원          | 202   | 0  | 202   | 2.4%   | 0   |
| 충북          | 246   | 0  | 246   | 2.9%   | 0   |
| 충남          | 243   | 3  | 246   | 2.6%   | 0   |
| 전북          | 242   | 0  | 242   | 2.6%   | 0   |
| 전남          | 151   | 0  | 151   | 1.7%   | 0   |
| 경북          | 371   | 0  | 371   | 4.2%   | 1   |
| 경남          | 412   | 0  | 412   | 4.9%   | 1   |
| 제주          | 109   | 0  | 109   | 1.4%   | 0   |

##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 구 분  | 개인사무소  | 법인사무소  | 전입마치리 | 합 계   | 비 고 |
|------|--------|--------|-------|-------|-----|
| 회원수  | 5,515  | 2,639  | 89    | 8,243 |     |
| 비율   | 66.9%  | 32.02% | 1.08% | 100%  |     |
| 사무소수 | 5,338  | 1,941  | -     | 7,279 |     |
| 비율   | 73.33% | 26.67% | -     | 1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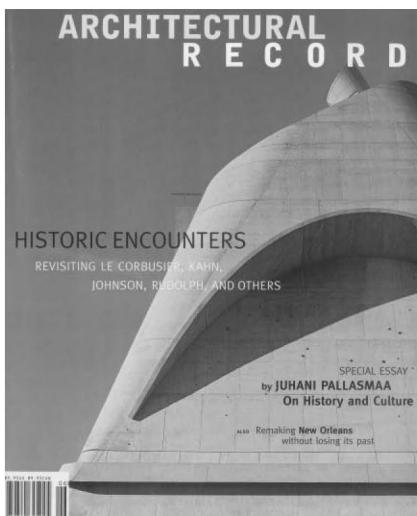
# PLAZA ARCHITECTS'

건축마당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rchitectural Record  
a+u  
新建築

##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al Record 지의 2007년 6월호는 “역사는 현재이며, 그것이 바로 각각의 세대가 역사를 새로 쓰는 이유이다 (History is the present, that's why every generation write it anew)”라는 E.L. Doctorow의 경구로부터 시작한다. 오늘날 건축 사학은 베니스터 플레처의 교조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현재의 건축계를 자극할 만한 담론들을 이전의 건축으로부터 재추출하고자 하고 있다. 요즈음의 건축 또한 오래된 건축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모색하여 개조와 보존을 지속가능성과 연계시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 아래 Record지는 역사에 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시사하는 프로젝트들을 다루고 있다. 르 코르뷔제의 원안으로부터 수십년의 격차를 가지고 완성된 St. Pierre 예배



Behnisch Architekten – Haus im Haus

당과 리노베이션의 현실적 수요와 건축적 의미 창출을 다루는 런던의 Roundhouse 의 리노베이션 계획, 어느 부분을 남길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는 함부르크의 Haus im Haus(house in House) 계획 등은 모두 역사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모더니즘 세대의 노력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다. 반면 샌디에고 현대미술관 같이 이전의 역사적 요소에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원안과는 사뭇 달라졌지만 더 잘 활용되고 있는 사례 또한 빼놓지 않고 소개함으로써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보존과 보전의 관점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건축물들이 인위적으로 철거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기도 한다. 폴 루돌프의 1972년의 고전에 오를만한 주택과 메타볼리즘 진영에서는 드물게 빛을 본 키쇼 쿠로카와의 캡슐호텔이 처한 현실은 건축의 의미와 사회적 소명 사이에 여러 가지 상념을 일으키게 된다. 그 자체가 기록(record)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참관인 혹은 전달자의 입장에 머무르고 있는 현 Record지

의 고민이 솔직담백하게 드러난 제호인 셈이다.

### ■ Books

역사에 대한 고찰은 그 대상의 보전이 전제되어 있을 때 깊이와 폭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도시적 차원에서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제인 제이콥스(『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의 저자)의 평전과 그녀가 사랑한 도시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서적이 소개되고 있다.

Jane Jacobs, *Urban Visionary* by Alice Sparberg Alexiou. New Jersey : Rutger Univ. Press, 2006

New York 2000 : Architecture and Urbanism Between the Bicentennial and the Millennium by Robert A.M Stern, David Fishman and Jacob Tilove. New York : Monacelli press, 2006

City of Collision: Jerusalem and the Principles of Conflict Urbanism edited by Phillip Misselwitz and Tim Rieniets New York : Birkhauser, 2006

Contemporary Public Space: Unvolumetric Architecture edited by Aldo Aymonino and Valerio Paolo Mosco, :Siraka, 2006

### ■ Features

#### 필립 존슨의 글래스 하우스 :

#### 영원성에 대하여

필립 존슨의 많은 건축물 가운데에서도 그 자신이 살기 위해 만든 글래스 하우스(1949)는 시간의 흐름을 비껴서 있는 듯하



Philip Johnson – Glass House

다. 그 동안 좀처럼 방문을 허용하지 않던 이 작품이 6월 21일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존슨은 2005년 98세를 일기로 사망하기 전 일찍이 이 주택과 그에 딸린 47에이커(약 20만 평방미터)의 대지를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에 기부하였다. 그의 오래된 친구이면서 저명한 큐레이터이자 컬렉터였던 데이빗 휘트니가 사망하는 동안에도 존슨은 주변에 자그마한 건물들을 하나씩 지어 나갔다. 이 건물이 대중에게 공개되고 ‘새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공이 많이 들어갔다. 배수가 한 구멍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문제가 많았던 지붕은 콜타르로 간격을 메꾼 완제품 형태의 지붕으로 대체되었다. 26건에 이르는 문화보호협회(National trust)의 건축물보호 프로젝트의 경험이 훌륭하게 적용되어 많은 보수를 거쳤음에도 글래스 하우스는 처음 그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나는 매우 값비싼 벽지를 가진 셈이지”라고 말했던 존슨의 의도가 여전히 확인되는 가운데 협회는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가구들을 내부에 배치해 놓음으로써 이 작품이 모더니즘의 전반의 대표작(판스워스 주택)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밝힘과 동시에 모더니즘 후반까지 지속된 필립 존슨의 위상을 기념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 Project

건축사를 공부하다보면 건축이란 것이 끊임없는 스타일과 개념, 아름다움의 각축장에서 형성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사고는 이전의 작업들을 완결된 과거로, 현재의 건축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떤 기여도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현대 건축은 자동적이고, 자기 참조적인 고유의 영역으로 이해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미있는 창조적인 작업들은 반드시 문화의 연속성 아래에서, 특별한 수련의 과정에 근거하여야만 한다. 건축적 개념은 창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것은 이전으로부터 계속되었던 인간의 여러 가지 제반 조건에서부터 출발하여 물리적으로 고착되는 것이다. 실제로 위대한 많은 작품들이 그 안에 문화적 전통을 내화시키고 있음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카를로

스카르파의 Castelvecchio Museum(1958)은 그 섬세한 디테일과 물성, 공간구성에 있어 조각물에 있어서의 이탈리아적 속성을 변안하고 있으며, 알바 알토의 1952년의 시민회관 건물과 1953년의 주택건물은 지역의 기후에 기반한 전통들을 온전하게 수용하고 있다. 또한 아스플런트의 시청 증축 계획(1936, Gothenburg)은 원래 건물의 스케일과 리듬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 다루는 여러 건물 역시 동일한 기반에서 사유하는 프로젝트들이다. 일말의 단절에 관련된 경험이 시간의 격차를 두고 신축, 중축, 개축의 방식으로 우리 앞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건축이 부정의 변증법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연속성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 Eglise Saint-Pierre de Firminy-Vert (Saint-Pierre 예배당:신축/ Firminy, France/ Le Corbusier and Jose Oubreire)

르 코르뷔제의 디자인이 그의 조력자이자 추종자였던 Jose Oubreire에 의해 43년만에 빛을 보게 되었다. 대지는 생테티엔 근처의 루아레 계곡의 산업도시인 피르미니에 자리하고 있다. 근처에는 코르뷔제의 작품인 Youth Center(1965), 시립 스타디움(1966), 위니테 다비타송(1967)등이 있어 멀지 않은 곳에서 카메라에 한꺼번에 잡을 수도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르 코르뷔제가 최초로 성 피에르 예배당의 디자인을 의뢰받은 것은 1961년이었다. 열주 2년동안 추진되었던 디자인은 1963년 중지되었고, 2년뒤 르 코르뷔제가 사망하면서 완전히 사라지는 듯했다. 1971년 단발적인 공사를 통해 기반과 기초, 철의 처음 고리까지 만들어진 이후 긴 시간동안 묵혀있던 프로젝트는 1999년 문화성의 인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에 의해 2001년 다시 시공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5년 뒤인 2006년 결국 완성을 보게 되었다. 종교 건축은 르 코르뷔제에게 작은 딜레마를 던지게 되는데, “노동자 계급을 위해서 건축을 진행한다”던 그의 신념과 건축물이 그의 ‘세속적’ 건축의 모더니티의 확신에 의해 ‘성소화’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코르뷔제의 고민



Le Corbusier + Jose Ouberger

은 그의 후반기의 걸작으로 불리는 작품들이 라플레트와 통상과 같은 종교건축물이라는 것으로부터 좀 더 심화되었고 이러한 점은 생 피에르 예배당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건물 맵스의 추상적인 현수선적 포물선의 형태는 가톨릭 성당의 건축적 전통의 거부를 명백하게 보이고 있음에도 여기에 전통적인 장미창이 포함된 디자인을 보이고 있는데(초기 안), 이는 기술적 이유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제한을 통해 코르뷔제가 오리온 별자리를 연상시키는 작은 구멍들을 생각해 냈으므로써 그는 전통의 거부로서의 모더니스트라는 기준의 자신의 입장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게 되었다. 생 피에르 예배당은 르 코르뷔제 종교건축의 3부작으로

완결성과 함께 새로운 차원으로의 전이를 원했던 건축사의 의도가 오롯히 담겨 있는 '작품(oeuvre)'이다.

Oubrerie의 고유한 디자인은 입구를 마감디자인과 같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모든 공간에 적용되었다. 2001년 자금조달과정에서 예배당 건설 협회는 원래의 안대로라면 평신도를 위한 기능 공간이었던 건물하부에 박물관을 두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긴 시간을 거치면서 건설 기술과 법규의 변경을 통해 세부적인 변화가 디자인에 반영되었다. 코르뷔제와의 협업동안 결정되지 못한 입구와 지붕디자인에 있어 Oubrerie는 코르뷔제적이지만 원안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 더욱 개념적이고 시각적인 해결안을 제시했다. 단순히 레벨을 써우는 대신 Oubrerie는 격자무늬의 콘크리트 패널을 상부에 함몰시켜 단일체로서의 건물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보이드의 시사하는 원주의 곡선에 대한 감각을 살려낸 것이다.

입구를 디자인하면서 건축사는 개구부 없는 외벽에 램프를 달아놓는 방식을 취해 구조적 난점과 예배당 입구의 진입시의 몰입도를 높이려는 의도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 하지만 다리형태의 램프가 입구의 포티코와 접하는 지점에서는 오히려 넓은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건축물의 일반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신자가 일단 구부러진 형태의 램프로 접근하게 되면, 전시관으로도 접근할 수 있음에도, 반드시 성소로 나있는 입구를 선택하여 들어오게 되리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Oubrerie는 이 아이디어를 더욱더 심화시켜 경로의 끝을 솔리드월로 가지고, 몬드리안적 색채로 구성된 입구를 통해 유도를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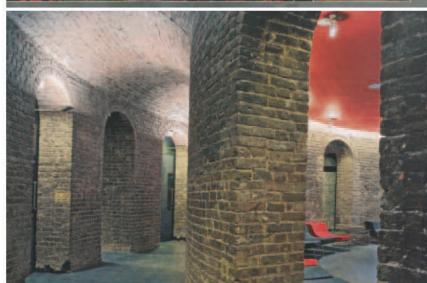
건축사는 코르뷔제와 디자인을 하면서 경제적 이유로 뒤틀린 바닥을 고민해냈지만 오늘날 이 건물을 통하여 가장 진보적인 디자인 요소가 되었다. 렘콜하스의 1993년 Jussieu 대학 도서관 계획안에서 연속적이며 뒤틀리고 회전하는 바닥은 시애를 도서관과 UN 스튜디오의 여러작품에 이르기 까지 우리는 코르뷔제의 마지막 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 The Roundhouse

(공연장: 리노베이션 / 런던/)

John McAslan+Partners

개축은 런던 북부 Camden 지역에 있는 원통형의 건물인 라운드하우스가 살아온 방식이다. 1846년 Robert Dockray가 고강도 벽돌을 사용하여 이건물을 올리는 그 순간부터 이 건물은 단순히 증기기관차를 수용하고 회전시키는 시설 이상의 그 시대의 기술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건축물이 되었다. 하지만 한꺼번에 24개의 증기기관을 한번에 이동시킬 수 있는 거대한 턴테이블은 10년도 안되어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증기기관의 효율이 높아지면서 기차가 건물 길이보다 길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짧은 철도회전소로의 기능 이후에 이 빌딩은 진을 저장하는 술창고가 되었다. 힘든 시기가 다가왔다. 1964년 극작가 아놀드 웨스커는 이 건물을 대중 공연장인 센터 42로 변모시켰다. 지미 핸드릭스, 평크플로이드, 도어스, 제퍼슨 에어플레이너, 데이빗 보위와 같이 말썽꾸러기 로커들과 헤어나 오! 캠벨터와 같은 논란의 중심이 된 센터 42는 지금 난으로



Behnisch Architekten – Haus im Haus

인해 1983년 결국 문을 닫고 만다. 1996년 토클 노먼은 390만 파운드로 극장을 사들이고, 기금을 마련하여 이 극장을 좀더 업그레이드된 공연장소로 만들고자 했다. 기나긴 자금 조성과 입찰과정을 통해 에릭멘델존의 아인 슈타인 타워를 복원 시킨 John McAslan+Partners에게 과업이 주어졌다.

결과물은 라운드하우스의 지난했던 과거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공연장소로 나타났다. McAslan의 유리로 덮은 중축부는 기존의 로툰다와 대비되어 강한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건축사는 잠재적으로 돌립적인 진입 루트를 주 공연공간과 라운드하우스 스튜디오 안쪽으로 제공하고 있다. 로툰다 내부에서는 3피트 정도의 간격을 가진 환기공간에 의해 분리된 개구부를 통해 원형의 천창을 두어 기존 디자인의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다. 태양관은 이제 중앙의 지붕 랜턴 뿐만 아니라 이 링형태의 개구부로도 잘 들어오며 맨 처음부터 있었던 주철 기둥과 연철 구조부도 남아있다. (실제로 하중을 받지는 않는다.) 하중은 건축사가 제안한 망형태의 강구조가 담당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다.

도시와 한참 멀어져 있음에도 라운드 하우스는 공연자가 먼지를 털어내고, 물을 차오르며, 요염하게 걸어다니는 장소로 남아 있게 되었다. 건축사 스스로가 말하든 “끝내 주는 장소” 말이다.

(글/김훈/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선문대학교 계약직 교원, 부천대학교 출강)

a+u



이번 6월호의 특집은 ‘금속을 두른 건축-Metal Skin’이다. 건축물의 외피는 최근 새로운 기술과 재료의 사용, 그리고 실험적 디자인이 집약된 종체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 금속으로 이루어진 외피는 금속이 지니는 다양한 재료적 성질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와 구조물을 실현시켜 준다. 2004년 이후 완성된 금속을 몸에 두른 건축물을 소개하여 금속 외피사용에 대한 다양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특집은 오늘날 건축의 관심사 두 가지를 담고 있다. 하나는 건축의 외피에 대한

관심이며, 다른 하나는 ‘금속재료’이다. 잡페(Gottfried Semper)가 건축에서 외피에 대해 주목한 이후 근현대 건축사들은 건축물의 외피에 콘크리트, 철, 유리 등 새로운 소재들을 시험해 왔으며, 최근에는 ‘파사드 엔지니어링’ 이란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건축물의 외피는 디자인과 건축엔지니어링이 집약된 중요한 요소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건축물에 철이 본격적으로 사용된지 100년도 넘었지만 금속재료가 구조체가 아닌 피막의 형태로 건축물을 뒤덮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 몇십년 사이의 일이다. 특히 오늘날 금속의 피막은 매쉬의 형태로 빛을 적당히 투과하는 형태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원델 회퍼 로아하(Wandel Hoefer Lorch)의 「뮌헨 유태인 센터(2004)」는 이와 같은 금속 피막을 잘 보여준다.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이 작품은 석재 마감의 견고한 기단위에 브론즈 매쉬를 포함한 금속과 유리로 된 상자 모양의 지붕을 얹고 있다. 이 상자모양의 지붕은 여러 쪽의 금속과 유리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안쪽에는 구조체 역할을 하는 그물망모양의 트러스가 위치하고 그 밖에 내외부 공간을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유리벽이 끼워진다. 그 밖에는 브론즈 매쉬를 부착하여 빛을 적절히 투과하면서 반사시키는 피막을 완성하였다. 이와 같은 유리와 금속 매쉬의 조합은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의 「데모인(De Moines)공립



뮌헨 유태인 센터(2004)



데모인(De Moines)공립도서관(2006)

도서관(2006)」에서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두 장의 유리 사이에 마찬가지로 구리로 된 매쉬를 끼워 넣은 커튼월을 사용하고 있는데, 촘촘한 구리 매쉬에 의해 햇빛을 받을 때 외부에서는 붉은 구릿빛으로 표면이 빛나고, 그늘진 면이나 야간에는 실내의 모습이 희미하게 투시된다. 또한 실내에서도 적당히 외부 경관을 보여주면서도 눈부심과 과도한 일사량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건물의 외피는 때론 순수한 피막으로, 때론 구조체와 일체된 형태로 존재한다. 금속의 피막을 사용할 경우 금속의 피막은 얇으면서도 강한 구조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형태를 구현할 수 있게 해 준다. ►스바르키텍츄라(Suarquitectura)의 스페인 알리칸트(Alicante) 시 「세르지오 카델 플라자 트램 정류장(2005)」은 구조와 일체된 철제 외피를 통해 역동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형태를 구현해 냈다. 트램 열차의 길이에 맞춰진 36m의 기다란 형태의 철제 박스에 총 800여개의 구멍을 내고 이를 한 쌍의 지지대와 또 한 쌍의 가느다란 인장력 지지봉만으로 지탱하는 이 구조물은 박스모양의 지붕이 마치 지면에서 중력을 거부하며 떠 있는 듯이 보인다. 캔틸레버구조로 지지되는 길이만 22m에 달한다. 신기하면서도 불안해보이기까지 하는 이 구조물은 철제 외피 안에 철제 트러스 구조를 숨겨 놓았다. 그러나 매끈한 표면에 구멍이 불규칙하게 배치된 형태로 전체적으로는 거대한 둥어리로 보인다. 내부에는 조명

을 부착해 야간에는 거대한 야외조명의 역할도 한다. 철제 외피를 사용한 역동적 형태는 주택과 같은 작은 규모의 건물에서 더욱 효과를 발한다. ►한국의 「안양 퍼블릭 아트 파크」 안에 세워져 더욱 관심이 가는 사미 린탈라(Sami Rintala)의 「엘리먼트 하우스(2006)」는 철제구조로 이루어진 정육면체의 박스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슬아슬한 캔틸레버 구조를 실현하고 있다.

금속재료의 다양한 재료적 성질은 강한 구조체로서 뿐만 아니라 가늘고 튼튼한 곡선의 형태를 만드는 데에도 적합하였다. 일찍이 아르누보시기에 금속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디자인들이 실험된 바 있는데, ►프란시스 솔레(Francis soler)의 「프랑스 문화부 청사(2004)」는 100년전 프랑스가 꽂피웠던 아르누보의 디자인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구부러진 넝쿨과 같은 모양의 금속패널을 외벽에 덧붙여 건물을 각종 외부로부터의 침투로부터 보호하고 화려하면서도 장대한 외관을 이루고 있다.

금속의 외피를 논하면서 프랭크 게리의 작품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호에도 프랭크 게리의 최신작, 스페인 엘시에고에 세워진 「호텔 마르퀴스 데 리스칼(2007)」이 소개되었다. 이 작품이 다른 게리의 작품과 비교해 독특한 점은 구부러진 금속의 외피에 색체를 가미했다는 점이다. 본래 파도 치듯 구부러진 금속의 막들은 주변의 경관을 반사하며 다양한 색을 내지만 이번 작품에는



세르지오 카델 플라자 트램 정류장(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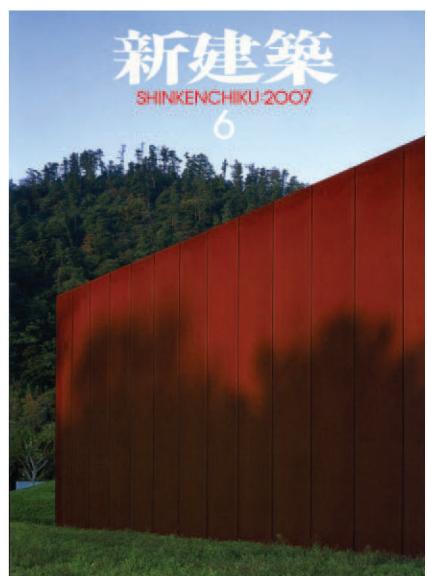
엘리먼트 하우스(2006)



호텔 마르퀴스 데 리스칼(2007)

보라색을 내는 금속의 떠가 하나 끼어들어 있어 신선한 변화를 보여준다. ►한편 스텔 블 훌은 「아이오와대학 미술 및 미술사학부」 건물에서 코르텐 강판을 외장재로 사용하고 건물의 내부에서도 부식된 코르텐강판과 동일한 색상의 페인트를 입힌 철골 및 철판을 내장재로 사용하여 차분하면서도 강한 인상의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 新建築



이번 6월호에서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후지모리교수의 작품과 후미히코마키 종합설계사무소의 「시마네현립 고대역사박물관」, 안도타다오의 「아브다비 해양박물관」 프로젝트를 비롯한 최근 설계를 마친 프로젝트들, 그리고 무사시공업대학의 새로운 「건축학과동」 등이 소개되었다.

### ■ 후지모리(藤森)의 건축

일본 동경대학 생산기술연구소의 후지모

리 테루노부(藤森照信)교수는 40대 중반 건축물의 창작을 시작하기 전에는 대학 졸업후 20년간 일본의 근대건축을 연구해온 건축사가(建築史家)였다. 다실이나 주택과 같은 소규모의 작품이 주를 이루지만 20년간 디자인 활동의 공백 이후에 그가 만들어내는 작품들은 그만의 개성과 상상력, 그리고 오랜 기간 건축사가로 활동해온 건축에 대한 남다른 성찰이 배여 있다. 그의 작품은 얼핏 보면 아마추어다운 면이 남아 있으며, 다소 소박하면서 투박한 면이 발견되지만 그의 작품에는 세련된 현대 건축사들의 작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매력이 있다. 기존의 건축양식 어느 것에도 얹매이지 않는 디자인과 불에 그슬린 삼나무(야케스기:燒杉)와 같은 재료의 사용이나 민들레가 심겨진 지붕 등은 그의 디자인의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의 작품은 분명 일본의 문화적 코드가 짙은 가운데 건축의 시원(始原)을 떠올리게 하는 건축에 대한 성찰이 깊게 배여 있다.

최근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 설치되었던 그의 작품의 「귀국전」이 일본에서 열렸다. 이번 호에는 귀국전의 전시장 스케치와 함께 그의 신작 「燒杉(야케스기)하우스」가 소개되었다. 야케스기하우스에서 후지모리 교수가 주안점을 둔 것은 작품 제목에서 드러난 불에 그슬린 삼나무가 아니었다. 야케스기는 이미 「라무네 온천관」과 같은 작품에서 실험

해 본 터라 그에게는 익숙한 재료였다. 그의 테마는 목조주택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머릿속에 ‘경사지붕에 옆으로 긴 집’이라는 답을 떠올리고 있다. 예전에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동굴주거’라는 새로운 개념이 합해지게 되었다. 여기서 동굴주거는 깊고 음습한 주거가 아니라 크고 넓은 동굴의 입구를 가진, 절반은 외부로 열리고, 절반은 땅속에 들어간 밝은 공간이었다. 그는 프랑스 남부 페리골지방의 구석기시대 동굴벽화를 보고 기존의 동굴주거에 대한 관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와 같은 동굴주거의 개념을 거실과 식당, 주방이 통합된 공간에 적용하였다. 그는 여기에 벽난로를 추가해 원시의 주거가 담았던 요소들을 다시금 활기시키고자 하였으며, 이 공간을 속복도를 갖는 일본의 전통적인 주거평면과 결합하여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부부의 주택으로 완성하였다.

#### ■ 무사시공업대학 신(新)건축학과동

올해로 개교 78년을 맞는 무사시공업대학은 2004년부터 개교 75주년을 기념하여 캠퍼스내에 새로운 건물들을 신축하였다. 2006년 가을에는 건축학과동이 준공되었다. 건축학과동은 건축학과만을 위한 건물로서 신축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새로운 건축학과동의 설계시 주안점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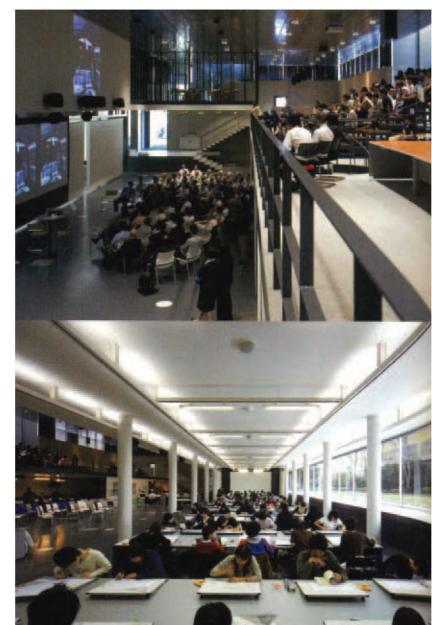
1.「건축분야간의 장벽을 없앨 것」 2.「가변성을 확보할 것」, 3.「교육환경을 사회화할 것」. 무사시공업대학의 건축학과에는 우리나라 어느 건축(공)학과처럼 계획계, 구조계, 설비계, 환경계의 분야가 있다. 이 분야들의 연구공간은 문자 그대로 그 경계를 없앴다. 건축분야 내부의 각 연구분야는 과거 어느 때보다 전문화와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럴 때 일 수록 분야별로 서로 간에 벽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학과 교수진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칸막이와 개방된 연구공간에서 각 분야의 학생들이 어우러질 수 있게 계획하였다. 이 건물의 특징은 이와 같은 오픈 플래닝에서 나타나는데, 학부생들을 위한 공간에도 거대한 제도공간인 「그랜드 갤러리」가 있다. 이는 스튜디오별로 수업이 진행되거나 할 때 적절히 파티션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며, 각종 전시와 강연등 필요에 따라 공간을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공간들은 건축학과 학생들의 거대한 생활공간이다. 경계가 허물어진 공간은 학생들의 다양한 직접적인 접촉을 만들어내고, 유기적인 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설계는 무사시공업대학의 교수인 이와사키 켄이치와 그의 연구실에서 담당하였다.(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귀국전



燒杉(야케스기)하우스



무사시공업대학 신(新)건축학과동